책을 내면서

오늘 온 인류가 그처럼 뜨거운 목소리로 한결같이 격찬하듯이 백두산3대장군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불멸의 력사이다.

백두산3대장군들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력사가 있어 우리 나라는 자주시대를 밝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낳은 위대한 나라로, 근로하는 인민이 주인이 된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조국, 자주로 존엄높은 불패의 사회주의성새로 그 위용을 과시해나가고있다. 그리고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운동의 중심에 확고히 서서 자주시대를 추동해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살며 투쟁하고 있으며 세계는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가장 귀중히 여겨온 우리 민족이 백두산3대장군을 높이 받들어올린것은 력사의 그 어느 민족도 지닐수 없는 최상최대의 특전이며 행운이였다.

우리 청소년들이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그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은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한 숭고한 도덕의리이며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한걸음의 양보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편집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깊이 연구학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서《백두산3대장군혁명력사학습참고서》를 련속편으로 발행하게 된다.

편집부

차 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

불멸의 혁명유산

인물

조직, 단체

회의

자료

문예작품, 출판물

학교

지명

용어 및 어휘

인물

조직, 단체

사건

출판물

학교

지명

용어 및 어휘

인물

조직, 단체

문예작품, 출판물

지명 및 상식자료

용어 및 어휘

기다 자료, 상식

조직, 단체

회의

문예작품

사건

출판물

학교

지명

용어 및 어휘

기타 자료, 상식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적가정에서 탄생,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발취)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무변광대한 이 세계에서 가정이란 하나의 작은 물방울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방울도 세계의 한 부분이며 세계를 떠나서는 존재할수가 없다. 조선을 망국의 비운속에 몰아넣은 근대력사의 파도는 우리 가정에도 사정없이 쓸어들었다. 하지만 우리 집안사람들은 그 위협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민족과 더불어 울고 웃으면서 폭풍속에 아낌없이 몸을 내던지였다.》

《나라가 망하면 산천도 사람도 결코 편안할수가 없다. 망한 나라의 지붕밑에서는 나라를 판 값으로 호의호식하는 매국노들도 발

편잠을 자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은 설사 살아있어도 상가집 개만 못하고 산천은 설사 지경이 남아있어도 제 모습을 보존하기 어렵다.

이런 리치를 먼저 깨닫는 사람을 선각자라고 하며 와신상담하면서 나라의 비운을 가시려고 애쓰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하며 제 한몸을 불태워 진리를 밝히고 만민을 불러일으켜 불의의 세상을 뒤집어엎는 사람을 혁명가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은 없을것이다. 꾸짖어도 매질을 해도 아프지 않은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대가를 모른다.》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 이것이 내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유산의 전부였다. 그것은 모진 고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유산이였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더 훌륭한 유산이 없었다.》

《생각하면 나에 대한 아버지의 정은 남다른것이였다. 내가 좀 자라서부터는 늘 진지하게 나라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터놓고 말씀하군 하던 아버지였다. 무한히 엄하면서도 끝없이 웅심깊은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였다.》

학습문제

문제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1912)년 4월 15일 평양시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탄생은 우리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통운이였으며 인류의 태양을 맞이한 일대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의 새 력사가 시작되고 주체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가정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혁명적가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정은 대대로 애국, 애족, 애민을 가풍으로 삼아온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일가분들은 모두가 나라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외래침략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서 용감히 싸우시였다.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은 19세기 후반기 대동강에 기여든 미제침략선 《셔먼》호의 격침과 《쉐난도아》호를 격퇴하는 싸움의 앞장에서 용감히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이시였다.

할아버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도 자손들을 혁명의 길에 내세우시고 그분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도우시면서 견결한 혁명정신으로 일제와 맞서 싸우신 열렬한 애국자들이시였다.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신 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는 한평생을 조선혁명의 승리와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불굴의 혁명투사

이시며 우리 나라 혁명적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삼촌이신 김형권동지와 동생이신 김철주동지도 일찌기 반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견결히 싸우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들이시였으며 외할아버님이신 강돈욱선생님과 외삼촌이신 강진석선생님 역시 불굴의 반일애국투사들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정은 근면하고 소박하며 인덕을 귀중히 여기는 인민적인 가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일가분들은 대대로 극빈한 소작농의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성실하고 근면한 로동으로 생활을 개척해오시였으며 언제나 소박하고 평범하게 생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일가분들은 돈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인덕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것을 가정철학으로 삼으시고 고결한 인품과 인덕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였으며 혈육들과 이웃간에 서로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마음이 극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의 혁명적가정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위인적풍모가 싹트고 자라난 터전이였으며 주체의 혈통이 뿌리내린 혁명의 요람이였다.

문제2.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이룩하신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이룩하신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지원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주체6(1917)년 3월 23일에 반일지하혁명조직인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것이다.

또한 주체8(1919)년 3.1인민봉기후 변천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향전환시키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하신것이다.

그리고 무장투쟁방략을 제시하시고 무장대오의 단합과 반일애국력량의 통일단결을 이룩해나가신것이다.

문제3.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께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이룩하신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께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이룩하신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우리 나라에서 첫 혁명적녀성대중조직인 반일부녀회를 무으시고 조국의 독립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신것이다.

또한 모진 가난과 일제경찰의 끊임없는 박해속에서도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김형직선생님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성심성의로 도우신것이다.

문제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뛰여난 천품은 무엇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려서부터 뛰여난 천품을 지니고계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일찌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실수 있은것은 수령님께서 지니신 뛰여난 천품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천품에서 중요한것은 비범한 예지와 크나큰 담력과 의지, 뜨거운 동지애, 넓은 도량과 활달하고 소탈한 성품이다.

문제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실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어려서부터 뛰여난 천품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모님의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면서 모순에 찬 당대 사회현상에 대한 체험, 자신의 꾸준한 탐구 그리고 일제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모님의 애국주의교양과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며 성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우리 조국과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에 대하여, 봉건통치배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과감히 싸운 우리 인민과 애국명장들, 세계문화고를 꽃피운 찬란한 민족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사람은 언제나 조선사람의 정신을 지니고 조선사람자신의 힘으로 조국을 해방하고 조국땅에 인민의 새세상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시고 투철한 민족자주의식을 키워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신 아버님의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처음 먹은 원대한 뜻을 버리지 말고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하신 아버님의 투철한 혁명정신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으시고 혁명을 끝까지 해야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고 그들의 두터운 신뢰와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서 혁명투쟁을 벌리시는 아버님의 정력적인 활동과 온화하고 부드러우시면서도 매사에 심중하고 원칙성이 강하시며 큰일을 위하여서는 사사로운 인정에 끌리시지 않는 어머님의 성품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으시며 위대한 혁명가의 고결한 품성을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순에 찬 당대 사회현상에 대한 체험과 그것을 목격하시는 과정에 반일애국사상과 계급의식을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가분들의 가난한 생활과 우리 인민의 비참한 생활을 통하여 일제식민지통치의 반동성과 착취사회의 모순을 깊이 깨달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거족적인 3.1인민봉기때 일제에 대한 불타는 항거의 정신을 키우시였으며 우리 민족의 희생적인 투쟁정신과 영웅적기상을 가슴깊이 새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모님들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중강, 린

쟝(림강), 바다오거우(팔도구), 푸쑹(무송) 등 여러곳으로 자리를 옮기시면서 나라잃은 우리 민족의 설음과 고통을 가슴에 사무치도록 느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과 창덕학교시절의 체험은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더 잘 알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여 압록강을 건느시면서 혁명의 길에 나서실 굳은 결의를 다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을 받으시고 주체14(1925)년 1월 22일 만경대를 떠나 천리길을 걸으시여 2월 3일에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신것은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시대와 력사앞에, 조국과 민족앞에 다지신 비장한 결의였고 엄숙한 맹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깊은 탐구와 혁명실천을 통하여 혁명가의 자질과 풍모를 갖추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학과학습에 힘쓰시면서 혁명적인 책들과 우리 나라 애국명장들과 세계명인들의 전기, 혁명적인 소설들을 탐독하시는 과정에 사회현상과 혁명투쟁에 대한 안목을 넓히시고 독자적인 사고력을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 어려서부터 그에 능통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주시는 어려운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시며 학생들과 군중속에서 반일애국사상을 정력적으로 선전하고 대중계몽활동을 적극 벌리시는 실천투쟁과정에 혁명적의지를 키우시였다.

문제6.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성장의 특징은 무엇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성장은 일찍부터 나라와 민

족의 운명속에 자신을 세워놓고 수난민족의 아픔을 함께 호흡하며 자라신것으로 하여 그 유년기가 매우 짧았다는것이다.

세상에 위인들은 많았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같이 유년기를 짧게 경과한 위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더우기 우리 수령님처럼 유년기에 벌써 보통의 어른들도 다 느낄수 없었던 수난민족의 절통함을 느낀 위인은 없었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령도한 위인들의 경우를 보아도 그들의 유년기는 물론이고 소년기에도 조국과 민족, 혁명의 운명과 관련하여서는 그리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년기의 일반적인 조숙의 한계를 초월하여 수난의 력사에 처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속에 자신이 나아갈 길을 정해놓고 애국애족의 뜻을 키우며 성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조국과 민족앞에 특출한 사명감을 내세우시였다.

위인이 지닌 사명감의 특출성은 그것이 담고있는 내용과 함께 그것을 생애의 어느 시기에 간직하는가 하는데 의해서도 나타난다.

맑스는 대학을 졸업한 때로부터 여러해가 지난 1844년에 공산주의사상에로 확고히 사상적전환을 하고 그 리념을 위해 투쟁할것을 언약하였다. 이것은 그가 거의 26살에 이르러 혁명에 대한 사명감을 지녔다는것을 알수 있다.

레닌은 23살이 되던 1893년에 로동계급의 해방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려는 사명감을 지니고 본격적인 혁명투쟁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처럼 10대 초엽에 벌써 한생의 투쟁목표를 조국과 민족, 혁명을 위한데로 확고히 정한 위인은 없었다.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느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나이는 너무도 어리신 14살이였다.

우리 수령님과 같이 어리신 나이에 겨레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투쟁의 길에 나선 혁명의 령도자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

김응우선생(1846. 6. 17－1878. 10.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증조할아버지는 남의 묘를 봐주는 산당지기였으나 나라와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는분이였다.》

평양 중성리에서 탄생하시여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으시였다.

1860년대에 평양에 사는 지주 리평택이네 묘를 보아주기로 하고 산당집(오늘의 만경대초가집) 한채를 얻어 만경대로 이사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남달리 나라와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시였다.

1866년 8월 미제침략선 《셔먼》호가 대동강에 침입하였을 때 마을인민들을 조직동원하시여 화공전술로 가증스러운 침략선을 불태워버리시였으며 미제침략자들을 대동강 깊은 물속에 처박아넣으시였다.

1868년 3월 미제침략선 《쉐난도아》호가 대동강하구에 침입하였을 때에도 침략자들을 격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시였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만경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건통치배들과 지주들의 략탈적본성에 대하여 깨우쳐주시였으며 놈들을 때려부시고 우리 인민이 잘살수 있는 방도에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다.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선생님께서는 애석하게도 30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였다.

김보현선생(1871. 8. 19－1955. 9.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 〈남자는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집안식구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 떳떳이 살도록

교양하였으며 자손들을 혁명투쟁에 아낌없이 내세웠다.》

평양(오늘의 만경대구역 만경대동)에서 김응우선생님의 아드님으로 탄생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아버님을 여의시고 철들기 전부터 갖은 고초를 다 겪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애국심과 봉건관료배들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신이 남달리 강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늘 남자는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아드님과 손자분들을 교양하시고 혁명투쟁에 아낌없이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영향이 커감에 따라 당황한 일제침략자들이 주구들을 내세워 돈뭉치를 내놓으며 회유할 때에도 혁명일가의 절개를 지켜 꿋꿋이 맞서 싸우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해방후에도 만경대의 초가집에서 부지런한 농민으로서 계속 근면하게 농사를 지으시다가 84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였다.

선생님의 유해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에 안치되여있다.

선생님의 묘지가 있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에 그의 반신상을 모시였다.

리보익녀사(1876. 5. 31－1959. 10. 1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촌늙은이들이였지만 진정을 말하건대 나는 그분들의 견결한 혁명정신에 탄복하였고 거기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

말이 쉽지 자식들을 키워 고스란히 혁명의 길에 내세우고 그에 뒤따르는 갖은 고초와 시련을 묵묵히 견디면서 자손들의 뒤를 꾸준히 받쳐준다는것이 한두번의 전투나 몇년간의 감옥살이에 비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리보익녀사께서는 평양(오늘의 사동구역 오류리)에서 극빈하면서도 의절이 강한 가문에서 탄생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모진 가난과 고역속에서도 민족의 절개를 지켜 굳세게 살며 싸워나가시였다.

녀사께서는 맏아드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셋째아드님이신 김형권동지께서 나라찾는 큰일에 한몸바쳐 싸워나가도록 아드님들을 적극 고무해주시였다.

녀사께서는 특히 맏손자님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던 시기에 수령님을 《귀순》시켜보려는 일제의 어리석은 책동에 견결히 맞서 싸우시였다.

녀사께서는 해방후 만경대에서 농사를 하시면서 근면하게 생활하시다가 8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였다.

녀사의 묘지가 있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에 반신상이 세워졌다.

김형직선생(1894. 7. 10－1926. 6.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의 한사람으로서 1894년 7월 10일에 만경대에서 탄생하여 1926년 6월 5일 망국의 심야에 한을 품고 돌아갈 때까지 일생을 혁명에 바친분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평양(오늘의 만경대구역 만경대동)에서 열렬한 애국자들이신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의 맏아드님으로 탄생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일찍부터 지원의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1911년 봄에 평양숭실중학교에 입학하시여 선진적인 학생청년들을 묶어세우고 동맹휴학과 같은 여러 투쟁들을 조직지도하시였으며 동지들을 규합하시였다.

주체2(1913)년 봄 평양숭실중학교를 중퇴하시고 직업적인 혁명가로 나서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6(1917)년 3월 23일 조

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8(1919)년 7월 청수동회의에서 무산혁명의 력사적필연성을 론증하신데 기초하여 이해 8월 중국 관디엔(관전)현 홍퉁거우(홍통구)에서 조선국민회 각 구역장들과 련락원들, 독립운동단체 책임자들의 회의(관디엔회의)를 소집하시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운동에로 방향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정식으로 선포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관디엔회의후 새로운 무장활동준비와 무장단들의 단합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자제분들이 어려서부터 애국의 넋을 깊이 간직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준 혈육인 동시에 어린 나이때부터 나를 혁명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준 스승이였고 지도자였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던 선생님께서는 주체15(1926)년 6월 5일 자제분들에게 몸이 찢겨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시고 너무도 일찌기 서거하시였다.

평양시 강동군 봉화리와 자강도 중강군 중강읍에 동상이, 선생님의 묘지가 있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에 반신상이 모셔져있다.

량강도 후창군을 김형직군으로, 군인민병원을 김형직인민병원으로, 평양사범대학을 김형직사범대학으로 그리고 군의대학의 이름을 김형직군의대학으로 부르고있다.

강반석녀사(1892. 4. 21－1932. 7. 31)

강반석녀사께서는 평양(오늘의 만경대구역 칠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열렬한 애국자이신 강돈욱선생님의 둘째따님으로 탄생하시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과 한가정을 이루신 후 혁명의 원대한 뜻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게 되시였으며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만경대에서 생활하시던 강반석녀사께서는 주체6(1917)년 봄에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봉화리로, 그후에는 중강, 린쟝, 바다오거우, 푸쑹으로 자리를 옮겨가시면서 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도우시며 적극 투쟁하시였다.

주체15(1926)년 6월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신 후에 강반석녀사께서는 선생님께서 유언하신대로 자제분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위대한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심어준 스승이라면 어머니는 일단 혁명을 시작한 사람은 인정에 끌리거나 곁눈을 팔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오로지 목적한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만 노력해야 한다는 리치를 깨우쳐준 고마운 선생이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방조밑에 주체15(1926)년 12월 26일 푸쑹(무송)에서 우리 나라의 첫 혁명적녀성조직인 반일부녀회를 무으시고 그 첫 회장으로 사업하시였다.

녀사께서는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될 때에는 부녀회원들을 발동하시여 군복을 만드시였으며 유격대가 창건된 후에는 반일인민유격대에 필요한 물자들을 마련해보내시였다.

자신과 가정을 고스란히 혁명을 위해 다 바치시며 억세게 싸워오시던 강반석녀사께서는 40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시였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에 동상이, 녀사의 묘지가 있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에 반신상이 모셔져있다.

김철주동지(1916. 6. 12－1935. 6. 1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실로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가버린 인생이였다.

철주는 열살을 넘기기 바쁘게 혁명조직을 따라다니였다. 무송에 있을적에는 새날소년동맹 선전책으로 활동하였고 소사하에 와서는 구공청위원회 비서로 사업하였다.

량강구에서 나와 헤여진 철주는 그후 수많은 공청원들을 키워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시키였다. 그는 자청해서 어려운 반일부대와의 사업도 하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평양(오늘의 만경대구역 만경대동)에서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둘째아드님으로 탄생하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주체18(1929)년 12월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결성하신 우리 나라에서의 첫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의 선전책임자로 활동하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주체18(1929)년부터 공청생활을 하시면서 주체20(1931)년 가을 추수투쟁에 광범한 청년들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시였으며 주체21(1932)년 7월 어머님과 영결하신 후에는 나어린 동생과 함께 계시면서 안투(안도)지방에서 활동하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안투지구의 공청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수많은 공청원들을 키워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시키시였으며 안투 반일부대 공작부장 등으로 활동하시면서 반일공동전선을 위한 사업 특히 중국인반일부대와의 사업을 적극 벌리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으로 활동하시던 김철주동지께서는 안투현 처창쯔(처창즈)근방에서 불의에 맞다든 일제침략군과의 결전장에서 19살을 일기로 장렬한 최후를 마치시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 김철주동지의 반신상이 모셔져있다.

김철주동지의 혁명적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평양제2사범대학의 이름을 김철주사범대학으로 명명하여 부르고있다.

김형권동지(1905. 11. 4－1936. 1. 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

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형권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카륜회의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없이 내던진 수많은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보군 한다.》

김형권동지께서는 평양(오늘의 만경대구역 만경대동)에서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의 셋째아드님으로 탄생하시였다. 《삼손》이라는 애칭으로 불리우시기도 하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주체9(1920)년 5월부터 린쟝, 바다오거우, 푸쑹 등지를 중심으로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직접 도우시면서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주체15(1926)년 6월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직업적인 혁명가로 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16(1927)년 12월 백산청년동맹에, 그 이듬해에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에 가맹하시였다.

주체19(1930)년 7월부터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성원으로, 조선혁명군의 지휘관으로 활동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주체19(1930)년 8월 국내에 진출하여 풍산군(당시) 파발리 내중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고 악질경관 《오빠시》순사부장(본명 마쯔야마)을 처단하시였으며 그후 리원, 북청, 홍원군 일대에서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시였다.

주체19(1930)년 9월초 홍원군 전진동에서 일제의 주구의 밀고로 체포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감옥생활을 하시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일제의 야수적고문에 의하여 생긴 병으로 하여 31살을 일기로 형무소에서 영웅적생애를 마치시였다.

김형권동지의 혁명적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량강도 풍산군을 김형권군으로, 신포사범대학과 파발중학교를 김형권신포사범대학, 김형권중학교로 고쳐부르고 있다.

김형권군 김형권읍과 홍원군 홍원읍에 김형권동지의 동상이, 혁

명렬사릉에 반신상이 모셔져있다.

김원주동지(1927. 9. 22－1957. 6. 2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평양일대에는 조국해방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항쟁조직이 있었습니다. 나의 4촌동생 김원주가 들어있던 조직입니다.》

김원주동지께서는 평양(오늘의 만경대구역 만경대동)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큰삼촌이신 김형록선생님의 아들로 탄생하시였다.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신 김원주동지께서는 어려서부터 계급적각오와 혁명적열의가 높으시였다. 1940년대초에 강선제강소(당시)에 들어가시여 소년로동을 하시던 김원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받들고 항일무장투쟁에 호응하여나설것을 굳게 결심하시였다.

김원주동지께서는 주체33(1944)년 7월에 선진적인 로동자들과 청년학생들로 반일지하혁명조직이며 전민항쟁을 위한 무장봉기조직인 《조국해방단》을 결성하시고 무장폭동을 일으킬수 있는 준비를 적극 추진하면서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반일선전활동을 비롯하여 징병, 징용반대투쟁, 안주군용비행장건설반대투쟁, 강제공출반대투쟁 등 각종 반일투쟁을 활발히 벌려 일제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가하시였다. 김원주동지께서는 주체34(1945)년 5월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여 대동군경찰서에서 감옥생활을 하시다가 조국의 해방과 함께 감옥에서 나오시였다.

김원주동지께서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 조국건설로선과 방침을 받들고 적극 투쟁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인민보안부문에서 중임을 지니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기 위한 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김원주동지께서는 전후에도 계속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시다가 병환끝에 일찍 세상을 떠나시였다.

강돈욱선생(1871. 2. 3－1943. 11. 1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

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의 외할아버지(강돈욱)는 고향마을에 사립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들을 공부시키면서 일생을 후대교육과 독립운동에 바쳐온 열렬한 애국자, 교육자의 한사람이였으며 맏외삼촌(강진석)도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자였다.》

강돈욱선생님께서는 평양(오늘의 만경대구역 칠골1동)에서 강병희선생님의 둘째아드님으로 탄생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1908년 칠골에 창덕학교를 세우시고 후대교육사업에 힘쓰시였으며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책동을 물리치고 학교를 지켜내시였다.

계몽활동과 교육사업에 정력하시던 강돈욱선생님께서는 주체8(1919)년 거족적인 3.1인민봉기가 일어나자 마을사람들과 청년들을 반일시위에로 불러일으키시고 칠골에서부터 평양성으로 행진하는 반일시위대렬을 선두에서 지휘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이때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지만 석방될 때까지 철창속에서 꿋꿋이 싸우시였다.

선생님께서는 3.1인민봉기이후 더욱 왕성한 투지를 지니시고 청소년들과 마을사람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였으며 72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한생을 후대교육과 독립운동에 바치시였다.

강진석선생(1890. 1. 19－1942. 11. 12)

평양(오늘의 만경대구역 칠골1동)에서 강돈욱선생님의 맏아드님으로 탄생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일제의 조선강점으로 망국의 비운이 드리우게 되자 칠골에서 조선독립청년단을 무으시고 조선국민회에 망라되시여 반일투쟁을 벌리시였다.

강진석선생님께서는 주체8(1919)년 3.1인민봉기가 일어나자 대동군 룡산면일대 반일시위조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아버님이신 강돈욱선생님과 함께 반일독립시위를 선두에서 지휘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그후 김형직선생님의 이끄심따라 압록강대안 중국

린쟝에 들어가시여 평안도지방의 독립운동자들을 중심으로 무장단인 백산무사단을 조직하시고 평안남도일대에서 정치활동과 무장활동을 적극 벌리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주체9(1920)년 여름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국내에 나오시여 평양, 대동, 강서, 안주일대에서 일제와 그 주구들을 처단하는 과감한 투쟁을 벌리시였으며 주체10(1921)년 3월에는 또다시 무장대를 인솔하시고 자성, 개천일대뿐아니라 평양 한복판에까지 진출하시여 일제관리들과 악질지주들을 습격처단하고 인민들의 반일투쟁을 고무하시였다.

강진석선생님께서는 주체10(1921)년 4월 국내공작임무를 수행하시던중 평양대동려관에서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여 15년의 장기형을 받고 13년 8개월동안의 옥중생활을 하시다가 병보석으로 집에 나오신 후 원쑤들의 모진 고문으로 생긴 병환으로 하여 52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였다.

불멸의 혁명유산

지원의 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지원〉이란 문자그대로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지원의 사상은 개인의 영달이나 립신양명을 념두에 둔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인생관이며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지원의 사상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내놓으시고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셨던 사상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가정에는 물론 순화학교와 명신학교 등 이

르는 곳마다에 지원이라는 두 글자를 붓글씨로 큼직하게 써붙이시고 자제분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 인민들에게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려면 큰뜻을 가져야 한다고 늘 가르치시였다.

지원의 사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귀중한 유산의 하나였다.

3대각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생전에 남기신 고귀한 혁명유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혁명가는 어디 가나 항상 3대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아사, 타사, 동사, 다시말하여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처음먹은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안으시고 외세에게 빼앗긴 조국을 광복하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동지획득에 관한 사상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병중에 계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제일 그리워지는것이 친구들이라고 하시며 좋은 동지들을 많이 사귈것을 거듭 당부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동지를 위해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동지를 얻을수 있다.》는 지론을 위대한 수령님께 그대로 넘겨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생전에 하신 동지획득에 관한 사상은 위대한 수령님께 남기신 고귀한 혁명유산이다.

두자루의 권총

김형직선생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남기신 고귀한 혁명유산.

김형직선생님의 총적인 지향은 무장투쟁을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지향하신 념원을 이어받아 총

두자루를 새끼치고 또 쳐서 200자루, 2 000자루, 2만자루로 되게 하여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 굳은 결심을 다지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인 물

강량욱(1904. 12. 7—1983. 1. 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라없는 민족의 슬픔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한 나에게는 고향에 있는 한대의 나무, 한포기의 풀, 한이삭의 곡식이 이전보다 몇갑절 더 소중해보였다. 그런데다가 강량욱선생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부단히 고취하였으므로 나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상적으로 애국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였다.》

반일애국렬사. 평양(오늘의 만경대구역 칠골)의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여났다. 숭실중학교에 입학하였다가 학비를 댈수 없어 중퇴하고 창덕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12(1923)년 창덕학교에 입학하시였을 때 담임교원을 하였다. 그후 평양숭실전문학교, 일본동경대학을 거쳐 주체26(1937)년 평양신학교를 나온 다음 목사로 되였다. 해방후 주체35(1946)년부터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서기장, 그 다음해부터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주체37(1948)년 9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다. 주체47(1958)년부터 북조선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주체70(1981)년부터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전선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주체48(1959)년 8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주체61(1972)년 12월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의 직책에 있으면서 공화국의 위력을 강화하고 조국의 자주적통

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오랜 병환끝에 사망하였다. 묘는 애국렬사릉에 있다.

강윤범(1910. 8. 1－1950. 12.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강윤범은 나를 광복의 길로 전송해준 잊지 못할 동지였고 친우였다. 나는 지금도 그날 평양역에서 눈물을 머금고 나를 바래주던 강윤범의 모습을 잊지 않고있다.》

평양(오늘의 만경대구역 칠골)에서 소작농의 아들로 태여났다.

소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병으로 2년동안 다니지 못하다가 주체12(1923)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편입하신 창덕학교 5학년에서 공부하였다. 이해 여름 학교뒤산에서 일제를 반대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듣고 반일운동에 참가할 결심을 가지였다.

주체14(1925)년 1월 바다오거우(팔도구)에 계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는 뜻하지 않은 비보를 받으시고 광복의 천리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평양역까지 와서 정성들여 마련한 도중식사와 려비 3원을 편지와 함께 드리였다.

그후 창덕학교를 졸업하고 평양광성중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학비를 낼수 없어 중퇴하였으며 창덕학교에서 9년동안 교편을 잡고 반일운동을 벌리다가 주체28(1939)년 일제경찰에 체포되여 감옥생활을 하였다. 출옥후 대전자동차수리공장과 광골형석광산에서 일하면서 반일투쟁에 참가하였다.

해방직후 조국에 개선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만나뵙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았다.

이해 10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평양시 만경대구역 삼흥동(당시 대동군 오류동)에 중학교를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 학교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련이어 11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평양에 종합대학을 창설할데 대한 교시를 받고 대학건설사업을 맡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대학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결부시켜 **김일성**종합대학으로 부르도록 할것을 발기하였다.

주체37(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 후 내무성 총무부장, 국가계획위원회 건재 및 화학공업부장으로 사업하였다.

주체39(1950)년 가을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 마지막까지 평양에 남아서 맡은 소개사업을 끝내고 뒤늦게 후퇴하던중 개천지구에 투하된 미제침략군의 항공륙전대와 결전을 벌리였으며 그후 놈들에게 피살되였다. 묘는 애국렬사릉에 있다.

김옥균(1851－189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어린시절에 아버지가 조선의 부르죠아개혁운동에 대해서 말씀하는것도 여러번 들었다. 아버지는 김옥균이 지도한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난데 대하여 매우 아쉬워하면서 개화당이 내놓은 혁신정강중 인권평등, 문벌폐지, 인재등용,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의 페절을 암시한 독립사상 등은 모두 진보적인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김옥균을 뛰여난 인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의 개혁운동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근대력사가 달라질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미련까지 가지였다.

김옥균의 개혁운동과 정강에서 제한성을 찾고 우리가 그것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본것은 그후의 일이다.》

우리 나라의 첫 부르죠아개혁운동가. 자는 백온, 호는 고균이다. 충청남도 공주에서 량반 김병태의 맏아들로 출생하였다. 5촌인 김병기의 양아들로 되여 그의 슬하에서 자라났다. 청년시절에 오경석, 류홍기 등 개화사상가들과 접촉하면서 자기의 사상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1870년대초에 개화사상가들로 개화당을 형성하고 그를 큰 정치세력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활동하였으며 여러가지 근대적정치개혁조치도 취하였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의 준공을 축하하는 연회를 리용하여 정변(갑신정변)을 단행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일제의 배신행위 특히는 인민들의 힘을 믿지 않고 자체의 무장세력을 준비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그의 정변은 《3일천하》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그후 부르죠아개

혁운동을 계속할 결의밑에 몇명의 개혁파인사들과 함께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886년 7월까지 도꾜에 있다가 일본반동정부의 책동으로 이해 8월부터 1888년초까지는 오가사와라섬에, 1893년까지는 혹가이도에 추방되여 실제상 감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일본반동정부의 박해로 일본에 더 있을수 없게 되여 1894년 3월에 중국 상하이(상해)로 갔으나 리조봉건통치배들과 일본반동들이 공모하여 보낸 암살군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저서로서 《갑신일록》, 《기화근사》 등을 남겼다.

고종(1852-1919)

리조봉건국가의 26대왕. 이름은 리명복, 자는 성림, 명부, 호는 주연이며 고종은 죽은 다음에 붙인 칭호이다. 통치기간은 1863～1907년이다. 왕족인 홍선대원군 리하응의 둘째아들로 출생하였다. 1863년 12월에 리조 25대왕 철종이 왕자리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자 그의 뒤를 이어 왕으로 되였다.

고종은 민가일파와 함께 리조봉건국가의 유지를 위하여 안으로는 반동적봉건통치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밖으로는 《개국정책》을 표방하면서 외래침략세력에 아부굴종하였다.

그는 전제군주라는 본성으로부터 왕권과 왕실의 유지를 위하여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외세에도 의존하였으나 국운이 엄중한 단계에 이르자 비록 철저하지는 못하였으나 민족적립장을 지키는데로 나갔고 그것을 끝까지 견지하였다. 그는 《을사5조약》에 대하여 처음부터 사전승인을 하지 않았고 서명과 옥새날인도 하지 않았으며 그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의 불법무효를 주장하였다. 1907년 6월에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을사5조약》의 비법성과 무효를 세상에 공포하기 위하여 3명의 밀사를 보냈고 날조된 이 조약의 페기를 목적으로 반일의병투쟁을 벌릴데 대한 비밀지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는 1907년 일제가 《정미7조약》을 강요하였을 때에도 사전승인과 서명, 옥새날인을 거부하였다. 그는 헤그밀사사건후 그해 8월 일본의 협박으로 황태자(순종)에게 왕자리를 넘겨준 다음 일본

군인들이 파수를 서는 덕수궁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죽었다.

쑨원(손문)(1866－192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아버지는 특히 손문이 중국혁명동맹회의 강령으로 내세운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와 5.4운동의 영향밑에 새롭게 내놓은 련쏘, 련공, 부조공농의 3대정책을 찬양하면서 그를 도량이 크고 의지가 강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혁명가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손문이 중화민국을 수립한 후 공화정치제도의 수립과 청나라 황제의 퇴위를 조건부로 원세개에게 총통의 자리를 양도한것은 실책이였다고 말씀하였다.》

중국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의 선구자, 중국국민당의 창건자.

광둥성 중산현의 중농가정에서 둘째아들로 태여났다.

1894년 부르죠아혁명단체인 흥중회를 조직하고 만청봉건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1905년 일본에서 흥중회, 화중회, 광복회를 통합하여 중국혁명동맹회를 결성하고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를 동맹회의강령으로 내세웠다. 1911년 10월 신해혁명(중국부르죠아혁명)을 지도하여 승리하였으며 1912년 1월 난징(남경)에서 중화민국림시정부를 수립하고 초대 총통으로 되였다. 그후 공화정치제도의 수립과 청나라 황제의 퇴위를 조건부로 위엔스카이(원세개)에게 총통의 자리를 양도하였다가 그에게 탄압당하여 또다시 일본에 망명하였다. 1914년 도꾜에서 중화혁명당을 결성하였다. 1917년 광둥에 군사정부를 수립하고 대원수로 되였으나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지 못한탓에 또다시 실패하였다. 1919년 중화혁명당을 중국국민당으로 개칭하였다.

1922년 다시 광둥군사정부의 총통으로 되였으며 북방군벌세력을 반대하여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5.4운동의 영향밑에 1923년 1월 국민당개조선언을 발표하고 련쏘, 련공, 부조공농의 3대정책을 내놓았다. 이해 황푸(황포)군관학교를 세웠다. 1924년 1월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를 열고 중국공산당

이 내놓은 국공합작방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제1차 국공합작이 실현되게 하였다. 1924년 10월 베이징정부가 발기한 국민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베이징에 갔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조직, 단체

일심친목회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평양숭실중학교에 조직되였던 대중적인 비합법적학생청년조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아버지의 지도밑에 숭실중학교에는 독서회와 일심친목회가 조직되였다. 이 단체들은 학생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는 한편 평양과 그 주변일대에서 적극적인 대중계몽활동을 벌리였으며 1912년 12월에는 교내에서 학교당국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착취행위를 반대하는 동맹휴학까지 조직하였다.》

주체1(1912)년 6월 모란봉 을밀대부근에서 숭실중학교의 독서회와 친목회의 핵심성원들을 중심으로 무어졌다. 당시 숭실중학교에는 여러개의 합법적인 친목회가 무어져있었다. 그러나 이 친목단체들은 반일을 지향하는 하나의 흐름속에 결합되지 못하고 제각기 분산되여 활동하고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분산적으로 조직되여있는 친목회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며 전교학생들을 하나의 목적밑에 굳게 결속시키기 위하여 조선독립에 대한 열망이 높고 뜻을 같이하는 학생들로 일심친목회를 조직하시였다.

일심친목회는 광범한 청년학생들을 묶어세우고 그들속에 깊이 뿌리박은 비밀조직이였으며 학생청년들을 한마음한뜻으로 단합시키며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내세웠다.

선생님의 지도밑에 일심친목회는 학생들을 애국적인 사상으로 교양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평양과 그 주변일대에서 대중계몽사업을 적극 벌려나갔다. 그리고 주체1(1912)년 12월에는 교내에서 학교당국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착취행위를 반대하여 동맹휴학을 조직하였다.

조선국민회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결성하신 반일지하혁명조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의 애국자들이 무은 국내외의 조직들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의 하나였다.》

주체6(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서 결성되였다.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었다.

조선국민회의 투쟁과업은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그들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 한결같이 조직동원하고 국민회조직을 튼튼히 꾸리는것이였으며 장차 동양에 뻗친 유미렬강세력이 일본과 패권을 다투는 기회에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것이였다.

조선국민회는 우리 나라에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의 애국자들이 무은 국내외조직들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으로서 그 이전 시기의 반일단체들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조직이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그 조직이 매우 치밀한 혁명적이고 반제자주적립장이 투철한 조직이였다.

조선국민회가 결성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비로

소 옳바른 투쟁목적을 가지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운 중추적 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반일혁명력량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조선국민회는 그이후 조직된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와 같은 합법적인 외곽단체들로 철저히 위장하고 조직을 확대해나갔다.

그리하여 국민회조직은 평양을 비롯하여 평안남북도일대와 황해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경기도 등 국내각지는 물론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상해), 지린(길림), 푸쑹(무송), 린쟝(림강), 창바이(장백), 관디엔(관전), 단둥(단동), 화디엔(화전), 싱징(흥경) 등 국외에까지 확대되였다.

조선국민회는 조직확대사업과 함께 광범한 인민들을 반일투쟁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렸으며 무장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무기를 마련하고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사업 등을 적극 진행하였다.

그러던중 주체6(1917)년 가을 조직의 일부가 드러나 조선국민회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였다. 수많은 조직들이 파괴되고 전국적범위에서 100여명의 국민회성원들이 검거되였다.

그러나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조선국민회조직은 시급히 복구되였으며 조선국민회는 주체7(1918)년 11월과 주체8(1919)년 7월에 열린 청수동회의와 주체8(1919)년 8월 관디엔회의를 계기로 산하조직과 조직원들앞에 새로운 투쟁방침과 과업들을 제시하였으며 그 관철을 위하여 군중을 계몽시키는 사업과 무장대의 군사활동을 과감히 조직전개하였다.

조선국민회는 이 시기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향전환시키며 반일독립운동의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학교계

조선국민회의 합법적인 외곽단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

음과 같이 쓰시였다.

《조선국민회는 그이후 조직된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와 같은 합법적인 외곽단체들로써 철저히 위장되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주체6(1917)년 3월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후 평안남도 강동군 고읍면 내동부락(평양시 강동군 봉화리)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각계각층 인민들로 조직하시였다.

형식상 공동의 힘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합법적인 대중단체로 조직되였으나 실제로는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선국민회의 활동을 돕는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활동하였다. 계에는 책임자로서 계장이 있었으며 계원들의 모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한번씩 정상적으로 진행되였다. 학교계는 계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킴으로써 일제를 반대하며 조선국민회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비석계

조선국민회의 혁명적인 합법적외곽단체.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6(1917)년 3월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이후 평양시 강동군 봉화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로 비석계를 조직하시였다.

형식상 부락주민들의 공동의 리익과 경제적인 호상부조와 친목을 위한 단체로 조직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조선국민회의 활동을 적극 돕는것을 자기의 과업으로 삼고 활동하였다. 비석계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불망비문》을 활동규범으로 하였다. 계에는 책임자로서 계장이 있었으며 계원들은 정상적으로 회비를 내고 회합에 참가하였다. 계조직은 대중계몽활동, 애국적교육활동, 군자금조달, 반일독립운동자들의 길안내와 적

정탐지 등 반일운동을 벌렸으며 조선국민회의 군중적지반을 닦고 반일애국력량을 꾸렸다. 주체17(1928)년 봉화리 계조직성원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사에 쌓아올리신 공적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기 위하여 비석계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맨 웃자리에 선생님의 존함을 모시였으며 그다음 계원들의 이름과 《불망비문》을 새겼다.

향토계

조선국민회의 합법적인 외곽단체.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주체6(1917)년 3월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후 평양시 강동군 봉화리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반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애국적인민들로 조직하시였다. 형식상 경제적인 상호부조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대중단체로 조직되였으나 실제로는 조선국민회를 위장하며 그의 사업을 적극 돕는것을 자기의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활동하였다.

계원들은 일정한 조직체계와 활동규범에 따라 행동하였다.

계의 책임자로서 계장이 있었으며 계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계원들은 농민, 상인, 교원, 의사 등의 직업을 가지고 여러 지방을 오가면서 호상 조직적인 련계를 가지고 활동하였다. 계는 계원들속에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일제를 반대하며 조선국민회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민족단체련합촉진회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무어주신 독립운동단체들의 련합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아버지는 통일단결이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력사적대과제라는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1925년

8월에 무송에서 국내외의 조선국민회 대표들, 무장단체 대표들과 함께 독립운동대렬의 통일단결을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민족단체련합촉진회를 결성하였다.》

주체14(1925)년 8월 푸쑹(무송)회의에서 결성되였다. 민족단체련합촉진회가 결성됨으로써 만저우(만주)와 국내의 넓은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모든 반일독립운동단체들이 민족단합의 원칙과 반일의 기치아래 결속되여갔다.

그후 민족단체련합촉진회는 김형직선생님의 의도대로 독립운동대렬의 통일을 실현하며 단결과 련합의 길로 수많은 민중을 이끌어나갔다.

백산무사단

독립운동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무장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백산무사단은 림강과 장백일대에 조직된 군소독립군단체들가운데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대오가 째인 무장단이였다.》

백산무사단은 강진석선생님의 주동적인 활동으로 조직되였다. 린쟝(림강)과 창바이(장백)일대에 조직된 군소독립군단체들가운데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대오가 째인 무장단이였다.

린쟝현에 본부를 두고 창바이, 린쟝, 푸쑹 등지와 국내의 여러 지역에 하부조직들을 확대해나갔으며 단원은 6 000여명이나 되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무사단의 지휘관들인 변대우와 김시우, 강진석선생님을 자주 만나시여 린쟝과 창바이일대에 조직된 다른 군소독립군단체들과 관계를 잘 가질데 대하여서와 군사정치활동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주체9(1920)년 6월 강진석선생님의 인솔밑에 무사단에서 선발된 무장소조는 압록강을 넘어 국내에 진출하여 평양과 대동, 강서, 안주 등 일대에서 과감한 군사정치활동으로 일제와 그 주구들에게 커

다란 타격을 주었다.

백산무사단은 이밖에도 평안남북도의 여러 지역에 나와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군 하였다.

회 의

청수동회의 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파괴된 조선국민회조직을 복구강화할데 대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신 평안북도의 조선국민회 조직대표들 및 각 지역 련락원들의 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아버지가 청수동회의(1918년 11월)를 소집한것도 그무렵이였다. 평안북도의 조선국민회조직대표들과 각 지역의 련락원들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파괴된 국민회조직들을 시급히 복구하며 광범한 무산민중을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활동방침을 밝히였다.》

주체7(1918)년 11월 평안북도 삭주군 남사로동자구(당시 평안북도 의주군 광평면 청수동)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주체6(1917)년 가을 일제의 검거선풍으로 많은 조선국민회조직이 파괴되고 살아있는 조직들도 일제의 삼엄한 경계로 하여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고있는 조건에서 파괴된 조직을 시급히 복구정비하고 위축되여있는 조직성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소집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당시 조성된 국내외정세와 일제와 조선민족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 로씨야의 사회주의10월혁명의 경험에 대하여 분석하신 다음 파괴된 국민회조직들을 시급히 복구하며 광범한 무산민중을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새로운 투쟁방침을 밝혀주심으로써 조선국

민회 조직성원들은 명확한 투쟁방향과 방도를 찾게 되였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의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청수동회의는 조선국민회조직을 급속히 복구정비하고 자기 두리에 보다 광범한 무산군중을 결속시켜나가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청수동회의 ②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필연성을 밝혀주신 조선국민회 조직대표들의 회의.

주체8(1919)년 7월 평안북도 삭주군 남사로동자구(당시 평안북도 의주군 광평면 청수동)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운동에로 방향전환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던 시기에 소집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3.1인민봉기후의 정세를 분석하시고 반일민족해방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3.1인민봉기를 계기로 하여 더욱 표면화된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지도자들의 배신행위에 대하여 비판하시고 3.1인민봉기의 교훈은 나라의 독립과 민족해방의 력사적과제는 오직 선진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완수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민족자결주의》의 반동적본질을 폭로하시고 유미렬강에 독립을 청원하거나 일제와 적수공권으로 싸워서는 결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는 진리를 찾게 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청수동회의는 무산혁명의 력사적필연성을 천명함으로써 관디엔회의(1919. 8)와 더불어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를 열어놓았다.

관디엔(관전)회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운동에로 방향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선포하신 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아버지는 1919년 7월 청수동회의에서 무산혁명의 력사적필연성을 론증한데 기초하여 8월 중국 관전현 홍통구에서 조선국민회 각 구역장들과 련락원들, 독립운동단체 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정식으로 선포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민족자력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권익을 보장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것은 반일민족해방운동선상에서 아버지가 이룩한 또하나의 업적이다.》

조선국민회 각 구역장들과 련락원들, 독립운동단체 책임자들의 참가밑에 주체8(1919)년 8월 중국 관디엔현 훙퉁거우(홍통구)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오동진, 장철호, 강제하, 리관린을 비롯하여 40～50명이 참가하였다. 3일간 진행된 회의에서는 청수동회의(1918. 11)후 조선국민회조직들의 활동정형이 총화되고 3.1인민봉기후 변천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당시의 국내외정세를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방향과 여기서 견지하여야 할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시대의 변천에 보조를 맞추어 민족자력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리익을 보장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광범한 민중속에 선진사상을 널리 보급하여 그들을 각성시키고 조국광복의 성전에 힘있게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3.1인민봉기의 피의 교훈은 무장한 원쑤는 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새로운 선진사상으로 교양하여 투쟁에로 조직동원한다면 능히 무기를 잡

고 일제를 때려부실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관디엔회의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가일층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회의였다.

자 료

배움의 천리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 천리길이 조국을 알게 하고 우리 인민을 알게 해준 하나의 큰 학교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는 아버님의 뜻을 새기시고 열두살 어리신 나이에 혼자몸으로 창바이(장백)현 바다오거우(팔도구)에서 만경대까지 오신 력사적인 천여리의 로정.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바다오거우소학교 졸업을 앞둔 시기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배움의 천리길에 나서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주체12(1923)년 3월 16일 아침 바다오거우를 떠나 압록강을 건느신 다음 조국땅 포평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월탄을 지나 험한 오가산령을 넘으시고 화평, 흑수, 강계, 성간, 전천, 고인, 청운, 희천, 향산, 구장을 지나 개천에서 기차를 타시고 3월 29일 만경대에 이르시였다.

배움의 천리길은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참으로 멀고도 간고한 길이였다.

천리중 500리이상은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험산준령이였다. 그 험한 산악들을 단신으로 넘는다는것이 헐치 않았다. 후창에서부터 강계에 이르는 길량옆의 수림들에서는 대낮에도 맹수들이 어슬렁거리였다.

하지만 그길에서 겪으시는 자신의 고달픔보다 더욱 마음 아프고 괴로우신것은 일제에게 짓밟히고 뜯기우는 조국의 참상을 보시

는것이였다. 깊은 산속에 점점이 보이는 화전민의 움막집들과 거기에서 주고받는 기막힌 이야기들, 포승에 묶이워 끌려가는 무고한 인민들, 실로 어디서나 보이는것은 수난속에 허덕이는 겨레의 모습이였고 들리는것은 인민들의 원한과 한숨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을 조국에 내보내시면서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신 아버님의 참뜻을 되새기시면서 비운에 잠긴 조국의 모습을 주의깊게 살펴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길을 걸으면서 조선민족이 참으로 선량하고 도덕적인 민족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시였다.

참으로 배움의 천리길은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조국을 알게 하고 우리 인민을 알게 해준 하나의 큰 학교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걸으신 력사적인 천리길로정에 수놓아진 불멸의 혁명사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천리길로정우에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였으며 화평과 개천 등지에 혁명사적관을 꾸리고 헌시비를 세웠다.

오늘 청소년학생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며 강의한 의지와 튼튼한 체력을 소유하기 위한 배움의 천리길답사행군이 해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광복의 천리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걸으신 만경대로부터 바다오거우에 이르는 천여리의 력사적 로정.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주체12(1923)년 3월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오시여 칠골의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덕학교졸업을 몇달 앞둔 어느날 아버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소식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라찾는 투쟁에 나설것을 굳게 마음다지시고 주체14(1925)년 1월 22일 만경대를 떠나시여 바다오거우에로의 천리길에 다시 오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개천사이는 기차로 가시였으나 구장,

희천을 지나 명문고개를 넘으시고 강계, 화평을 거치는 사이 그리고 높고 험한 오가산령을 넘으시여 포평에 이르시는 사이에는 줄곧 깊은 생눈길을 헤치시며 걸어야 하시였다. 거기에다 눈보라와 강추위를 이겨내시면서 천고의 밀림을 홑몸으로 헤쳐나가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경대를 떠나신지 열사흘만에 포평땅에 이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덮인 압록강기슭에 서시여 아픈 마음을 금치 못하시며 조국산천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그날 압록강가에서 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심리적체험을 하였다. 그날의 그 체험이 가슴속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남기였기때문에 나는 조국에 개선한 후 국내애국자들이 나를 환영하여 차린 연회석상에서도 압록강을 건늘 때의 이야기를 먼저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은 내 비록 비통한 마음으로 조국을 떠나가지만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기어이 너의 품에 돌아오리라고 마음속으로 엄숙히 맹세다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조용히 부르시며 두터운 얼음우로 걸음을 옮기시여 2월 3일 바다오거우에 도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은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로 잇닿은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이였다.

오늘 우리 나라 청소년학생들속에서는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이 널리 진행되고있다.

3.1인민봉기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에 항거하여 일어난 조선인민의 전민족적반일애국투쟁. 3.1봉기, 3.1운동이라고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3.1인민봉기는 일제의 10년간의 야만적인 〈무단통치〉하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조선민족의 쌓이고쌓인 울분

과 원한의 폭발이였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잔인무도한 《무단통치》로 쌓이고쌓인 조선민족의 울분과 사무친 원한의 폭발로 일어났다.

3월 1일 평양에서는 낮 12시에 종소리를 신호로 수천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장대재에 있는 숭덕녀학교 운동장에 모여들어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이 독립국가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한 다음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리였다. 시위대렬이 거리로 밀려나오자 수만명 군중이 이에 합세하였다.

만경대와 칠골인민들도 대렬을 지어 평양으로 밀려갔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각지의 인민들도 남녀로소할것없이 봉기에 떨쳐나섰다.

봉기군중은 일제의 야만적탄압앞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대중적인 독립만세시위투쟁으로부터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으로 넘어가 일제의 통치기관들을 습격파괴하고 침략자들과 매국노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였다.

봉기는 전국의 13개 도를 휩쓸었고 중국 동북지방과 상하이, 로씨야의 연해주, 일본,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에게까지 파급되여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번져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3. 1인민봉기는 나를 인민의 대오속에 세워주고 나의 망막에 우리 민족의 참다운 영상을 새겨준 첫 계기였다. 내 마음속에 우뢰가 되여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던 독립만세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나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성을 두고 다함없는 자부심을 느끼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만경대와 칠골인민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보통문앞까지 가시면서 시위군중을 무참히 학살하는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항거의 정신을 키우시였다.

시위군중과 무장경찰의 격투로 불꽃을 일으키던 보통문 앞거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세계관은 새로운 단계에로 도약하

였다.

3.1인민봉기는 일제의 야만적탄압과 주체적력량의 부족으로 실패하였으나 조선사람들은 자주정신이 강하고 불굴의 기개와 열렬한 애국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으며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놈들로 하여금 형식상으로나마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3.1인민봉기는 인민대중이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반드시 탁월한 수령과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옳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려나가야 하며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체의 혁명력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3.1인민봉기를 계기로 하여 19세기 후반기이래 계속되여온 우리나라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의 시기는 종말을 고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점차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사회주의10월혁명

자본가, 지주정권을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을 세운 인류력사상 첫 사회주의혁명.

레닌을 수반으로 한 볼쉐비크당의 령도밑에 로씨야로동계급에 의하여 수행되였다.

1917년 2월 로씨야에서는 제2차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이 일어나 짜리전제제도가 전복되고 이중정권 즉 부르죠아림시정부와 로동자, 농민의 정권인 쏘베트가 수립되였다.

1917년 4월 레닌은 《4월테제》에서 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할데 대한 과업과 《모든 정권은 쏘베트에로!》라는 볼쉐비크당의 구호를 제기하였다.

1917년 7월말～8월초에 있은 볼쉐비크당 제6차대회에서는 무장폭동으로써 혁명을 수행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다.

10월 10일 당중앙위원회에서는 레닌의 무장폭동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장폭동지도부가 조직되였다.

10월 25일(신력으로 11월 7일) 뻬뜨로그라드의 로동자, 병사

들은 동궁을 습격하여 부르죠아림시정부를 전복하였으며 모든 정권은 쏘베트에 넘어왔다.

뒤이어 1918년 2월까지의 기간에 혁명은 도시를 근거지로 하여 급속히 퍼져가 전국적범위에서 승리하였다.

10월혁명은 하나의 착취제도를 다른 착취제도로 바꾸어놓은 종래의 혁명과는 달리 착취제도 그자체를 뒤집어엎고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의 국가를 세웠으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10월혁명은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일제의 가혹한 민족적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여주었다.

《셔먼》호사건

1866년 미제침략선 《셔먼》호가 대동강에 침입한 사건.

《셔먼》호의 침입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피묻은 침략력사의 첫시작이였다. 이미전부터 아시아대륙에서 조선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중요성을 간파한 미국은 남북전쟁(1861－1865)이 끝나자 조선에 대한 침략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미국침략자들은 먼저 《셔먼》호를 조선에 침입시켜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요함으로써 조선침략의 길을 열어보려고 하였다.

《셔먼》호는 원래 1861년에 미국남부군에 소속된 군함으로 건조되여 《프린씨스 로이얼》(제일공주)호라는 이름을 달고 남북전쟁에 참가하였다가 북부군에 나포되여 1863년에 개조된 후 당시 살인, 방화, 략탈로 악명을 떨친 북부군 서부방면군 사령관 셔먼의 작전수행에 적극 참가하였다. 남북전쟁이 끝나자 미국통치배들은 《프린씨스 로이얼》호의 이름을 《제너럴 셔먼》(셔먼장군)호로 고쳤다. 《셔먼》호의 길이는 60.085m, 너비는 8.235m, 높이는 9m이며 배는 2개의 보이라와 1개의 굴뚝, 2개의 돛대와 4개의 돛, 1개의 추진기, 4문의 포를 가지고있었다. 이와 같이 《셔먼》호는 증기기관과 돛을 겸용하고 추진기까지 달린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무장함선이였다.

미국침략자들은 조선침략에 앞서 《셔먼》호를 미국장교인 프레스톤의 개인무역선으로 위장시키였다. 《셔먼》호는 은밀히 화약과 포탄, 수많은 저격무기와 탄알 등을 싣고 90여명의 인원을 태운 다음 1865년에 미국을 떠나 다음해 6월(양력 7월)에 중국 티엔진(천진)에 도착하였다. 여기에서 그들은 순수 상업적목적으로 조선에 가는 평화적인 상선으로 가장하였다. 그후 산둥(산동)반도의 지부에서 영국목사 토머스를 사환군으로 채용한 다음 조선침략의 최종준비를 끝낸 《셔먼》호는 그곳을 떠나 1866년 8월 16일 대동강어구에 침입하였다.

이때 놈들은 국적도 밝히지 않고 자기들은 평양으로 간다고 하였으며 《통상》이요 《친선》이요 하면서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워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침략자들은 비법적으로 정탐과 수심측량을 하면서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와 며칠후 평양의 한사정앞(쑥섬과 양각도사이)에까지 이르렀다. 놈들은 평양까지 오는 동안 주변에 기여올라 부녀자들을 릉욕하는 등 온갖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8월 27일 놈들은 감시근무수행중인 평양감영의 배를 습격하여 2명의 조선군인을 살해하였으며 중군 리현익을 랍치하였다. 28일 평양감영의 대표와 미국침략자들사이에 벌어진 담판에서 조선측 대표는 미국강도배들의 비법행위와 야수적만행을 규탄하고 중군을 돌려보내며 즉시 물러갈것을 강경히 요구하였다. 침략자들은 자기들을 평양성에 들여놓으며 쌀 1 000섬과 많은 량의 금, 은, 인삼 등을 내놓으라고 오만하게 행동하였다. 이 강도적인 요구가 거부당하자 침략자들은 로골적인 략탈과 살인만행을 감행하였다. 침략자들의 오만무례한 행위에 격분한 조선인민은 투쟁에 궐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의 호소에 호응하여 투쟁에 일떠선 평양시민들과 군인들은 선생님의 지도밑에 결사대를 뭇고 침략선을 불태워버리기 위한 화공전을 준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미제침략선 〈샤만〉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와 두루섬에 정박하고있을 때 증조할아버지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집집에 있는 바줄을 다 모아 강건너 곤유섬과 만경봉사이에 겹겹이 건너지르고 돌을 굴리면서 해적선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9월초에 결사대는 《셔먼》호를 향해 일제히 불배를 띄워 내려보냈다. 그리하여 《셔먼》호는 불붙기 시작하였으며 이어 화약고가 폭발하고 침략선은 대동강에 침몰되였다. 배에 탔던 놈들은 전투과정에 사살되거나 불에 타죽고 나머지는 강으로 뛰여들어 도망치다가 붙들려 처단되였다. 이와 같이 김응우선생님의 화공전술과 평양군민들의 용감한 투쟁에 의하여 미국의 침략무리들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그때까지 미국의 해외침략력사에서 중무장한 근대적인 전투함선이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격침된 사실은 없었으며 이것은 오직 조선에서 처음으로 있은 커다란 사변이였다.

《셔먼》호사건은 미제침략자들이야말로 가장 야만적이며 파렴치한 날강도무리이고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온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며 조선침략에서 놈들에게 차례질것은 오직 수치스러운 참패와 죽음뿐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조선인민은 《셔먼》호의 침략을 반대하는 항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애국적헌신성과 민족적기개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쉐난도아》호사건

1868년 미제침략자들이 침략선 《쉐난도아》호를 우리 나라에 침입시킨 사건.

미제침략자들은 침략선 《셔먼》호의 격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또다시 남연군묘(당시 리조봉건국가의 실권자였던 대원군의 아버지묘)도굴을 획책하는 한편 군함 《쉐난도아》호를 우리 나라에 침입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쉐난도아》호를 침입시킨 목적은 평양부근에 함대를 침입시켜 우리 인민의 이목을 그곳에 집중시킨 다음 남연군묘를 도굴하며 포

화의 위협으로 리조봉건정부를 굴복시키려는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밑에 미해군중좌 페비거를 두목으로 하는 미제침략자들은 1868년 3월 18일 대구경포 1문과 보통대포 8문 그리고 230여명의 침략무력으로 구성된 군함 《쉐난도아》호를 타고 황해도 풍천부 앞바다의 허사진 송우포에 침입하였다. 이때부터 미제침략선 《쉐난도아》호는 황해도와 청천강이남의 평안도지방연해를 오르내리며 도발책동과 살인략탈만행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3월 20일 20여명의 강도단은 황해도 장연현 이도방 오리포에 침입하여 인민들에게 집짐승들을 내라고 강요하다가 거절당하자 밤을 리용하여 주민집들에 불을 지르고 집짐승들을 마구 략탈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한편 침략자들은 대동강하구를 중심으로 한 평안도, 황해도 접경지역의 연해를 오르내리면서 령해에 대한 측량과 정탐행동을 하며 총포사격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평안감사가 항의하자 함장 페비거란자는 3월 23일 회답편지를 보내여 《셔먼》호사건의 《책임》을 조선측에 넘겨씌우면서 위협공갈해나섰다.

《쉐난도아》호의 침략행위에 격분한 우리 인민은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기 위한 싸움에 떨쳐나섰다.

이 투쟁의 선두에는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 서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샤만〉호가 격침된 다음에는 미제침략자들이 또 군함 〈쉐난도아〉호를 끌고 대동강하구에까지 기여들어 살인, 방화, 략탈을 감행하였다. 만경대인민들은 〈쉐난도아〉호가 침입하였을 때에도 의병을 뭇고 조국방위에 한사람같이 궐기하였다.》

김응우선생님께서는 진지방어전술로써 적을 격퇴할데 대한 전법을 내놓으시고 26일 평양인민들과 함께 만경대에서 진지굴설을 시작하시였다. 또한 대동강연안의 요충지들인 동진(대동강과 재령강의 합수목), 보산, 정이산에도 견고한 진지를 축성하도록 하시였다. 이리하여 남포로부터 평양에 이르는 대동강연안은 견고한 요새지로 전변되였다.

김응우선생님께서는 한편 각계각층 인민들을 불러일으켜 의용병을 조직하시였다. 평양과 그 부근의 각지 인민들 및 유생들, 애국적군인들은 미국침략선 《쉐난도아》호를 격퇴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4월 3일 대동강연안의 인민들로 통일적인 의용병대렬이 무어지고 정연한 조직지휘체계가 수립되였다. 의용병들에 대한 인민대중의 후원사업도 더 적극화되였다.

대동강하구에서 맴돌고있던 《쉐난도아》호는 4월 4일 종선(뽀트)을 동진포대앞에 들여보내여 수로측량과 정찰을 감행한 후 4월 7일 평양침공을 목적으로 대동강하구로부터 거슬러올라오기 시작하였다. 동진포대를 지키고있던 조선군인들과 의용병들은 적함선에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침략자들은 불의의 타격에 질겁하여 조선서해바다로 퇴각하였다. 그리하여 동진전투는 평양성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동진을 돌파하지 못한 적들은 평양침공계획을 단념하고 4월 8일에는 삼화부(당시 남포시, 온천군, 룡강군의 일부를 포괄하는 지역) 앞바다에 있는 비련도에 침입하였다. 적들은 이곳 인민들에게 동진에서의 우리의 정당한 방어조치에 대하여 시비하면서 《셔먼》호사건을 결말짓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면 여름철에 자기들의 제독이 직접 함대를 이끌고 올것이라는 최후통첩적인 편지를 리조봉건정부에 전달하도록 강박하고 물러갔다.

《쉐난도아》호는 그후 2주일이상 대동강하구를 돌아치다가 젠킨스일당의 남연군묘도굴책동이 파탄되자 4월 22일 도망치고 말았다. 미국침략선 《쉐난도아》호의 침공사건은 미제침략자들의 파렴치성과 강도적본성을 더욱 낱낱이 드러냈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각성을 높이게 하였다.

문예작품, 출판물

《남산의 푸른 소나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

음과 같이 쓰시였다.

《아버지는 그때 고향을 떠나기에 앞서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시를 남기였다. 그것은 몸이 찢겨 가루가 되여도 대를 이어가며 굴함없이 싸워 삼천리금수강산에 기어이 독립의 새봄을 가져오려는 아버지의 굳은 맹세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

주체7(1918)년 가을 나라의 독립을 위한 보다 큰뜻을 품으시고 고향 만경대를 떠나실 때 지으시였다.

가요는 김형직선생님의 불요불굴의 혁명정신과 열렬한 반일애국사상, 나라의 독립에 대한 원대한 뜻이 심오하게 구현된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이다.

가사는 일제놈들의 폭압이 아무리 간악하고 참기 어려운것이라 할지라도 혁명가는 자기의 절개를 굽힐수 없으며 나라의 독립은 조선인민자신의 불굴의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된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히고있다.

이와 함께 가사에는 독립될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필승의 혁명정신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가요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김형직선생님의 백절불굴의 혁명적기개와 숭고한 혁명정신을 깊이있고 절절한 음악으로 진실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언제나 민족의 억센 기상을 굳건히 간직하도록 하며 그들을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1.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롬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2.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3.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압록강의 노래》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의 애국적감정을 반영하여 창작된 가요. 3.1인민봉기직후에 창작되였으며 일명 《도강가》라고도 하였다.

《압록강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4살되시던 해에 아버님께서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였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받으시고 조국광복의 큰뜻을 가다듬으며 고향 만경대를 떠나시여 압록강을 건느실 때 부르신 의의깊은 노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하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니 어린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시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시였다.

《압록강의 노래》는 전민족적인 3.1인민봉기에서 실패를 겪은 우리 인민과 애국자들의 비통한 생활감정과 애국적지향, 불굴의 투쟁결의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가사에서는 조선독립의 큰뜻을 품고 해외로 떠나가는 애국투

사들이 조국을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전인민적봉기의 력사적인 날인 주체8(1919)년 3월 1일을 영원히 잊지 말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몸바쳐 싸우며 내 나라를 기어이 찾고야 조국땅에 돌아가리라는 굳센 결의와 각오, 애국적인 기개를 강렬하게 표현하고있다.

가요는 1920년대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가요예술의 대표적작품의 하나로 되였다.

1. 일천구백십구년 삼월 일일은
   이내 몸이 압록강을 건넌 날일세
   년년이 이날은 돌아오리니
   내 목적을 이루고서야 돌아가리라

2. 압록강의 푸른 물아 조국산천아
   고향땅에 돌아갈 날 과연 언젤가
   죽어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어
   내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가리라

《조선지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아버지는 나에게 우리 글과 지리, 조선력사를 배워주고 레닌, 손문, 워싱톤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으며 진보적인 소설이나 서적들가운데서 몇권을 지정해주고는 어김없이 읽고 감상을 발표하도록 체계적인 독서지도도 하였다. 그 덕으로 나는 그때 〈조선지위인〉, 〈조선영웅전〉, 〈로국혁명사와 레닌〉과 같은 좋은 책들과 신문, 잡지들을 많이 읽을수 있었다.》

조선의 력대 명인들중의 일부에 대하여 쓴 책. 1922년 8월에 《개벽》잡지사에서 출판발행하였다.

책에는 편찬자들이 유구한 민족사에 기여하였다고 본 10대명

인 솔거, 최치원, 최충, 문익점, 서경덕, 리황, 리이, 리순신, 등의 생애와 활동이 씌여져있다.

부록에는 김옥균과 전봉준에 대하여 소개되여있다. 이 책은 진보적인 서적으로서 인민들의 민족의식과 애국적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조선영웅전》

근대시기까지의 이름있는 조선의 명인들에 대하여 소개한 책. 장도빈이 썼으며 서울의 고려관에서 발행되였다.

책에는 52명의 이름있는 사람들 즉 대부례, 을파소, 성충, 왕건, 서희를 비롯한 12명의 《정치가》, 원광, 정몽주, 리황, 리이, 최제우를 비롯한 10명의 《철학사상가》, 부분노, 온달, 양만춘, 계백, 최영, 정문부를 비롯한 10명의 《군인》, 명림답부, 창조리, 검모잠, 대연림, 홍경래, 전봉준을 비롯한 10명의 《사회정치적변혁운동가》, 달가, 고선지, 임아상, 윤관, 김종서를 비롯한 10명의 《국토개척가》들의 전기가 씌여져있다.

이 책은 봉건왕조사적견지에서 서술된 결함은 있으나 진보적인 서적으로서 인민들속에 민족의식과 애국적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의의가 있다.

《시일야방성대곡》

1905년 11월 20일에 《황성신문》에 실린 론설. 《시일야방성대곡》이란 말은 《이날에 소리내여 크게 통곡하노라》라는 뜻이다.

론설은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강요되고 날조된 《을사5조약》과 관련하여 씌여진 글이다.

론설은 첫 부분에서 조선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의 교활하고 음흉한 침략흉계를 낱낱이 폭로하였으며 《을사5조약》이 결코 성립되지 않았다는것, 불법무효라는것을 밝혀놓았다.

론설은 둘째 부분에서 박제순을 비롯하여 리완용, 리지용, 리근택, 권중현 등 매국역적놈들의 죄행을 격분에 넘쳐 폭로단

죄하였다.

론설은 셋째 부분에서 우리 2천만 동포가 일제의 식민지노예로 전락된데 대한 슬픔과 그지없는 비통한 심정을 서술하였다.

론설 《시일야방성대곡》을 실은 《황성신문》을 받아본 우리 인민은 민족의 명줄을 끊어놓은 일제와 그놈들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역적들에 대한 분격을 금치 못해하였으며 망국의 비통함을 누르지 못하여 땅을 치고 하늘을 원망하며 대성통곡하였다.

비장한 문장으로 엮어진 론설은 강도적인 《을사5조약》의 날조를 계기로 일떠선 조선인민의 반일구국항전을 더욱 고무추동하였다.

학 교

순화서당

평양시 만경대의 남리마을에 세워졌던 초등교육기관. 만경대서당이라고도 하였다. 1898년에 세워졌다. 남리마을인민들은 서당운영을 위하여 서당계를 뭇고 계에서 모은 돈으로 땅을 사서 공동으로 가꾸어 거기에서 나온 곡식을 가지고 훈장의 생활을 돌보아주고 붓과 먹, 벼루 같은 학용품도 장만하였다. 서당에서는 학생들이 한달에 두번씩 매달 초하루날과 보름날 배운것을 훈장에게 외워바치는 《강》을 하였다. 《강》을 잘한 학생들에게는 성적에 따라 《도장원》(1등), 《부장원》(2등), 《삼장원》(3등)의 등수를 매기고 해당한 상을 주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03년 겨울부터 순화서당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글을 배우시여 조선의 문화와 선조들의 애국투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시였다. 순화서당은 1908년 1월 순화학교(6년제 사립학교)로 개편되였다.

숭실중학교

숭실학교의 중학반. 《자선》의 외피를 쓰고 평양에 기여든 미국북장로회 선교사 배위량은 전도사업의 일환으로 1897년에 숭

실학교(4년제)를 세웠다. 학교안에는 전문반(숭실전문학교)과 함께 중학반이 설치되여있었는데 중학반을 숭실학교라고 불렀다.

학교의 목적은 그리스도교와 숭미사상을 전파하는 교직자를 양성하는데 있었다. 학과목은 력사, 대수, 기하, 물리, 위생학, 생리학, 체육, 음악 등이였다. 학교는 전국적판도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였으며 신학문을 숭상하는 청년들이 이 학교를 많이 지망하였다. 1920년대말 현재 학생은 530여명이나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집형편이 그처럼 어려운 때에 아버지가 강심을 품고 숭실중학교에 들어간것도 바로 〈지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1년 봄부터 주체2(1913)년 봄까지 숭실중학교에 다니시면서 학습에 열중하시는 한편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불타는 념원을 안으시고 학생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시였으며 학교에 독서회와 일심친목회 등을 내오시고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묶어세우시였다. 그리고 그들을 학교당국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착취행위를 반대하는 동맹휴학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그리하여 선교사들이 내세운 교육목적과는 관계없이 숭실중학교에서는 후날 독립운동선상에서 큰 활약을 한 이름있는 애국인사들이 많이 배출되였다. 학교는 주체27(1938)년에 페교되였다.

숭의녀학교

그리스도교교육을 목적으로 평양에 설립되였던 학교. 1903년에 장로회, 감리회 등 종교단체에 의하여 세워졌다. 1913년에 사립숭의녀학교로 되였으며 1927년에 유치원 보모과가 증설되였다. 1920년대말에 이르러 학급은 10개정도였고 학생은 270여명이였다. 과목으로서는 성경, 찬송가, 영어 등이 기본이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종교의식과 숭미사상, 노예굴종사상을 주입시켰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조선국민회 성원들은 이 학교 학생들

속에 들어가 반일애국사상교양을 강화하였다. 숭의녀학교 학생들은 주체12(1923)년에 미국인 선교사와 그와 결탁한 악질적인 반동교원들을 반대하여 동맹휴학을 벌리였다.

순화학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아버지는 숭실중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만경대의 순화학교와 강동의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후대교육에 힘쓰는 한편 동지규합에 심혈을 기울이였다.》

평양시 만경대의 남리마을에 설립되였던 사립학교. 1898년부터 설립운영되여오던 순화서당이 1908년 1월에 개편되여 학교로 되였다.

학제는 6년제였다. 학교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든 유서깊은 곳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순화서당을 마치시고 이 학교에 편입하여 공부하시였으며 숭실중학교를 중퇴하고 직업적인 혁명가로 나서신 후 주체2(1913)년부터 주체5(1916)년 봄까지 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후대교육사업에 힘쓰시였다.

선생님께서는 교실에 《지원》이라는 두 글자를 쓴 족자를 걸어놓으시고 학생들에게 나라를 찾기 위한 큰일을 하자면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글과 우리 나라 력사, 지리를 가르쳐주시였으며 모든 과목의 내용이 반일애국사상으로 일관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였다. 선생님의 애국적인 교육활동에 의하여 순화학교 학생들은 반일애국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되였다.

명신학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아버지는 만경대에 계실 때처럼 낮에는 명신학교에서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야학에 나가 군중계몽사업을 하느라고 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군 하였다.》

평양시 강동군 봉화리(당시 강동군 고읍면 동산리 내동마을)에 있다. 이 학교는 흙벽에 돌기와를 올린 《ㄱ》자형의 건물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봉화리로 옮기신 다음 당시 서당으로 쓰던 집을 꾸리시고 운동장도 닦으시여 주체5(1916)년 3월 20일 명신학교를 세우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을 빠짐없이 공부시키기 위하여 산골짜기마다 드문드문 널려있는 외딴집까지 찾아가시여 아이들의 부모를 만나 그들에게 가난한 처지에서 벗어나고 나라를 찾자면 우선 배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도록 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가난한 집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비를 면제해주시였을뿐아니라 학용품까지 대주시였으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늘 댁에서 자게 하고 밥을 해먹이면서 극진히 보살펴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돈이 좀 생기면 그것을 한푼두푼 모아 학교관리운영자금에 보태쓰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6(1917)년 가을까지 직접 교편을 잡으시고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 말과 글, 력사와 지리 그리고 산수, 창가(노래) 등을 배워주시였으며 그들의 과외활동을 조직지도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밤이면 야학을 열어 농촌청년들을 교육교양하시였다. 이처럼 명신학교는 학생들과 인민들을 나라를 찾기 위하여 투쟁에 나서도록 배워주고 이끌어준 혁명의 학교였다.

창덕학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창덕학교는 우리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칠골일대의 선각자들이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조류를 타고 국권회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세운 경향성이 좋은 사립학교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조국에 나오시

여 공부하신 학교이다.

창덕학교는 강돈욱선생님께서 1907년에 칠골일대의 가난한 집 아이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육교양하시기 위하여 세운 사립학교였다. 학교는 남향받이로 앉은 《ㄱ》자형으로 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방 오른쪽줄 맨 앞책상에서 공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덕학교시절에 현실체험과 함께 정력적인 학습을 통하여 왜놈과 지주, 자본가는 한배속이며 이놈들이 없는 새세상을 세워야 모든 사람들이 편안히 잘살수 있다는 혁명의 고귀한 진리를 더욱 깊이 체득하시였으며 기어이 혁명을 해야 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다지시였다. 창덕학교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시던 책상과 걸상을 비롯한 사적물들이 귀중히 보존되여있다.

푸쑹(무송)제1소학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조국에서 보고 느낀것을 이야기하다가 아버지에게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두번다시 압록강을 건느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리였다. 아버지는 대견스럽게 나를 살펴보더니 조선의 아들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고 긍정해주면서 조선을 알기 위한 공부가 창덕학교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니 새 고장에 와서도 조국을 알고 민족을 알기 위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의미심장하게 당부하였다.

며칠후 나는 무송제1소학교에 편입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14(1925)년 4월초부터 주체15(1926)년 봄까지 다니시면서 조국광복의 큰뜻을 키워나가신 학교. 중국 통화(통화)성 푸쑹현소재지 다난(대남)문거리에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4(1925)년 3월 일가분들과 함께 푸쑹으로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푸쑹제1소학교에 편입하시여 학과학습에 온 정력을 쏟아부으시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탐구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의 힘을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주체적력

량으로 능히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다는 사상을 밝히시고 학생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시여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작문 《우리 나라》를 지으시여 학생들에게 우리 인민이 행복하게 잘살자면 간악한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광복해야 하며 그러자면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와 같이 뭉쳐 단결된 힘으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여야 한다고 선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무에 《일본제국주의 타도, 조선독립》이라는 구호를 새기시여 일제의 타도를 선언하시고 조선독립의 방도를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4(1925)년 가을 푸쑹제1소학교 학생자치회모임을 여시고 학생들을 구타한 불량한 교원들의 부당한 처사를 반대하는 전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조직지도하시여 놈들이 사죄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과외활동을 보장하며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애도록 하시였다. 이처럼 푸쑹제1소학교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다.

백산학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백산학교는 국내에서 사립학교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있을 때 그에 보조를 맞추어 무송지방에 이주한 조선의 망명자들과 선각자들이 농민들과 함께 설립한 력사가 오랜 사립학교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푸쑹(무송)을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하실 때 세워주신 조선인학교.

백산학교는 원래 푸쑹지방에 이주한 조선의 망명자들과 선각자들이 농민들과 함께 설립한 력사가 오랜 사립학교였다.

이러한 백산학교는 운영비의 부족으로 오래동안 문을 닫고있다가 김형직선생님의 적극적인 발기와 노력에 의하여 주체14(1925)년 봄에 문을 열었다.

학교는 샤오난(소남)문밖 난티엔(남천)강가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40여명의 조선인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였다.

교실앞벽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손수 쓰신 《지원》이란 족자가 걸려있었다.

학과목은 국어, 조선력사, 조선지리, 한문, 산수, 음악, 체육 등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몸소 《국어독본》을 비롯한 교재를 집필하시였으며 자주 학교를 찾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연설도 하시고 학생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글짓기, 이야기모임, 연예공연 등 과외활동도 조직지도하시면서 그들이 빠른 시일안에 조국해방의 앞길을 헤쳐나갈 일군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학교는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에 의하여 계속 운영되였다. 백산학교는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 거점으로 되였다.

양실학교

최광옥, 김창건 등 애국적지식인들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 1906년 평안북도 의주군에 세워졌다. 그들은 1908년 이 학교를 확장할 목적으로 후원단체인 《평북중학회》를 뭇고 이해 9월에 군안의 일신, 의신학교들을 병합하였다. 학생은 500여명이나 되였다. 학교에서는 조선어와 조선력사, 조선지리 등의 학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속에서 반일민족교육을 진행하였다.

양실학교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평양숭실중학교 재학당시부터 여러번 찾으시여 교직원, 학생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신 학교이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주체7(1918)년 11월 이 학교 교장의 집을 찾으시여 조선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조선의 넋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청년학생들을 반일애국정신으로 교육교양할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지 명

만경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 가문은 김계상할아버지대에 살길을 찾아 전라북도 전주에서 북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만경대에 뿌리를 내린것은 증조할아버지(김응우)대부터였다. 증조할아버지는 원래 평양 중성리에서 태여나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었는데 생활이 너무도 구차하여 평양에 사는 지주 리평택의 묘지를 보아주기로 하고 산당집을 한채 얻어가지고 1860년대에 만경대로 이사해왔다.

만경대는 산천경개가 매우 아름다운 고장이다. 우리 집옆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마루에 올라가 대동강쪽을 굽어보면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을 감상하는것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성지.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동(이전의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에 있다. 만경대는 예로부터 평양8경과 함께 이름있는 명승지이다. 만경대에서 북쪽으로는 칠골이 있고 지금은 동북쪽에서 서남방향으로 현대적인 광복거리가 뻗어있으며 서북쪽에는 룡악산, 서쪽에는 대동강을 따라 펼쳐진 망일벌의 한끝에 대보산이 솟아있고 서남쪽에는 버럭산이 있으며 동쪽과 남쪽에는 두루섬과 곤유섬이 있다. 만경대의 둘레에 있는 높고낮은 산봉우리가운데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만경봉이라고 부른다. 만경봉기슭으로는 험준한 랑림산줄기의 골짜기들에서 시작된 대동강이 흐르고 순화강이 만경대남쪽에서 대동강에 흘러든다. 만경봉에 오르면 일만가지 경치를 다 볼수 있다고 하여 그 이름을 만경봉이라고 지었고 마을의 이름도 만경대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1912)년 4월 15일 만경

대에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였으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시였다. 그리하여 만경대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의 고향, 혁명의 요람으로 되고있다.

만경대에는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워온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일가분들의 불멸의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다. 만경대에는 만경대고향집과 들메나무, 그네터, 썰매바위, 백양나무, 우물, 군함바위, 낚시터, 《남산의 푸른 소나무》시비, 무지개잡이소나무, 학습터, 씨름터, 샘물터, 만경봉, 순화학교, 동림선창, 조국개선나루터, 만경대의 갈림길 등 혁명사적들이 귀중히 보존되여있다. 그리고 양지바른 언덕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조부모님이신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 부모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묘와 반신상이 모셔져있다. 만경대에는 만경대혁명사적관, 만경대혁명학원 등이 있다.

만경대로는 우리 나라 각지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대륙과 대양을 넘어 수많은 외국의 벗들과 혁명적인민들이 그칠 사이없이 찾아오고있다.

봉화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내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난것은 다섯살 잡히던 해였다. 그해 봄에 우리는 봉화리로 이사를 갔다.》

평양에서 동북쪽으로 90여리, 강동읍에서 서쪽으로 20여리 떨어진 유서깊은 고장. 한때 동삼리 또는 향교리라고 불렀다. 평양시 강동군에 속하여있다. 높고낮은 산들로 둘러싸여있으며 제일 높은 산은 봉화산이다. 마을 동쪽에는 오봉산이 있고 서북경계를 따라 대동강(열파강)이 북남방향으로 흐르며 남쪽경계를 따라 수정천이 동서방향으로 흘러 대동강에 합류한다.

해방전에는 땅이 척박하여 조, 수수, 피, 보리 같은 작물밖에 심지 못하였다. 지리적으로 이곳은 반일독립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던 성천, 강동, 순천, 대동 등 일대와 련계를 가지는데 편리하였고 대동강의 배길을 리용하여 평양과 다른 지방으로 드나들수 있었으며 산을 끼고있어 독립운동자들이 활동하기에 유리하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5(1916)년 3월부터 주체6(1917)년 가을까지 봉화리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고 혁명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아버님을 따라 이곳에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큰뜻을 키우시였으며 강반석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시였다.

칠골

혁명의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20리, 만경대에서 평양쪽으로 10리 남짓하게 떨어진 곳에 있는 유서깊은 고장. 지금은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속한다. 동구밖의 멀지 않은 곳에 안골령이 있고 서쪽으로 룡악산(해발높이 118m), 북쪽에는 광대산, 동남쪽으로 체봉이 둘러싸여있다. 오늘은 남쪽에 현대적인 광복거리가 뻗어있으며 평양에서 남포로 가는 철길이 북쪽과 서쪽을 에돌아 지나가고있다. 남쪽으로 약 4.5㎞ 떨어진 곳에 혁명의 요람 만경대가 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이곳은 척박한 곳으로서 주로 피만 심던 메마른 농촌마을이였으나 지금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활짝 꽃피고있다. 칠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12(1923)년 봄부터 주체14(1925)년초까지 외할아버지 강돈욱선생님께서 세우신 창덕학교를 다니시면서 조국광복의 큰뜻을 키우신 곳이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숭실중학교를 중퇴하시고 직업적인 혁명가로 활동하실 때 만경대고향집에서 10리가량 떨어진 칠골에 자주 오시여 강진석선생님과 함께 혁명조직을 뭇고 동지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군 하시였다. 칠골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녀사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혁명사적지이다.

정방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그때 있은 여러가지 일들중에서도 황해도 정방산 수학려행이 매우 인상깊다.》

정방산줄기의 서쪽끝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황주군사이에 있는 산. 산마루들이 서로 잇닿아서 정방형을 이루었다고 하여 정방산이라 한다. 사리원시에서 북쪽으로 약 8㎞, 혁명의 수도 평양시로부터 남쪽으로 약 60㎞ 떨어져있다. 산중턱에는 고려시기의 이름난 산성의 하나인 정방산성이 있다. 그 둘레는 12㎞이며 성안의 넓이는 2㎢이다. 여기에는 성불사를 비롯한 력사유물들과 남문, 동문 등의 고적들이 있다. 이 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덕학교시절 수학려행을 다녀가신 유서깊은 산이다. 오늘 정방산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끊임없는 현지지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하게 꾸려졌다.

중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중강을 낯선 고장이라고 서름서름하게 여겨왔는데 막상 이국에 간다고 하니 중강도 고향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나저러나 중강은 조국의 한 부분이였다.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나를 그네에 태워 밀어주던 품이 만경대라면 중강은 봉화리와 더불어 조선은 어데 가나 다 일본제국주의의 감옥이라는것을 깨우쳐준 잊지 못할 고장이였다.》

자강도 중강군소재지. 중강은 남부에서 자강도 자성군, 량강도 김형직군과 잇닿아있고 북부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지린성 린쟝현과 마주하고있다. 해방전 이곳은 국경경비의 요충지라 하여 중강진으로 불리웠으며 면소재지로 되여있었다. 중강진에서 압록강상류로 거슬러올라 백두산까지 물길로 천리이고 하류를 따라 조선서해까지 천리길이다. 해방후 군소재지로 되면서

군의 정치, 경제, 문화의 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중강은 압록강연안의 넓은 중강벌에 놓여있다.

중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53(1964)년 9월 이곳을 찾으신 사적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 그리고 혁명일가분들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다.

중강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중강려인숙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일가분들의 사적이 깃든 승리터, 씨름터, 늪동집, 고전려관, 중강우편국, 무기이관장소, 중강나루터, 낚시터, 창평서당, 창평집, 중강회의장소, 신성학교, 동구약방, 동구례배당자리 등이 있다.

중강에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이 모셔져있으며 중강혁명사적관이 꾸려져있다.

포평

량강도 김형직군 김형직읍. (당시 평안북도 후창군 동신면 소재지) 혜산에서 서쪽으로 360여리 떨어진 압록강기슭 분지에 자리잡고있다.

포평의 남서쪽으로 5리가량 떨어진 곳에 전모봉이 있고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바다오거우와 마주하고있다. 머루덩굴이 많던 평평한 들판이라 하여 포평이라고 불리워온 이곳에 마을이 생기기 시작한것은 1912년경부터였다.

1920년대초에 이곳에 수십호의 집과 250～3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있었다.

주민들은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목재를 날라 생활을 유지하였다.

포평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수령님의 혁명일가분들이 바다오거우에 계실 때 혁명활동을 벌리신 유서깊은 곳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 린쟝(림강)현 바다오거우에 계실 때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도우시여 이곳으로 비밀련락을 자주 다니시였으며 주체12(1923)년 3월 배움의 천리길과 주체14(1925)년초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 이곳을 거치시였다.

압록강

량강도 삼지연군의 백두산 남쪽비탈면에서 발원하여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면서 평안북도 신도군 신도읍에서 조선서해로 흘러드는 강. 우리 나라에서 제일 긴 강으로서 그 길이는 803.0km에 달한다.

류역면적은 무려 6만 4 739.8km²에 달하는데 그가운데서 우리 나라에 속하는 류역면적은 3만 2 557.7km²이다.

압록강은 량강도, 자강도, 평안북도의 18개 시, 군과 중국의 단둥(단동)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을 지나 흐른다. 량강도의 900여리 구간에서는 소백수, 리명수, 포태천, 가림천, 오시천, 허천강, 삼수천, 장진강, 후주천, 후창강, 연포천, 자강도의 600여리 구간에서는 중강천, 호내강, 호례천, 자성강, 삼풍천, 장자강, 위원강, 초산천, 충만강, 평안북도의 500여리 구간에서는 동천, 남천, 송계천, 영주천, 남창천, 구곡천, 부평천, 방산천, 당목천, 수진천, 금광천, 오목천, 삼교천 등과 중국의 여러 지류들을 합쳐가지고 조선서해로 흘러든다.

조종의 산 백두산에 시원을 둔 압록강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력사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흘러온 강이다.

압록강은 용감하고 슬기로운 우리 선조들이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데서 큰 역할을 논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있다.

우리 나라 북변의 경계를 이루는 압록강은 조선인민의 고역의 지난날과 더불어 잊을수 없는 력사의 강이다.

우리 겨레들은 일제침략자들에게 조국과 고향을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피눈물을 뿌리며 압록강을 건너갔다.

압록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담아싣고 흐르는 력사의 강이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일가분들의 혁명활동사적이 어려있는 뜻깊은 강이다.

린쟝(림강)

중국 동북의 지린(길림)성 린쟝(림강)현 소재지.

린쟝은 퉁화(통화), 류하 등과 철길로 련결되여있으며 동북쪽으로 뻗은 큰길에 의하여 푸쑹과 련결되여있다.

해발높이가 400m 아래인 현소재지 린쟝에는 당시 일제령사관과 쟝쭤린(장작림)군벌하에 있는 통치기관, 주둔병력인 펑티엔(봉천)대가 있었다.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이곳에는 조선사람들이 많이 살고있었으며 독립운동자들이 집결되여있었다.

아버님을 따라 린쟝에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9(1920)년 봄 강안촌에 있는 린쟝소학교에 입학하시여 공부를 하시였으며 아버님의 혁명활동을 도우시면서 혁명의 큰뜻을 키워나가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주체8(1919)년 10월부터 주체10(1921)년 여름까지 린쟝을 혁명활동의 중심지로 정하시고 이곳에서 《순천의원》의 간판밑에 혁명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시였다.

바다오거우(팔도구)

중국 동북지방 창바이(장백)현의 산간마을.

량강도 김형직군 포평에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이는 바다오거우는 병풍을 세워놓은듯한 깎아지른 산밑 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데 안거리와 바깥거리로 되여있다. 이곳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 나라와 잇닿아있어 국내외와 련계가 좋을뿐아니라 조선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70～80호정도의 자그마한 강변마을로서 장날같은 날이면 조선화전민들이 많이 모여들어 비교적 번화한 곳이였으며 특히 적지 않은 독립운동자들이 활동하고있던 곳이였다.

바다오거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아버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시면서 조국광복의 큰뜻을 키우시였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유서깊은 곳이다. 바다오거우는 또한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들인 김형권동지와 김철주동지의 혁명활동사적이 깃들어있는 뜻깊은 곳이다.

바다오거우마을의 맨 끝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일가가 주체10(1921)년 여름부터 주체14(1925)년 2월까지 혁명투쟁을 벌리며 생활하시던 집인 《광제의원》이 있다.

또한 바다오거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니신 바다오거우소학교와 몸과 마음을 단련하시며 큰뜻을 키우신 학습터, 놀이터, 씨름터 등이 있으며 바다오거우골안으로 한 15리쯤 들어가면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우신 조선학교가 있다.

푸쑹(무송)

중국 동북의 지린(길림)성 푸쑹현의 소재지.

터우다오(두도)강과 이 강으로 흘러드는 쑹강(송강)의 합수목에 놓여있고 집이 3 000～4 000여호(1920년대 중엽)나 되는 비교적 큰 도시였다.

시안에는 성문의 이름을 따른 동문, 서문, 북문, 다난(대남)문, 샤오난(소남)문거리들이 있었으며 조선사람의 대부분이 샤오난문거리에서 살았다.

주체14(1925)년경 푸쑹에는 조선사람이 사는 집이 약 300호 있었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푸쑹에서 표면상 《무림의원》의 간판을 내거시고 혁명활동을 벌리시였으며 주체14(1925)년 8월에는 독립운동대렬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민족단체련합촉진회를 결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4(1925)년 4월초에 푸쑹제1소학교에 편입하시여 공부를 하시면서 청소년학생들속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주체15(1926)년 12월 15일에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하시였으며 12월 26일에는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를 도와 반일부녀회를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6(1927)년 12월 20일 대중적반일청년조직인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시였으며 주체17(1928)년 1월 15일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혁명적신문인 《새날》을 창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3월 푸쑹에 있던 장워이화(장울화)에게 련대정치위원 김산호를 보내시여 강반석어머님의 사랑이 담긴 돈 20원으로 천을 사서 마안산밀영의 아동단원들에게 옷을 해입히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25(1936)년 8월 푸쑹현성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이 일대에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푸쑹현성전투시 혁명의 사령부의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신 사적이 깃들어있다.

용어 및 어휘

가풍(집 가－家, 바람 풍－風)

한집안에서 전해내려오는 범절이나 풍습.

산당집(뫼 산－山, 집 당－堂)

낡은 사회에서; 지주를 비롯한 부자들과 벼슬아치들이 자기 조상의 묘지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치르기 위하여 묘지 가까운 곳에 지어놓은 자그마한 집.

좌우명(자리 좌－座, 오른쪽 우－右, 새길 명－銘)

늘 자리옆에 갖추어놓고 새겨보는 글이란 뜻. 사업과 생활에

서 지침으로 삼고있는 교훈적인 말이나 명제를 이르는 말이다.

이민위천(써 이 ㅡ以, 백성 민ㅡ民, 할 위ㅡ爲, 하늘 천ㅡ天)
백성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뜻.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로 여긴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애국, 애민, 애족(사랑 애ㅡ愛, 나라 국ㅡ國, 사랑 애ㅡ愛, 백성 민ㅡ民, 사랑 애ㅡ愛, 겨레 족ㅡ族)
자기 조국과 인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영달(영화 영ㅡ榮, 사무칠 달ㅡ達)
낡은 사회에서; 벼슬이 높아지거가 신분이 귀하여지고 좋게 된다는것.

립신양명(설 립ㅡ立, 몸 신ㅡ身, 날릴 양ㅡ揚, 이름 명ㅡ名)
옛날에; 《출세하여 이름을 날리는것》을 이르는 말.

려염집(마을 려ㅡ閭, 마을 염ㅡ閻)
옛날에; 《일반주민들의 살림집》을 이르던 말.

도막궁이
통나무토막을 파서 구유처럼 만든 작은 배.

개명(열 개ㅡ開, 밝을 명ㅡ明)
열리고 밝아진다는 뜻으로 뒤떨어지고 깨지 못한 상태에서 벗어나 사람이나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해지는것을 이르는 말.

무전려행(없을 무ㅡ無, 돈 전ㅡ錢, 나그네 려ㅡ旅, 갈 행ㅡ行)
낡은 사회에서 려비가 없이 길을 떠나 얻어먹으면서 다니는 려행을 이르는 말.

자강(스스로 자ー自, 강할 강ー强)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다잡아 힘쓰는것 또는 마음을 가다듬는것.

조강지처(지게미 조ー糟, 겨 강ー糠《벼겨》, 갈 지ー之, 안해 처ー妻)
가난속에서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에우면서 온갖 고생을 나누어온 안해라는 뜻으로서 《어렵고 구차할 때 고생을 함께 한 안해》를 이르는 말.

수학려행(닦을 수ー修, 배울 학ー學, 나그네 려ー旅, 갈 행ー行)
주로 견학을 위하여 교원이 데리고다니면서 실시하는 학생들의 려행.

춘부장(봄 춘ー春, 마을 부ー府, 어른 장ー丈)
옛날에 살아있는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던 말.

인가(알 인ー認, 옳을 가ー可)
어떤 행위를 하는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허락하는것을 이르는 말.

기타 자료, 상식

교육진흥운동
1920년대 실력양성의 간판밑에 진행된 개량주의운동의 한 형태.
3.1인민봉기후 민족주의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은 민족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진흥운동을 벌렸다.
그들은 일제침략자들의 기만적인 《조일무차별》교육의 교리를 그대로 되뇌이며 인민들속에 그에 순응할것을 설교하였다. 또한 교육을 《진흥》시켜 조선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면 《독립》을 가져올수 있는듯이 설교하면서 《조선인본위의 교육》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개량주의운동으로서의 교육진흥운동은 리념상에서는 애국애족을 표방하였으나 방법상에서는 비폭력을 전제로 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운동이였다.

국채보상운동

나라가 진 빚을 보상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벌린 대중적애국운동.

로일전쟁(1904～1905년)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한 일제는 우리 나라를 경제적으로 더욱 예속시키기 위하여 리조봉건정부에 일본으로부터 1 300만원의 《차관》을 끌어들이도록 강요하였다.

조선은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되였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지켜보던 애국적지식인들은 나라가 진 빚을 갚는다면 국권이 회복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국채보상운동을 발기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대구에서 애국문화운동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하고 그 담배값을 모아 나라의 빚을 갚는다는 취지밑에 《단연회》를 조직한것으로부터 시작되여 전국적규모에로 급속히 확대되여갔다. 애국적지식인들은 전국각지에 《국채보상기성회》, 《국채보상의성회》, 《국채보상일심회》, 《국채보상단연회》, 《국채보상부인회》 등을 내왔으며 1907년 4월 1일에는 서울에서 각 단체 대표들을 망라한 《국채보상련합회의소》(회장은 량기탁이였다.)를 조직하고 이 운동을 통일적으로 벌려나갔다. 각지 로동자들은 한푼두푼 모은 돈을 의연금으로 바쳤고 농민들은 식량을 팔아 국채보상금을 냈다. 남자들은 《단연회》를 무어 담배를 끊고 담배값을 국채보상금으로 냈으며 녀성들은 《감선회》, 《감반회》, 《탈환회》 등을 뭇고 밥과 반찬값을 아껴 얻은 돈과 가락지, 비녀, 시집올 때 가지고온 옷가지, 노리개 등을 바쳤다. 민족자본가와 상인들도 국채보상금모집에 적극 합류하였으며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이 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짧은 시일안에 막대한 의연금이 마련되였다. 국

채보상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중단되였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는 애국적운동으로서 우리 인민들속에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반일의식을 북돋아주는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였다.

《독립선언서》

3.1인민봉기때 지도자로 나섰던 상층인물들이 발표한 독립선언문건.

《조선민족대표》로 자처한 33명이 작성하여 1919년 3월 1일에 평양과 서울 등지에서 발표하였다. 1910년대말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의 식민지무단통치를 반대하는 거족적인 반일항쟁기운이 성숙되여갔으며 대중의 앙양되는 반일기세에 편승하여 천도교 교주 손병희를 비롯한 부르죠아민족운동의 상층인물들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선언서에서는 먼저 조선은 독립국이며 조선사람은 자주민이라고 선언하면서 일제에 의한 조선침략책동을 폭로하고 그의 《병합》정책을 시정할것을 《권고》하였다. 계속하여 부르죠아인도주의에 대해 강조하면서 강대국인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에 의존하여 《독립》을 달성해보려는 의향을 표시하였으며 민족의 《자주권》을 보존해줄것을 일제식민지통치자들에게 애원하였다. 끝으로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거리와 마을에 떨쳐나서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하였다. 선언서에는 공약이 첨부되여있었는데 그 중요내용은 첫째로, 《3.1운동이 정의, 인도, 생존, 존엄을 위한 민족적요구》이니 결코 배타적감정에 흘러 일제를 반대하는 과격한 행동을 삼가할것이며 둘째로, 최후의 한사람까지 《민족의 진정한 의사를 쾌히 발표》할것이며 셋째로, 모든 행동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질서를 존중》하는데 귀착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우리 인민의 앙양된 투쟁기세에 부합되지 않게 처음부터 운동의 성격을 비폭력적인것으로 규정하고 운동이 민중이 주도하는 대중투쟁으로 전환되는것을 바라지 않은 민족주의운동의 상층인물들의 불철저하고 외세의존적이며 무저항주의

적인 태도와 립장이 반영된 《독립선언서》는 처음부터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었다. 3.1운동은 《독립선언서》와는 크게 관계없이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여 전민족적범위에서 격렬하게 전개되였으며 일제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반일의병운동

19세기말～20세기초 일제의 조선강점을 반대하여 싸운 애국적인민들의 반일무장활동.

반일의병운동은 근대에 들어와 1895년에 처음으로 조직전개되였으며 그후 1904년경부터 다시 일어나 근 10년동안이나 계속되였다. 반일의병운동의 목적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는것이였다. 반일의병운동은 전국각지에 조직된 반일의병대들에 의하여 벌어졌는데 반일의병대의 기본성원은 애국적인 인민대중 특히 농민대중이였으며 그 지도층은 애국적인 유생들과 전직봉건관료들, 로동자, 농민출신의 선진인사들이였다.

1895년～1896년기간에 진행된 반일의병운동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침략자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여나서는것을 반대하여 일어났다. 1895년～1896년 반일의병운동은 의병장들의 사회계급적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일제침략자들을 끝까지 물리치지 못하고 중단되였으나 일제침략자들과 그에 투항굴종하던 봉건통치배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기세를 시위하였다. 또한 당시의 반일의병운동은 그후시기 각지에서 벌어진 농민무장대의 투쟁에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1904년～1914년기간에 진행된 반일의병운동은 1904년 2월 로일전쟁을 도발한 일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전쟁마당으로 전변시키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강점정책을 본격적으로 감행하기 시작한것을 반대하여 일어났다. 1905년에 들어서면서 의병대는 전국도처에서 조직되였다. 의병투쟁은 1908년에 들어서면서 더

욱 고조되였다.

반일의병운동이 고조되자 일제침략자들은 대규모적인 《토벌》작전을 벌려 의병들의 거점과 그 주변들을 모조리 불사르고 무고한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는 야수적만행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이러한 결과 1910년을 전후하여 반일의병대는 활동거점을 중국동북지방과 로씨야의 원동지방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일부 반일의병대는 평산, 수안, 곡산을 중심으로 한 황해도와 그와 린접한 강원도의 태백산줄기를 거점으로 하여 1914년까지 반일투쟁을 벌리다가 적의 《토벌》공세를 이겨 내지 못하고 해산되고말았다.

반일의병운동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첫째로, 반일의병운동을 통일적으로 이끌만한 령도자를 가지지 못한데 있으며 둘째로, 통일적군사지휘체계도 없이 서로 분산되여 싸운데 있으며 셋째로, 국제국내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하에서 의병운동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는데 있다.

반일의병운동은 비록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나 근대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 의의는 첫째로, 조선인민의 애국적기상을 온 세상에 크게 시위하였으며 둘째로, 일제침략자들의 조선강점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셋째로,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일투쟁을 고무추동하였다는데 있다.

반일의병운동이 실패한 후 조선민족의 반일무장활동은 만저우(만주)에서 독립군운동으로 전개되였다.

애국문화계몽운동

일제의 조선강점을 전후한 시기 국권회복과 대중계몽의 목적밑에 진행된 애국애족적인 부르죠아문화운동. 19세기 70～80년대에 발단하여 1919년 3.1인민봉기에 이르기까지 근 반세기에 걸쳐 진행되였다. 이 운동의 주도세력은 근대적사상으로 계몽각성된 리준, 박은식, 신채호, 주시경, 장지연 등을 비롯한 애국적지식인들이였으며 그 지도리념은 부르죠아민족주의였다. 이 운동은 이미 시대발전의 추세에 멀리 뒤떨어진 봉건적락후성을 가시

고 나라의 근대적부강발전을 이룩하며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존엄을 고수할것을 지향하였다. 이 운동은 애국적인 언론활동과 민족교육운동, 《국학》운동, 문예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인민대중속에 열렬한 반일애국정신과 근대적민족의식을 고취하며 근대적지식을 배양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였다.

19세기 70～80년대로부터 1905년 일제에 의한 《을사5조약》의 사기적인 날조공포에 이르는 시기에는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위한 대중계몽운동이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 이에 나라의 독립을 굳건히 고수하기 위한 계몽활동이 배합되여 벌어졌다. 《을사5조약》이 날조된 이후부터 1910년 《한일합병》에 이르는 시기에는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반일애국사상고취를 위한 계몽활동이 운동의 기본을 이루었다. 이에 근대적지식의 계발을 위한 계몽활동이 일정하게 배합되였다.

그후 1919년 3.1인민봉기까지의 시기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애국사상계몽을 운동의 기본내용으로 하여 벌어졌다. 애국문화계몽운동은 우리 인민들속에 민족적자각을 높여주고 반일애국정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 나라 민족운동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평양감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그때 감옥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온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사변이였다. 나를 감옥에 데리고간 어머니의 깊은 뜻도 리해되였다. 아버지의 몸에 생긴 상처는 나로 하여금 악마와도 같은 일본제국주의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였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상처에서 세계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력사가들이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한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직관적인 표상을 얻었다.》

일제가 조선의 애국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평양에 설치한 감옥.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1906.2)한 후 조선의 애국자들을 대대적

으로 체포투옥하고 학살할 목적으로 평양을 비롯한 전국도처에 감옥들을 내왔다.

일제는 1910년과 1919년에 증축공사를 벌려 평양감옥의 규모를 크게 늘이였다.

죄없는 조선의 애국자들이 초보적인 위생시설과 난방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평양감옥에서 일제교형리들로부터 갖은 악행을 받으면서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하였다.

특히 1917년 가을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소동으로 전국적범위에서 100여명의 조선국민회 성원들이 검거되였을 때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도 체포되시여 평양감옥에서 1년이나 옥중생활을 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시면서 민족주의운동을 무산혁명운동에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시였다. 해방후 평양감옥은 일제의 모든 식민지폭압기구와 함께 철페되였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활동 개시,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발취)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척도가 사상인것처럼 교육의 가치, 학교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척도도 사상이다.》

《자본가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별재미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동지를 모으는 재미가 최상의 락이고 재미였다. 동지 한명을 얻을 때의 희열을 어찌 황금덩이 하나를 얻을 때의 기쁨에 비길수 있겠는가. 동지를 얻기 위한 나의 투쟁은 이렇게 화성의숙에서부터 첫 발자국을 떼였다. 그때부터 나는 한생을 동지를 얻는 일에 바치였다.》

《〈ㅌ. ㄷ〉는 어느 파에서 갈라져나온 조직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로 말하면 어떤 종파에 가담했거나 망명단체에 가있다가 떨어져나온 사람들도 아니였다. 문자그대로 백지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새 세대였다. 〈ㅌ. ㄷ〉의 피에는 잡것이 섞여있지 않았다.》

《우리 당 력사에서는〈ㅌ. ㄷ〉를 당의 뿌리로 보고있으며 〈ㅌ. ㄷ〉의 결성을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원으로 인정하고있다. 그 뿌리에서 우리 당의 강령이 태여나고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원칙이 마련되고 우리 당창건의 골간이 육성되였다. 〈ㅌ. ㄷ〉가 조직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걸음을 떼였다.》

《그후 〈ㅌ. ㄷ〉 성원들은 우리가 개척한 혁명위업이 어려운 국면에 처할 때마다 항상 육탄이 되여 그 출로를 열어나갔다. 그들은 조선혁명의 핵심부대로서 어데서나 선도적역할을 수행하였다. 김혁, 차광수, 최창걸, 김리갑, 강병선, 리제우를 비롯하여 〈ㅌ. ㄷ〉의 산아들중 많은 사람들은 투쟁의 앞장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고결하게 생을 마치였다.》

《이제는 〈ㅌ. ㄷ〉 시절에 나와 같이 손잡고 일하던 사람들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 조국의 독립과 무산민중의 사회를 그리며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우던 수많은 〈ㅌ. ㄷ〉의 아들딸들이 좋은 세상도 못보고 꽃같은 나이에 모두 일찌기 우리곁을 떠나가버리였다. 그들은 청춘을 바쳐 우리 당과 혁명의 초석을 쌓아놓았다.》

《내가 화성의숙을 다니다가 반년만에 중퇴하고 길림으로 간것은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용단이였다. 두번째 용단이 있었다면 그것은 남호두회의후 새 사단을 조직하면서 〈민생단〉 보따리를 불살라버린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에 가서 청년학생들속에 들어갈 용단을 내린것이 정당한 처신이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화성의숙을 제때에 떠나지 않고 그 울타리속에서 맴돌았더라면 그이후 조선혁명을 급속한 앙양에로 승화시킨 모든 공정들이 그만큼 지연되였을것이다.》

학습문제

문제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화성의숙에 가실것을 결심하시게 된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사적대결에 의해서만 일제를 타승할수 있고 군사를 알아야 독립운동의 전렬에 설수 있다는 견해를 지니고계시였기때문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신 후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오던 독립운동자들은 수령님의 전도문제를 놓고 서로들 도와나서려고 하였다.

그들은 수령님을 자기들의 대를 이을 후비인재로 키우려고 계획하면서 화전에 있는 화성의숙에 가서 공부할것을 권고하였다.

이것은 일생을 조국해방위업에 바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향에도 부합되는것이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숙을 반일독립운동의 활무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였다.

더우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무렵 6.10만세운동의 실패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심각한 교훈을 분석하시고 기어이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다듬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사상적충동을 안으시고 아버님의 유훈, 민중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화성의숙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군사도 성실히 배우리라 결심하시고 화성의숙에 입학하시였다.

문제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견하신 화성의숙의 제한성은 무엇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화성의숙의 제한성은 우선 의숙의 사상적락후성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일 실망하신것은 화성의숙의 사상적락후성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척도가 사상인것만큼 교육의 가치, 학교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척도도 사상이라고 보시였다.

그런데 학교당국은 민족주의사상만을 주장하면서 선진사상을 무턱대고 배척하였다.

이때로 말하면 반일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향전환을 할 때인데 화성의숙은 이런 사조를 전혀 감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나니 화성의숙의 학생들은 낡은 민족주의사상에 포로되여 봉건왕조를 되살리겠다거나 자본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화성의숙의 제한성은 또한 화성의숙의 교육에 독립운동에 대한 옳바른 방략이 없는것이였다.

화성의숙의 교육에는 혁명력량은 어떻게 편성하고 대중은 어떻게 동원시키며 독립운동대렬의 통일단결은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도 없었다.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의 력사가 수십년이 되지만 의숙의 교육에는 그것을 집대성하고 비판적으로 분석총화한 리론도 없었다. 그러다나니 화성의숙에 찾아오는 독립군의 거두들이나 애국지사들도 그저 막연하게 연탁을 두드리며 독립하자고만 부르짖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화성의숙의 제한성은 또한 군사교육도 낡고 뒤떨어진것이였다.

화성의숙에서 배워주는것은 민족주의사상과 구한국냄새가 나는 낡은 군사훈련뿐이였다.

무장투쟁의 교범이나 전술 같은것도 변변치 못하였고 그들이 배워주는 투쟁방법은 극상해서 개인테로의 방법이였다.

지어 독립군의 간부들을 키워내는 군사학교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실탄사격에 쓸 탄알마저 없는 형편이였다.

화성의숙의 제한성은 민족주의운동자체의 제한성을 그대로 보여

주고있었다.

문제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신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광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리론탐구에 모든 정열을 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산당선언》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열심히 탐독하시였다.

특히 계급과 계급투쟁, 제국주의와 식민지문제에 대한 리론, 10월혁명, 대중령도에서의 혁명가들의 활동경험 등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맑스-레닌주의리론을 철저히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결부시켜 순수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투쟁의 무기로 체득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과정에 조선혁명이 나아갈 길은 선진사상의 기치밑에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잘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세대 청년학생들로 조선혁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핵심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와 종파에 오염되지 않은 참다운 새 세대 혁명가들을 키워야 한다고 인정하시고 이 사업을 화성의숙의 청년학생들속에서부터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진사상의 침투를 경계하고 엄중시하던 화성의숙의 조건에서도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이려는 청년학생들속에서 먼저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탐독하도록 하시였다.

한편 개별담화, 토론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선진사상을 우리 혁명의 실천적문제들과 결부하여 보급하시였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청년학생들이 조선혁명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립장을 가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고매한 인품과 포옹력,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능력과 천재적예지, 확고부동한 반제반일혁명사상, 혁명의 전도에 대한 통찰력과 웅심깊은 구상은 청년학생들의 심장을 틀어잡았으며 그들로 하여금 조선혁명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혁명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힘있게 고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과정에 새로운 사조에 민감하고 사회주의사상을 동경하는 청년학생들을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혁명동지로 묶어세우시였다.

문제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을 이끌어나갈 혁명적전위조직을 내오실 결심을 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5(1926)년 9월말 후이파하(휘발하)강가에서 핵심성원들의 모임을 가지고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조직의 필요성에 대하여 밝히신 다음 전위조직결성준비를 다그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월 10일 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여시고 자신께서 구상해오신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강령, 활동규범에 대한 문제를 토의에 붙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화디엔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ㅌ. ㄷ》)을 결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모임에서 하신 보고 **《제국주의를 타도하자》**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과 최종목적을 밝힌 투쟁강령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명실공히 제국주의를 타도할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강령에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인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할것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최종목적으로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할것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은 력사상 처음으로 총대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밝힌 혁명강령이였으며 우리 인민을 참다운 혁명투쟁,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한 전투적기치였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은 김형직선생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과 《ㅌ. ㄷ》강령에 시원을 두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맹원들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칠 굳은 각오를 가진 믿음직한 청년들로 조직을 확대강화하며 동맹원들이 엄격한 조직생활규범에 따라 활동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임에서 동지들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책임자로 추대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전위조직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ㅌ. ㄷ》의 결성은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되였으며 《ㅌ. ㄷ》에서부터 우리 당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총대에 의거하여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판가리싸움의 선포이며 지구상의 모든 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의 선언이였다.

인 물

최창걸(1902. 11. 5－1932. 2. 2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그 회의에서 최창걸이 나를 타도제국주의동맹 책임자로 추천하였다.**》

조선혁명군 지휘관. 평안북도의 어느 한 농촌에서 출생하였다. 1920년대초 중국 동북지방의 푸순(무순)지방으로 이주하여 자그마한 려관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는 부모의 슬하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주체14(1925)년 여름에 정의부산하의 독립군 6중대에 입대하여 류하현에서 활동하였으며 주체15(1926)년 여름부터 화성의숙에서 공부하였다.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옵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지도밑에 혁명적으로 각성되게 되였다.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모임에 참가하여 그 성원으로 되였다. 주체16(1927)년초 정의부본거지의 하나였던 류하현 싼위엔푸(삼원포)에서 독립군 참사로 복무하면서 《ㅌ. ㄷ》의 대오를 늘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일제를 치는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이해 8월부터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성원으로 사업하였다.

주체17(1928)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류하일대에 반제청년동맹조직들을 내왔다. 또한 왕칭(왕청)문을 중심으로 싱징(흥경)현, 류하현, 판스(반석)현을 비롯한 남만의 여러 지방들에 사회과학연구회를 내오고 그를 통하여 조선청년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주체17(1928)년 8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가오산쯔(고산자)

지부를 내오고 그 책임자로 되였다.

주체19(1930)년 7월 3일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결성되면서 그 첫 성원으로 되였으며 7월 6일에는 조선혁명군에 입대하였다. 그후 류하, 싱징(흥경), 하이룽(해룡), 칭위엔(청원), 판스(반석)를 비롯한 남만의 여러 지역들에서 당조직들을 내오고 각종 대중단체들을 확대하며 조선혁명군의 한개 대를 지휘하면서 상비적인 혁명무력건설에 필요한 인적, 물적준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조선혁명군 지휘관으로 활동하다가 국민부테로분자들에 의하여 피살되였다.

혁명렬사릉에 반신상이 세워졌다.

김리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김리갑은 〈금강관〉(〈대성관〉)사건의 주인공으로서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도 소개된 사람이다.》

조선혁명군 지휘관. 평안북도 철산군의 어느 한 농촌에서 태여나 나라없는 민족이 당하는 쓰라린 고통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다. 살길을 찾아 압록강을 건너간 후 나라찾는 싸움에 한몸바칠 굳은 결심을 품고 싱징(흥경)현 왕칭문에 자리잡고있던 독립군중대에 들어갔으며 화성의숙에서 공부하였다.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옵게 되였으며 수령님의 지도밑에 혁명적으로 각성되게 되였다.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모임에 참가하여 그 성원으로 되였다.

화성의숙이 페교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받들고 싱징현에 가서 활동하면서 왕칭문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광범한 대중을 혁명조직에 굳게 묶어세우고 농촌을 혁명화하는 사업을 벌려나갔다. 특히 민족주의영향하에 있던 독립군병사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로 적극 이끌어나갔으며 수많은 독립군병사들을 《ㅌ. ㄷ》의 기치밑에 묶어세웠다. 이

나날에 반제청년동맹과 공청의 핵심성원으로 자라났다.

주체17(1928)년 여름 위대한 수령님의 부름을 받고 지린에 와있는 짧은 기간에도 연예선전대를 이끌고 농촌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였으며 주체18(1929)년 왕칭문에서 수령님의 신변을 결사보위하였다. 주체19(1930)년 7월 3일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결성되면서 그 첫 성원으로 되였다. 창춘(장춘)지방에 나가 활동하면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기 위한 무기와 탄약을 마련하여 구위수에 날라왔다.

주체19(1930)년 봄에 금강관(대성관)전투에 참가하였으며 그 후 지린일대에 나가 군사정치활동을 맹렬하게 벌리였다. 그러던 주체19(1930)년 봄 지린시내 복흥가에서 일본령사관 경찰들에게 체포되여 창춘으로 끌려가 9년간의 중형을 언도받고 다리엔(대련)감옥에서 옥중투쟁을 벌리였다.

리제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는 조선혁명군결성식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가운데서 리제우, 공영, 박진영을 중심으로 하나의 국내공작소조를 뭇고 그들에게 신갈파로 해서 랑림산맥을 타고 평안북도일대로 뻗어나가면서 광범한 대중속에 혁명조직을 내올 과업을 주기로 하고 그 소조의 조장으로 리제우를 임명했다.

우리는 1928년에 이미 무송주변과 내도산일대에서 활동하고있던 그들에게 조선사람들이 많이 사는 장백지구로 활동근거지를 옮기라는 과업을 주었다. 리제우는 그 과업을 받고 장백현일대에 나가 군중을 조직에 묶어세우고 국내깊이에까지 들락날락하면서 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였다.》

황해북도 수안군에서 태여났다. 그의 아버지는 일찌기 창바이에 있을 때부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독립운동을 하였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압록강을 건너가 일찌기 독립군생활을 하다가 화성의숙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이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혁명적으로 각성되게 되였다.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모임에 참가하여 그 성원으로 되였다. 그후 푸쑹지방에 파견되여 백두산주변의 넓은 지역에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갔으며 나이터우산(내도산)부락에 백산청년동맹지부를 결성할데 대한 과업을 받고 파견되여 농민들은 물론 천불교신자들도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웠다.

주체17(1928)년 봄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받들고 창바이(장백)일대와 갑산을 비롯한 국내에 나가 활동하였다. 창바이현에서 처음으로 덕수백산청년동맹을 내온데 이어 독골, 절골, 약수동, 임수골, 즈양가이(지양개) 등 창바이일대의 여러곳에 조직을 확대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가 그 지부들을 조직하였다. 그해 여름 국내에 나가 신파와 보천땅에 백산청년동맹의 지부조직을 내왔으며 혜산, 갑산, 삼수 등 국내의 여러 지방들에 지하혁명조직들을 내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주체19(1930)년 7월 3일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결성되면서 그 첫 성원으로 되였다. 조선혁명군이 결성된 후 국내공작소조의 조장으로 활동하다가 일제의 마적단과 결탁된 반동군벌군대의 불의적인 습격을 받고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그후 일제경찰의 손에 넘어가 서울에 압송된 후 사형언도를 받고 옥중에서 희생되였다.

계영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오가자에는 우리가 무어준 연예대가 있었다. 이 연예대가 계영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삼성학교를 거점으로 활동을 잘하였다.》

평안북도의 어느 한 농촌에서 태여나 부모를 따라 압록강을 건너갔다. 손에 총을 들고 왜놈들과 싸울 결심밑에 독립군에 입대하였으며 화성의숙에서 공부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혁명적으로 각성되게 되였다.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모임에 참가하여 그 성원으로 되였다. 주체16(1927)

년부터 지린에서 청소년학생들을 묶어세우고 그들속에 혁명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16(1927)년 8월 27일 지린에서 《ㅌ. ㄷ》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시고 그 다음날 련이어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립하실 때 그 력사적인 모임에 참가하여 그 첫 성원으로 되였다. 주체16(1927)년 겨울 연예선전대를 이끌고 푸쑹과 그 주변 농촌부락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주체17(1928)년 2월 백두산주변을 조선혁명의 큰 근거지로 꾸릴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안투(안도)땅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직을 꾸리고 군중을 계몽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체18(1929)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받고 왕칭문일대에 파견되여 활동하였다.

주체19(1930)년 7월 3일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결성되면서 그 첫 성원으로 되였으며 7월 6일에는 조선혁명군에 입대하였다. 그해 10월 우쟈쯔(오가자)에 파견되여 촌공회를 자치위원회로 개편하고 그 산하에 궁주령(공주령)도자판매소와 같이 혁명을 돕는 합법적인 상업기관을 내오며 우쟈쯔인민들을 교양하고 혁명조직에 묶어세우는 등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김원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카륜, 고유수, 오가자 등지를 개척하는데서 김원우의 공로가 컸다. 그는 길림에서 청년학생운동을 할 때에도 많은 일을 하였다.

우리는 1928년 봄에 장춘지방의 농촌들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김원우를 파견하였다. 그때 김원우는 카륜의 진명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카륜과 고유수일대를 돌아다니며 청년들을 교양하였다. 1930년 봄부터는 차광수를 도와 조선혁명군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에도 참가하였다.》

김원우의 본명은 변묵성이다.

어려서 부모와 함께 고향땅에서 쫓겨나 만저우각지를 헤매이

다가 정의부소속의 화성의숙에 입학하였다. 이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혁명적으로 각성되게 되였으며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모임에 참가하여 그 성원으로 되였다. 주체16(1927)년 3월부터 지린에서 청소년학생들을 묶어세우고 그들속에 혁명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참가하였다. 반제청년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결성된 후 그 핵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체17(1928)년 봄에 창춘지방에 파견되여 카룬의 진명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카룬과 구위수일대의 청년들을 교양하였다. 주체19(1930)년 봄부터 조선혁명군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에도 참가하였다. 주체19(1930)년 7월 3일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결성되면서 그 첫 성원으로 되였으며 7월 6일에는 조선혁명군에 입대하였다.

조선혁명군이 조직된 후 무기를 구입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던 중 적들에게 체포되였으나 옥중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견결하게 싸웠다. 주체26(1937)년 여름 감옥에서 출옥하여 만저우에 가서 반일투쟁을 벌리였으며 조국해방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와 마지막 순간까지 《ㅌ.ㄷ》의 맹세, 혁명적신념을 지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로골적으로 외곡집행하는 종파분자들과 견결히 투쟁하다가 희생되였다.

최동오(1892. 6. 22－1963. 9. 1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의산선생은 33인으로 불리우는 3.1인민봉기 주도자의 한사람인 천도교 3세교주 손병희의 제자였다. 손병희가 설립한 강습소를 나온 후 고향 의주에 내려와 서당을 세우고 천도교인자녀들을 공부시키는것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였다. 3.1운동에도 참가하였고 그후에는 중국에 망명하여 천도교 종리원을 세우고 망명동포들속에서 애국적인 포교활동을 벌리였다.》

애국지사. 호는 의암이다.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여났다. 서울

에 가서 천도교가 설립한 강습소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서당을 세우고 천도교인자녀들을 공부시키는것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였다.

주체8(1919)년 3.1인민봉기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여 신의주감옥에 투옥되였다. 출옥후 중국에 망명하여 상하이림시정부와 관계를 가지고있었다. 주체9(1920)년 베이징에 천도교종리원을 내오고 애국적인 포교활동을 벌리였다. 1920년대 중엽 중국 동북지방에 옮겨가 화성의숙 숙장으로 있으면서 의숙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학습과 혁명활동을 적극 도와드렸다. 주체18(1929)년 4월 국민부가 결성될 때 그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되여 활동하였으며 이해 가을 지린감옥에 투옥되신 위대한 수령님을 석방하기 위한 청원운동에 참가하였다. 1930년대 중국관내로 가서 상하이림시정부와 관계를 가지였다. 주체30(1941)년에는 림시정부의 의정원 부의장, 주체33(1944)년에는 국무위원으로 있었다.

주체34(1945)년 8.15해방후 서울에 가서 미군정청 남조선과도립법의원 부의장으로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초청장을 받고 주체37(1948)년 4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뒤이어 진행된 쑥섬협의회에 참가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개시된 초기인 주체39(1950)년 6월 28일 조선인민군에 의해 서울이 해방되자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왔다. 이해 9월 중순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국통일위업에 헌신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병으로 사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의하여 주체79(1990)년 8월 그에게 조국통일상이 수여되였다.

묘는 애국렬사릉에 있다.

김시우(1895.3.3－1962.4.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

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화성의숙시절을 생각하고 〈ㅌ. ㄷ〉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김시우를 회고하군 한다. 김시우를 떼놓고서는 나의 화전시절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가 화전에서 새 사조를 보급하고 〈ㅌ. ㄷ〉를 결성하던 잊지 못할 나날에 나를 도와 숨은 노력을 제일 많이 해준 사람이 바로 김시우였다.

〈ㅌ. ㄷ〉가 불패의 대오로 자라날수 있었던것은 김시우와 같은 성실한 인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있었기때문이였다.》

반일애국지사. 자강도 자성군(당시 평안북도 자성군)에서 출생하였다. 서당공부를 한 다음 사립학교를 거쳐 중국 동북지방의 린쟝(림강)에 있는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측량기수의 자격을 받았다. 그후 고향에서 사립학교 재무로 있다가 주체7(1918)년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을 찾아뵙고 조선국민회 성원으로 되였으며 주체8(1919)년 3.1인민봉기에 참가하여 싸웠다.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중국의 린쟝, 단둥(단동), 관디엔(관전) 등지에 옮겨가 살면서 반일단체에 관계하였다. 주체9(1920)년 백산무사단에 가입하여 재무부장으로 있으면서 국내에 파견되는 무장소조들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후대교육사업도 하였다. 주체13(1924)년 화디엔(화전)에 가서 조선독립운동자들의 행정구의 하나인 총관소 총관으로 있었으며 영풍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얻은 돈과 쌀을 독립운동단체들과 독립운동자들에게 보내주었다. 김형직선생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반일력량을 단합시키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렸다.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화성의숙에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실수 있도록 각 방면으로 도와드렸다. 그후 중국에서 국내전쟁을 할 때에는 혁명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화디엔에서 일본군대와 쟝지에스(장개석)군대의 침해로부터 조선사람들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

주체47(1958)년에 자강도 전천에 돌아와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다가 사망하였다. 묘는 애국렬사릉에 있다.

강제하(1888. 3. 10－1933. 9. 1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강제하는 민족주의자이지만 공산주의를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놀러 가면 앉혀놓고 공산주의선전을 하였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틀렸는데 자네들은 공산주의적방법으로라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적지 않은 힘이 되였다.》

반일애국지사. 평안북도 창성군에서 태여났으며 4년제 보통학교를 마친 후 황해도일대에서 측량기술자로 일하였다.

1910년대에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항의하였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그후 고향인 창성에 돌아왔다.

주체6(1917)년 4월 창성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을 만나뵙고 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 창성지회를 결성하시는 모임에 참가하여 그 성원으로 되였다.

주체7(1918)년 11월 창성일대를 찾으신 선생님으로부터 청년들을 묶어세울데 대한 과업을 받고 창성독립단을 뭇는데 참가하였으며 그 책임자로 되였다.

주체8(1919)년 3.1인민봉기가 일어나자 동료들과 청년들을 반일시위투쟁에 적극 불러일으켰다.

이해 7월과 8월에 련이어 소집된 청수동회의와 관디엔(관전)회의에 참가하여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을 무산혁명운동에로 방향을 전환시킬데 대한 방침을 받았다. 그후 통의부 교통부장, 정의부 재정부장사업을 맡아보았다.

화성의숙 숙감을 할 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학습과 혁명활동을 적극 도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숙을 떠나신 다음에도 청년학생들을 선진사상으로 각성시키는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독립군부대에서 활동하다가 푸쑹에서 있은 적과의 격전에서 희생되였다. 묘는 애국렬사릉에 있다.

리관린(1897. 1. 22－1985. 10. 3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그는 비유해 말하면 민족주의라는 목선을 타고 먼 항행을 떠난 독립운동자였다. 고난과 시련이 끝없이 겹쳐드는 반일독립항쟁의 그 풍랑사나운 망망대해를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배였다. 그런 쪽배로는 도저히 조국광복이라는 목적지에까지 갈수 없었다.》

조선독립군 녀걸, 반일애국지사. 리장청이라고도 하였다.

당시 삭주군 구곡면 수풍동에서 중산층가정의 맏딸로 태여나 의주군 양실학교를 졸업하고 주체6(1917)년초 평양녀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학교시절에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밑에 조선국민회 성원으로 되여 활동하였다.

3.1인민봉기때에는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을 반일투쟁에로 동원하는데 힘썼으며 이해 여름 고향에 돌아가 직업적인 독립운동의 길에 나섰다.

그후에도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김형직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관철하는데 앞장서서 활동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신 후 국민부의 백색테로가 우심해짐에 따라 민족주의운동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남만 관디엔(관전)현에로 은퇴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주체60(1971)년 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편지를 올렸으며 이듬해 4월 평양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주체69(1980)년 조국의 품에 안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생활하다가 병으로 사망하였다. 묘는 애국렬사릉에 있다.

순종(1874－1926)

리조의 마지막왕. 왕위에 있은 기간은 1907～1910년이다. 본

명은 척, 년호는 륭희, 고종의 둘째아들이다. 1897년에 황태자로 책봉되였다. 1907년 8월에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고종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았으며 이해 12월에는 황태자(리왕근)를 류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인질로 보냈다. 일본의 강요에 의하여 창덕궁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생활하다가 사망하였다.

칼 하인리히 맑스(1818－1883)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은 로동계급의 수령이다.

그는 1841년에 베를린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혁명적경향을 가진 《헤겔좌파》에 가담하여 활동하였으며 그후 《라인신문》의 주필로 있으면서 신문을 반동들을 반대하는 수단으로 리용하였다.

이 시기 엥겔스와 첫 상봉을 하였으며 혁명적민주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사상전환을 하였다.

엥겔스와 혁명동지로 결합되였으며 《신성가족》, 《도이췰란드 이데올로기》 등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함께 저술하였다.

그후 벨지끄의 브류쎌로 가서 로동계급의 당창건을 위한 첫 출발로 《브류쎌공산주의자통신위원회》를 조직하고 《정의자동맹》을 《공산주의자동맹》으로 개조하였으며 《공산당선언》을 비롯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과 자본주의제도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밝힌 수많은 저작들을 집필하였다.

1864년 9월 《국제로동자협회》(제1국제당)를 창립하고 각종 기회주의와의 투쟁속에서 맑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제1국제당이 해산된 후에는 국제로동운동을 지도하였다.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건강이 나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나 《자본론》집필을 계속하다가 런던에서 서거하였다.

프리드리히 엥겔스(1820－1895)

맑스의 가장 친근한 전우이며 맑스주의창시자의 한사람이며 국제로동계급의 수령이다.

그는 1841년에 베를린에서 지원병으로 포병려단에 들어갔으며 이

때 베를린종합대학에서 철학강의를 들으면서 《청년헤겔파》의 소조와 련계를 맺었다.

군대복무를 마친 후 영국 만체스터로 가는 도중 퀼른(도이췰란드)의 《라인신문》사에서 맑스와 첫 상봉을 하였다.

1844년부터 맑스와 함께 사업하였으며 그후 라인지방과 남부도이췰란드에서 일어난 무장봉기에 참가하였다.

1850년부터 거의 10년동안 편지거래로 맑스의 사업을 도와주었다.

1864년 제1국제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1871년 빠리콤뮨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제1국제당이 해산된 후 맑스와 함께 로동운동을 계속 지도하였으며 그 기간에 《반듀링론》, 《자연변증법》을 저술하였다. 맑스서거후에는 국제로동운동강화에 힘쓰면서 맑스가 완성하지 못한 《자본론》 2, 3권을 정리하여 출판하였다.

1889년 제2국제당을 창건한 그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국제로동운동에 헌신하였으며 말년에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등 맑스주의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서들을 썼다.

조직, 단체

타도제국주의동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반제, 독립, 자주의 리념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 세대의 청년들이 력사의 진통속에서 창조한 순결하고 참신한 새형의 정치적생명체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 동맹을 결성하였지만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너무 좌익적인 조직인것 같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조직의 명칭을 타도제국주의동맹이라고 하

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15(1926)년 10월 17일 화디엔에서 조직하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조직.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기 위하여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5(1926)년 9월말에 있은 모임에서 조직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10월 10일 몸소 키우신 핵심성원들로 조직을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열고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강령, 활동규범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5(1926)년 10월 17일 최창걸, 김리갑, 리제우, 강병선, 김원우, 박근원을 비롯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ㅌ. ㄷ》)을 결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ㅌ. ㄷ》결성모임에서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라는 보고를 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것이며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 책임자로 추대되시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전위조직이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새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ㅌ. ㄷ》는 결성된 이후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 광범한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새 세대 혁명가로 키워냈으며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닦고 전반적조선혁명을 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ㅌ. ㄷ》는 주체16(1927)년 8월 27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중적인 비합법적청년혁명조직인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되였다.

조선공산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로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발전추세는 이를 통일적으로 령솔할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지도세력을 요구하였으며 이런 력사적요구를 반영하여 1925년 4월 서울에서는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이무렵으로 말하면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도 로동계급의 정당들이 많이 출현하던 때였다.

조선공산당은 창건후 현실에 부합되는 지도사상이 없고 대렬이 통일되지 못하고 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지 못한 근본적인 제한성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그 창건은 신구사조의 교체와 민족해방투쟁의 질적변화를 보여주는 의의있는 사변으로서 로동운동과 농민운동, 청년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1925년에 창건되였다가 1928년에 해산된 공산당.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은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밑에 맑스－레닌주의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로동계급이 투쟁무대에 나섬에 따라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20년대부터 무산민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에 따라 이를 통일적으로 령도할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지도세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반영하여 1925년 4월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였다.

공산당의 창건은 민족해방투쟁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6.10만세시위투쟁이 일어났고 로동자, 농민의 대중투쟁이 더욱 확대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당자체의 심중한 약점으로 하여 대중운동을 목적지향성있게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없었다.

공산주의운동대렬안에 기여든 종파분자들은 계급적립장이 확고한 공산주의적핵심이 준비되지 못한 기회를 리용하여 저마다 공

산주의운동의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각기 파벌을 형성하고 혁명투쟁과는 인연이 없는 말공부만 일삼았으며 자기의 공명과 공산주의운동의 《령도권》쟁탈을 위한 권력싸움만 하였다.

이자들은 자체로 당을 튼튼히 꾸릴 생각은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파가 《정통파》이며 진짜 《맑스주의파》라고 하면서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돌아다녔다.

종파분자들의 파벌싸움으로 말미암아 공산당은 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할수 없었으며 인민대중을 자기 주위에 결속하고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공산당은 혁명의 전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여 1928년에 해산되고말았다.

조선공산당의 해산은 당안에서 종파사대주의가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당대렬의 통일단결이 이루어질수 없고 당이 혁명의 전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수 없는것은 물론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이겨내지 못하여 나중에는 자기 존재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는 심각한 력사적교훈을 남기였다.

로동공제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로동단체. 1920년 4월 서울에서 조직되였다. 조직당시 회원은 678명이였으며 1년후인 1921년 3월에는 1만 7 25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평양과 서울을 비롯한 중요도시들에 수많은 지부와 분회를 가진 대중적인 단체로 발전하였다.

로동공제회는 처음에 문화계몽사업과 호상부조사업을 하였으며 점차 로동자, 농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각성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평양과 서울 등 여러 지방들에서 로동강습소, 로동야학 등을 조직운영하였으며 기관지로서 《공제》와 《로동회보》를 발간하였다.

로동공제회의 출현은 로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발전을 추

동하였다. 그러나 지도부에 기여든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지식인들의 동요성과 분파행동으로 하여 일제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1922년 10월에는 자기 존재를 끝마쳤다.

사 건

6. 10만세시위투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6. 10만세시위투쟁은 3. 1인민봉기후 민족해방투쟁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이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전개된 대중적반일애국투쟁. 6. 10만세운동이라고도 한다.

1926년 4월 25일 리조의 마지막왕이였던 순종이 사망한것을 계기로 전체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이 높아지자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그의 장례식날인 6월 10일에 전국적인 반일시위투쟁을 벌릴 준비를 비밀리에 추진시켰다. 시위투쟁준비위원회에 끼여있던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비밀이 일제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반일시위는 사전에 탄압을 받게 되였으나 선진적로동자들, 청년학생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계획대로 대중적반일시위투쟁을 일으켰다. 6월 10일 순종의 상여가 종로를 지나갈 때 수만명의 서울시민들과 열두어살안팎의 보통학교 학생들까지 대렬을 짓고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 물러가라!》, 《조선독립운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대중적인 시위를 벌리였다. 시위군중과 무장한 일제군경들사이에 치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이 투쟁에서 160여명이 부상당하고 200여명의 공산주의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체포구금되였다.

6. 10만세시위투쟁은 이 운동내에 기여들었던 종파분자들의 책동과 일제의 야수적탄압으로 하여 실패하였다. 그러나 6. 10만세시위투쟁은 일제의 《문화통치》의 기만성과 교활성을 폭로한

투쟁으로서 그 투쟁의 전과정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반드시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와 투쟁기세를 보여주었다.

출판물

《공산당선언》

과학적공산주의의 기본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첫 강령적문헌.

1847년 11월 공산주의자동맹 제2차대회의 위임에 의하여 칼 맑스와 프리드리흐 엥겔스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1848년 2월 공산주의자동맹의 강령으로 선포되였다.

저서는 서문과 4개 장 《부르죠아와 프로레타리아》, 《프로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문헌과 공산주의문헌》, 《각종 반정부당에 대한 공산주의자의 태도》로 구성되여있다.

저서에서는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을 천명하고 자본주의의 발생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 자본가계급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로동계급의 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였다.

저서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계급사회에서 계급투쟁은 필연적인것이며 계급사회발전의 추동력이라는것, 자본주의는 생산의 사회적성격과 점유의 사자본주의적형태간의 모순으로 하여 사회발전의 질곡으로 전환되며 마침내는 로동계급의 계급투쟁에 의하여 멸망하게 된다는것을 론증하였다.

저서에서는 다음으로 프로레타리아트의 력사적사명을 밝히면서 그것은 폭력혁명으로서 부르죠아지를 정복하고 전세계를 해방하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없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저서에서는 또한 프로레타리아당의 력사적역할과 그의 당면임무 및 최종목적을 규정하였으며 혁명투쟁에서의 당의 전략전술적원칙

들을 천명하였다.

저서에서는 다음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부르죠아지의 비난의 허위성을 폭로하면서 어떠한 시대의 지배사상이든 그것은 언제나 지배계급의 사상이며 따라서 공산주의혁명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소유관계와의 가장 결정적인 결별인 동시에 과거의 사상과의 가장 결정적인 결별이며 공산주의는 새로운 소유관계에 맞는 새로운 사상을 낳는다고 하였다.

저서에서는 1847년 당시의 각종 사회주의류파들인 《봉건적사회주의》, 《진정사회주의》, 《공상적사회주의》 등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그것들의 제한성과 과학적공산주의의 정당성을 론증하였다. 저서에서는 끝으로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함으로써 공산주의운동의 국제적단결의 사상을 천명하였다. 《공산당선언》은 자본주의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였다.

학 교

화성의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화성의숙은 독립군의 간부들을 키워낼 목적으로 1925년초에 세운 정의부소속의 2년제 군사정치학교였다.》

우리 나라 민족주의자들이 독립군간부들을 키워낼 목적으로 주체14(1925)년초에 세운 2년제 군사정치학교. 화디엔현 화디엔에 있었다.

화성의숙에서는 군사과목을 기본으로 하고 그밖에 조선력사, 조선지리, 세계혁명사, 생물, 수학, 체육 등을 배워주었다. 학생들은 독립군에서 추천되여온 2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였으며 그 수는 100명미만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5(1926)년 6월 어머님과 의논하신 끝에 아버님 친우들의 권고와 주선으로 화성의숙에 입학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내용으로 일관된 화성의숙의 교육과 부르죠아민족주의운동의 약점,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제한성을 깊이 느끼시고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한편 화성의숙의 청년학생들속에서 사대주의와 종파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참다운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키우는 사업을 진행하시여 우리 혁명의 핵심력량을 마련해나가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주체15(1926)년 10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주체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화성의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력사적인 곳으로서 주체의 혁명위업개척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신흥강습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민족재생의 출로를 실력배양에서 찾은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적인 계몽활동가들은 일반학교의 설립과 함께 군사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무관학교의 설립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였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만주각지에는 신흥강습소(류하현), 십리평사관학교(왕청현), 소사하훈련소(안도현), 화성의숙(화전현)을 비롯한 여러개의 무관학교들이 일어섰다.》

독립운동자들이 세운 무관학교. 3.1운동직후 류하현에 설립되였다.

그후 강습소는 무관학교로 개칭되여 군사간부양성에 주력하였다.

학교에는 2년제 고등군사반과 일반훈련반(3개월), 하사관반(6개월)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군사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일반교육도 배합하였으며 과외교양의 수단으로서 《신흥학우보》를 발간하였다.

학교는 일제와 중국 반동군벌의 방해책동과 학교내에서 발생

한 파벌암투로 하여 1920년 8월에 페교되였다.

스리핑(십리평)사관학교

독립운동자들의 무장단체인 북로군정서가 설립한 무관학교. 1920년 2월 왕칭현 스리핑에 세워졌다.

입학생으로는 18～30살의 장정중에서 초등 또는 중등교육을 받은 건장한 청년들이 선발되였다. 설립당시 학생수는 300명정도였다.

교장으로는 북로군정서 사령관 김좌진이 겸하였으며 학교에는 교수부와 학도단이 있었다.

교육기간은 6개월이였으며 민족주의적사상교양과 력사, 군사학, 전술 및 병기학, 구령법, 체육 등 학과목들이 취급되였다.

학생들은 모두 회색군복을 입고 3등병의 직급견장을 달았으며 6개월간의 과정안을 마치면 모두 소위자격을 받게 되였다.

스리핑사관학교는 독립군이 일제와 싸운 칭산리(청산리)전투(1920. 10)후 일제의 《토벌》이 강화되여 북로군정서가 북만과 로씨야령토에로 이동함으로써 페교되고말았다.

샤오사하(소사하)훈련소

독립운동자들의 무장단체인 서로군정서의 군사인재양성기지. 1920년대초 독립운동자들에 의하여 안투현 샤오사하에 설치되였다.

훈련소에서는 류동하는 독립군을 재편성하고 그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에는 칭산리(청산리)전투(1920. 10)에 참가했던 독립군의 일부 력량이 망라되였다. 당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청장년들은 240여명이나 되였다.

샤오사하훈련소는 그후 서로군정서가 북만의 닝안(녕안)현방면으로 이동하면서 해체되였다.

지 명

화디엔(화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화전은 송화강과 휘발하의 합수목으로부터 오륙십리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있는 길림성관할의 산간도시로서 남만치고도 손꼽히는 독립운동중심지의 하나였다.》

중국 동북의 지린성 화디엔현의 소재지. 쑹화강(송화강)과 그 지류인 후이파하(휘발하)의 합수목으로부터 50～60리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있는 산간도시이다.

1920년대에는 동서로 7～8리, 남북으로 4～5리가량 되는 도시의 중심에 있는 십자길을 경계로 하여 동쪽거리, 서쪽거리, 북쪽거리로 구획되여있었다.

거리의 변두리로는 후이파하가 감돌아흐르고있다.

강변에 넓은 변을 끼고있어 오래전부터 조선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벼농사를 하며 살아왔다. 당시 이곳에는 조선사람들의 집이 40～50호정도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지에서 살길을 찾아온 이주민들이였다.

화디엔은 지린과 함께 1920년대초부터 남만땅에서 독립운동의 중요한 본거지의 하나여서 이곳에 민족주의자들이 자주 드나들었으며 나라의 독립에 뜻을 둔 청년들도 많이 찾아왔다.

민족주의자들은 1924년 겨울에 남만각지에 널려있던 독립운동단체들을 합치여 《정의부》를 내오고 이듬해 초에 독립군지휘관들을 키워낼 목적으로 화디엔거리 서남쪽 강변에 《정의부》소속의 2년제 군사정치학교인 화성의숙을 세웠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시기에 화디엔에 오시여 오동진, 량세봉, 최동오 등 독립운동자들과 2일간이나 모임을 가지고 독립운동

대렬의 통일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5(1926)년 6월 화성의숙에 입학하시였으며 이해 10월 17일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ㅌ. ㄷ》)을 결성하시였다.

그리고 혁명운동을 보다 넓은 판도에서 본격적으로 벌리기 위하여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지린으로 옮길것을 결심하시고 주체15(1926)년 12월 초순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화디엔을 떠나시였다.

용어 및 어휘

강령(벼리 강ㅡ綱, 거느릴 령ㅡ領)

정치조직들이 밝히는 전략적인 투쟁목적과 과업. 정당, 단체들은 자기의 투쟁목적과 과업을 밝힌 강령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 옳은 투쟁목적과 과업이 밝혀진 강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대중이 나아갈 방향을 똑똑히 가르쳐주며 그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한다. 이러한 강령은 오직 현명한 수령과 혁명적당에 의하여서만 작성될수 있다.

혁명적당의 강령에는 혁명의 최종목적을 밝힌 최고강령과 당면한 투쟁과업이 있다. 강령에는 또한 해당 부문의 중요한 지침, 기본요구, 기본내용을 밝힌것이 있다.

교범(가르칠 교ㅡ敎, 본보기 범ㅡ範)

본보기를 삼아 그대로 따라배워야 할 사업과 활동의 기본준칙과 리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로 되는것을 비겨 이르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왕조정치(임금 왕ㅡ王, 아침 조ㅡ朝, 정사 정ㅡ政, 다스릴 치ㅡ治)

왕족이나 황실가문에서 혈통적, 상속적권리에 따라 왕위를 세습하고 그 왕이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정치라는 뜻.

망연자실(아득할 망—茫, 그럴 연—然, 스스로 자—自, 잃을 실—失)
《멍하니 정신을 잃은것.》을 뜻하는것.

민의창달(백성 민—民, 뜻 의—意, 화창할 창—暢, 사무칠 달—達)
인민대중의 의사가 자유로이 표현되고 전달되는것.

북망산천(북녘 북—北, 북망산 망—邙, 산 산—山, 내 천—川)
락양북쪽에 있는 산이름인데 한나라(중국)왕족들의 묘지였다는데로부터 묘지의 대명사로 불리우게 되였다.

백사지(흰 백—白, 모래 사—砂, 땅 지—地)
곡식이 전혀 자라지 못하는 모래땅같은 땅이라는 뜻으로 《의지할데가 없거나 믿을데가 전혀 없는 곳.》을 이르는 말.

시대착오(때 시—時, 대신할 대—代, 석을 착—錯, 그를 오—誤)
발전된 현실에 맞지 않게 낡고 뒤떨어진 관점을 가지고 잘못 대하거나 행동하는것을 이르는 말.

지리멸렬(고일 지—支, 떠날 리—離, 떠날 멸—滅, 찢을 렬—裂)
갈피를 잡을수 없게 산산이 흩어져 쪼각나는것.

진흥(떨칠 진-振, 일 흥-興)
(침체상태에서)떨쳐일어나는것 또는 떨쳐일으키는것을 이르는 말.

천일양병 일일용병(일천 천—千, 날 일—日, 기를 양—養, 군사 병—兵, 한 일—一, 날 일—日, 쓸 용—用, 군사 병—兵)
천날동안 병사를 길러서 하루싸움에 쓴다는 뜻.
오래동안 준비를 갖추는것은 결정적인 대목에 써먹자는것이라는 말이다. 즉 일단 유사시에 한몫 하는 병사로 되게 하려면 병사

를 키우는데 그만큼 큰 공력을 들여야 한다는것이다.

초석(주추 초－礎, 돌 석－石)

원래 《주추돌》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사물현상이나 사상과 리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로 되는것을 비겨 이르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기타 자료, 상식

화디엔(화전)총관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화전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일러준대로 김시우의 집부터 찾았다. 그는 정의부소속의 화전총관소 총관이였다. 총관소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사람들의 생활상편의를 봐주는 자치적인 기구였다. 이런 총관소들이 무송에도 있고 반석에도 있고 관전, 왕청문, 삼원포 같은 고장에도 있었다.》

화디엔일대에 거주하고있던 조선사람들의 생활상편의를 돌봐주던 자치적인 기구. 정의부의 총관소들중의 하나였다.

화디엔총관소의 총관은 김시우였다.

화디엔총관소는 시안의 남대가에 영풍정미소를 차려놓고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여 독립군에 식량을 대여주고 화성의숙과 그 부근에 있는 조선인모범소학교에 재정적인 후원도 하였다.

총관

총관소의 책임자. 정의부는 화디엔, 푸쑹, 판스, 콴디엔, 왕칭문, 싼위엔푸(삼원포)등 지역들에 총관소라는 자치적인 기구를 내오고 총관직제를 두었다.

총관은 총관소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있는 조선사람들의 생활상편의를 봐주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하며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 조직령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발취)

《내가 중학시절에 밤을 새우며 책을 본것은 단순한 학구적취미나 탐구심때문만이 아니였다. 나는 학자가 되고 그 무슨 출세의 길을 틔우려고 책을 파고든것이 아니였다. 어떻게 하면 일제를 물리치고 나라를 찾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고 근로하는 인민들을 잘살게 하겠는가? 내가 책에서 찾고싶었던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였다. 어디서 무슨 책을 보건 나는 항상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맑스－레닌주의를 교조로가 아니라 실천의 무기로 대하게 되고 진리의 기준을 추상적인 리론에서가 아니라 항상 조선혁명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찾으려는 나의 립장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싹텄다고 할수 있다.》

《혁명적세계관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리해관계를 인식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착취계급을 증오하고 자기 계급의 리해관계를 옹호하는 사상을 가지며 나아가서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였을 때 형성된다고 볼수 있다.

나도 맑스－레닌주의고전을 비롯한 혁명적인 책들을 보고 계급적처지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는 사회현상을 보고 불평등

이 많다는것을 알게 되였으며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증오하는 사상이 자라서 결국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였다.》

《내가 새 사조의 진수를 빨리 깨달을수 있었다면 그것은 나라잃은 민족의 아들로 태여난 슬픔과 분노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은 나를 일찌기 철들게 하였다. 나는 수난당하는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감수하였다.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민족적의무감을 짊어놓았다.》

《길림시절에 나의 세계관이 확립되고 드팀없는것으로 굳어졌으며 그것이 내 한생의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되였다.
길림에서의 축적과 체험은 그후 나로 하여금 자주적인 혁명사상의 골격을 세울수 있게 하였다.》

《학습은 혁명가가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기초적공정이며 사회의 진보와 변혁에 이바지할 밑천을 마련하는데서 단 하루도 중단해서는 안되는 필수적정신로동이다. 선진사상의 탐구과정을 통하여 길림시절에 터득한 교훈으로부터 나는 오늘도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라고 강조하고있다.》

《나의 혁명활동은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우리가 혁명활동을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그처럼 큰 의의를 부여한것은 내가 학생의 몸이라는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로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데서 그 운동이 노는 역할과 위치가 매우 중요하였기때문이였다.》

《맑스－레닌주의리론에서는 청년학생운동을 교량자의 역할에 비기고있다. 다시말하여 청년학생운동이 선진사상을 보급하고 대중을 계몽각성시켜 혁명운동에로 추동하고 안내하는 교량자적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우리도 그 리론을 긍정하였다.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청년학생들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립장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생기였다. 우리는 혁명의 동력을 로동자, 농민의 본위로만 규정하던 종전의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학생들도 혁명투쟁에서 당당한 주력을 이룬다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청년학생운동이 걸어온 로정이 립증해주고있다.
3.1인민봉기와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사건 등 해방전 우리 나라 반일애국투쟁의 봉우리를 이루는 주요한 력사적사변들에서 청년학생들은 항상 앞장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다. 우리는 공산주의운동의 새 력사도 청년들의 힘으로 개척하였고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도 청년학생들을 골간으로 하여 전개하였다. 오늘도 우리 혁명에서는 청년학생들이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남조선혁명에서도 주력은 청년학생들이라고 할수 있다. 4.19봉기의 산파도 청년학생들이였고 광주인민항쟁(1980년)의 주역도 청년학생들이였으며 〈제5공화국〉 정권을 타도한 6월항쟁의 기수들도 청년학생들이였다.》

《우리가 대중의 혁명화를 위해 그처럼 전력을 다한것은 그들을 우매하고 미개한 계몽대상으로만 보아오던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인민이야말로 우리의 선생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시한데 있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갔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그때부터 이 구호는 나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좌우명으로 되였다.》

《꿈도 없고 담력도 없고 열정도 패기도 투지도 랑만도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리상을 높이 세우고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생신한 사상과 건실한 육체를 가진 청춘들이 피와 땀을 바쳐 가꾸고 이룩해놓은 모든 열매들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되며 그 재부를 이루

어놓은 주인공들에 대하여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는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것은 그때가 일생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할수 있는 시절이기때문이다. 일을 많이 할수 있는 때가 제일 행복하다.》

《인민적풍격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인민적인 사고방식을 지닌다는것은 결코 탁상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우기 말공부로써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들의 육성은 물론, 숨결, 눈빛, 표정, 말투, 손세, 몸가짐까지도 자기의 눈과 귀로 직접 포착할수 있는 인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법이다.》

학습문제

문제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왜 화성의숙을 중퇴할것을 결심하게 되시였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숙을 중퇴할것을 결심하신것은 화디엔(화전)의 좁은 울타리를 터치고 광활한 무대로 나가 《ㅌ. ㄷ》의 기치밑에 혁명운동을 더 높은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벌려나가시기 위해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숙중퇴문제를 놓고 복잡한 심리적곡절을 겪으시였다.

그것은 자신께서 의숙으로부터 멀어지는것이 자신을 거기에 보내준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는것으로 되고 그들에게 자신의 장래를 부탁한 아버님의 뜻을 어기는것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런 체면때문에 낡은 교육과 타협하고싶지 않으시였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집에 돌아가서 가정살림을 돌볼것인가, 다른 상급학교에 진학할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심리적곡절끝에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지린에 가서 중학교를 다니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숙을 반년만에 중퇴하고 지린으로 가신것은 생애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용단이였다.

문제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왜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지린으로 선택하시였는가?

그것은 당시 지린이 만저우지방에서 조선의 반일독립운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중요한 정치적중심지였기때문이다.

이 시기 지린은 중국의 한개 성소재지로서 선양(심양), 창춘(장춘), 하얼빈(할빈)과 함께 만저우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다.

지린에는 새것을 지향하고 진리를 찾아 모대기는 청년학생들이 집결되여있었으며 민족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종파분자, 망명자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때문에 일제는 《동3성에서의 배일의 책원지는 지린》이라고 하였다.

지린에는 지린(길림)육문중학교, 원광(문광)중학교, 제1중학교, 제5중학교, 지린녀자중학교, 지린사범학교 등 많은 학교들과 문화기관들이 있어 선진사상을 더욱 깊이 탐구할수 있었다.

그리고 발전된 교통망으로 하여 여러 지역들과의 련계를 보장하는데 매우 편리하고 시내와 주변농촌들에 조선사람이 많이 살고있었으므로 혁명활동을 벌리는데 유리하였다.

지린의 이러한 실정은 청년학생들속에 들어가 새 세대의 청년핵심대렬을 확대해나가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결심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되였다.

문제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년학생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신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을 새 세대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하여 그들속에서 선진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뜻이 통하는 청년학생들로 먼저 육문중학교안에 비밀독서조를 조직하시고 그것을 지린시안의 여러 학교들에 급속히 확대하시였다.

그리고 독서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웅변대회 등을 자주 조직하시여 그들의 혁명의식을 높여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기 위

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6(1927)년 4월 지린시안의 조선인 소년들을 망라하는 합법적조직인 조선인지린소년회를 조직하시였으며 5월에는 민족주의자들의 후원을 받던 순수한 친목단체인 조선인려지학우회를 혁명적인 학생청년조직인 조선인류지학우회로 개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이 확대되고 여기에 광범한 청년들이 망라됨에 따라 주체16(1927)년 8월 27일에 《ㅌ. ㄷ》를 보다 대중적조직인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시였다.

반제청년동맹은 《ㅌ. ㄷ》의 구호를 그대로 내세우고 그 강령을 그대로 계승한 반제적이고 대중적인 비합법적청년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제청년동맹을 원광중학교, 지린제1중학교, 지린제5중학교, 지린사범학교, 지린녀자중학교, 지린법정대학을 비롯하여 시안의 학교들과 지린주변의 농촌지역과 류하현, 화디엔현, 싱징(흥경)현일대에도 조선청년들이 있는 모든 곳에 다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급속히 늘어난 청소년학생들의 대중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나갈 전위조직을 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6(1927)년 8월 28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청결성회의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성격과 과업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고 여러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로동청년, 농민청년, 학생청년들로 무어진 반제민족해방과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조직입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각계각층 청년단체들과 대중단체들을 조직지도하는 전위조직입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단순한 청년조직이 아니라 우리 나라 공

산주의운동에서 새 세대들이 등장하고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갈 사명을 지닌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각계각층 대중단체들을 조직지도하는 혁명적전위조직이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동맹조직들을 전투적인 조직으로 꾸리고 혁명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면서 광범한 청년들을 반일의 기치밑에 튼튼히 결속하며 그들을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의하여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책임자로 되시였다.

문제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년학생들을 조직화하는데서 견지하신 원칙과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로 청년학생들을 조직에 묶어세우는데서 핵심들을 먼저 키우고 그들의 자립적역할을 높이도록 하신것이다.

둘째로 합법적조직활동과 비합법적조직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합법적조직들에서 단련육성된 핵심들을 비합법적조직들에 받아들이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신것이다.

셋째로 이미 있는 조직들가운데서 간판만 있고 활동하지 않는 조직은 무시하고 새롭게 꾸리며 미약하게나마 움직이는 조직은 그대로 두고 리용개편하도록 하신것이다.

문제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들속에 들어가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신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이야말로 선생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라는 주체적관점을 지니시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드시였으며 인민행렬차에 오르시여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속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신것

은 주체16(1927)년 겨울방학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한 활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7(1928)년 1월 15일 푸쑹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혁명적출판물인 《새날》신문을 발간하시여 광범한 청년들과 군중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중속에서 연예선전대활동을 활발히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혁명가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와 가무 《13도자랑》, 《단심줄》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시고 연예선전대를 무어 순회공연을 조직하시여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17(1928)년초 푸쑹에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는 동포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적자부심을 깊이 심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지에 야학들을 세우고 카룬의 진명학교와 구위수의 삼광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을 대중교양의 거점으로 만드시였으며 강연과 해설담화, 이야기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중을 의식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계각층의 군중들을 망라하는 계층별대중조직들을 내오고 확대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계각층 청년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6(1927)년 12월 20일 푸쑹지방의 핵심청년들로 대중적반일청년조직인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시였다. 백두산주변의 청년들의 조직인 백산청년동맹은 반제청년동맹의 변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영향밑에 있

던 청년단체들을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밑에 있던 려신청년회의 선진적인 핵심들로 교하반제청년동맹지부를 무어주시고 려신청년회와 라파(랍법)청년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하시였다. 한편 카룬, 구위수, 링가(릉가), 싼위엔푸(삼원포) 등 만저우일대와 의주, 피현, 창성, 벽동, 원산, 해주, 남포를 비롯한 국내의 곳곳에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을 파견하여 민족주의자들의 영향하에 있던 청년단체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게 하시였으며 《동만청총》안에 선진적인 청년들로 조직을 꾸리고 수많은 반일청년들을 종파분자들의 영향에서 떼내여 여기에 묶어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계몽활동을 대중을 조직화, 혁명화하기 위한 활동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그것을 적극적인 정치투쟁의 한 형태로 발전시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신데 기초하여 주체17(1928)년 3월 10일 우리 나라에서 첫 혁명적농민조직인 농민동맹을 결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을 조직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린시내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시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주체17(1928)년 8월 25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조직인 반일로동조합을 결성하시였다.

인 물

차광수(1905. 4. 5－1932. 10. 3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차광수는 3년유여의 세월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였다. 그는 청년학생운동을 개척하고 대중의 혁명화를 다그치며 항일무장투쟁의 기초를 축성하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조선혁명군 및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평안북도 룡천군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여났다. 일본에 가서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였다. 투쟁의 길에 나섰으나 령도자의 옳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탓으로 하여 방황하며 헤매이다가 주체16(1927)년 지린에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비로소 혁명의 참된 길을 찾게 되였다.

지린에 온 후 타도제국주의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같은 해 7월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임무를 받고 신안툰의 어느 한 학교 교원으로 파견되여 신안툰마을을 혁명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주체16(1927)년 8월부터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성원으로 사업하였다. 이해 12월 창춘과 지린시 주변마을 등 여러곳에서 진행된 연예선전대활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주체17(1928)년 7월 류하현 가오산쯔(고산자) 동성학교에 사회과학연구회를 내오고 그를 통하여 조선청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육교양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8월에는 가오산쯔에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지부를 내왔다.

이해 10월 경애하는 수령님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실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게 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념원을 담아 수령님의 존함을 캄캄한 어둠속에서 해방의 새벽길로 이끄는 새별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별동지 즉 한 일자에 별 성자로 이루어진 **김일성**(金一星)동지로 지어드리며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지린에서 지린(길림)—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이 있은 후 류하현 가오산쯔의 동성학교 교원으로 있으면서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모략을 짓부시고 광범한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주체18(1929)년 가을 남만청총대회가 열리는 왕칭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갔으며 국민부 우두머리들에 의하여 선진적청년들에 대한 백색테로가 감행되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수령님의 신변을 철저히 보위하였다.

주체형의 당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였으며 주체19(1930)년 7월 3일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가 결성되면서 그 첫 성원으로 되였다. 이해 7월 6일 조선혁명군이 결성되면서 그에 입대하여 지휘관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퉁(이통)현 구위수(고유수) 삼광학교 2년제고등과 교원으로 파견되여 학생들을 항일무장대오의 골간으로 튼튼히 키워나갔다.

이해 가을 혁명동지들, 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태양이 되여주시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수령님의 존함을 다시 날 일자와 이룰 성자로 된 **김일성**(金日成)동지로 지어올리였다.

주체20(1931)년 5월과 12월에 열린 밍위에거우(명월구)회의방침을 받들고 혁명조직을 튼튼히 꾸리며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정력을 바쳤으며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후 지휘관으로 활동하였다. 이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사이에 진행된 주력부대의 남만원정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적극 보좌해드리였다. 그후 소부대를 이끌고 둔화(돈화)지방에 나가 활동하다가 적들과의 치렬한 격전장에서 전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신의주제1사범대학을 그의 이름을 달아 부르고있다. 혁명렬사릉에 그의 반신상이 세워졌다.

김혁(1907. 10. 11—1930. 8. 2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청년시절에 내 주위에는 동지들이 많았다. 그들가운데는 인정적으로 사귄 친구들도 있었고 투쟁과정에 뜻을 같이하면서 얻은 동지들도 있었다. 그 한명한명의 동지들은 모두가 억만금을 주고서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사람들이였다.

우리 후대들이 혁명시인이라고 부르는 김혁도 바로 그런 동지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김혁은 나의 청춘시절에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긴 사람이며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도 그를 잊지 않고있다.》

조선혁명군 지휘관. 평안북도의 농민가정에서 태여났다. 혁명의 옳은 길을 찾아 모대기다가 주체16(1927)년 여름 지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옵고 가르치심을 받은 후 비로소 참다운 혁명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해 8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회의에 참가하여 그 성원으로 되였다. 이때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연예선전대활동에 수많이 참가하여 광범한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투쟁에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지린, 카룬 등지에서 혁명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였다.

주체17(1928)년 여름부터 류하현일대에 파견되여 광범한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였다. 이해 10월 시위투쟁에 쓸 선전물을 찍어내는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지린에서 진행된 지린(길림)—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과 일본상품배척투쟁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웠다.

주체17(1928)년 가을 불멸의 첫 혁명송가 《조선의 별》을 창작보급하였다. 재능있는 혁명시인으로서 《혁명가》를 비롯한 많은 시와 노래를 창작하여 광범한 군중속에 널리 보급하였다. 주체19(1930)년 여름에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력사적인 카룬회의에 참가하였다. 이해 7월 3일 첫 당조직—건설동지사결성모임에 참가하여 그 성원으로 되였다. 7월 6일에는 이통현 구위수에서 조선혁명군이 결성되면서 그 지휘성원으로 되였다. 첫 당조직의 사상적대변지 《볼쉐비크》가 창간(주체19(1930).7.10)되자 그 첫 주필로 되였다. 8월초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받고 하얼빈일대에 파견되였다.

하얼빈다오리(할빈도리)에 나가 정치공작활동을 벌리던 어느

날 불의에 달려든 경찰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최후를 결심하고 3층에서 뛰여내렸다. 자결에 성공하지 못한채 적들에게 체포되였으며 뤼순(려순)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박해에 시달리다가 옥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혁명렬사릉에 그의 반신상이 세워졌다.

한영애(1914.12.30－1951.8.1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은 한영애와 같이 절해고도에서도 신념을 잃지 말고 량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나의 일생에서는 한영애도 잊을수 없는 은인이였다. 그는 어려운 때에 나를 찾아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고마운 녀성이였다.》

청년공산주의자 강원도(남) 울진군에서 출생하였다.

1920년대초에 중국 동북지방의 쟈오하(교하)현으로 이주하여 소학교를 졸업한 후 지린녀자중학교에 다니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류지학우회 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반제청년동맹원으로서 주체16(1927)년 8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모임에 참가하여 그 성원으로 되였다. 그후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을 확대강화하며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주체17(1928)년 10월부터 벌어진 지린(길림)－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 일본상품배척투쟁에서 선전대 책임자로서 활동하였다. 주체18(1929)년초에 학교를 중퇴하고 쟈오하에 가서 조직과의 련계밑에 혁명투쟁을 계속하였다. 주체19(1930)년 8월부터 둔화, 하얼빈 등지에서 좌경모험주의적인 5.30폭동과 8.1폭동의 후과를 가시며 국제당과의 련계를 가지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보좌하였다. 그후 하얼빈에서 공청을 비롯한 혁명조직을 복구정비하고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다가 주체19(1930)년 가을에 경찰에 체포되였다. 신의주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받으면서도 혁명가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냈으며 출옥후 중국 단둥시에서 제화로동도 하고

서울에서 식모살이도 하면서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조직선을 찾아 모대기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근처에서 녀맹조직을 책임지고 전선원호사업을 잘하였으며 남편이 피살된 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찾아 평양에 들어왔다가 적들의 야만적폭격으로 희생되였다.

손정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손정도목사는 내가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한 전기간 나를 친혈육에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사람이였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고있었다. 같은 학교(숭실중학교) 출신이라는 관념도 작용하였지만 그보다는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이 아버지와 손정도를 뜨거운 우정으로 결합시키였다고 생각한다.》

호는 해석(바다의 돌)이다. 손정도목사는 1912년에 만저우에서 선교활동을 벌리던중 가쯔라 다로암살혐의로 체포되여 진도에서 2년동안 류배살이를 하였다. 3.1운동직후 중국에 망명하여 상하이림시정부에서 의정원 의장직을 맡아보았으며 상하이에서 김구, 조상섭, 리유필, 윤기섭 등과 함께 무력항쟁을 담당할 군사인재양성의 사명을 띤 로병회를 조직하고 그 단체의 로공부장으로도 활약하였다. 그러나 로병회가 해산되고 림시정부내부에서 파벌투쟁이 심해지자 그에 환멸을 느끼고 자리를 옮기였다. 지린에 와서 례배당을 하나 꾸려놓고 독립운동을 하였으며 조선인려지학우회의 고문으로도 있었다. 손정도목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린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전기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정도목사의 례배당을 대중교양장소로 널리 리용하시였으며 조선인지린소년회도 이 례배당에서 결성하시였다.

주체20(1931)년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차천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그날밤 차천리로인이 해준 말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조선사람들은 비록 셋이 모여도 단결하여 일제와 싸워야 한다고 한 로인의 말은 그후 우리의 투쟁에서 큰 교훈으로 되였다.

연예선전대를 데리고 사람들속으로 들어가면 군중을 깨우쳐주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중에게서 배우기도 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의 선생은 역시 인민이였다.

그래서 나는 일군들을 만날 때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고 간곡하게 말하군 한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은 보약을 먹는것과 같고 들어가지 않는것은 독약을 먹는것과 같다고 늘 강조하군 한다. 인민들속에 들어가야 차천리 같은 로인도 만날수 있다.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정치경제학도 있다.》

20세기초의 반일의병대장이다.

천리는 걸음을 빨리 걷는다고 하여 붙은 그의 별명이다. 포수집안에서 태여난 그는 로일전쟁시기 일제가 강계지방에 기여들어 학살과 략탈을 감행하고 그곳에 있는 조선군대까지 강제해산하자 강계포수들을 비롯한 애국적인민들을 모아 반일의병대를 조직하고 투쟁을 벌리였다.

그는 적기관들을 파괴소각하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1910년 가을 중국 동북지방으로 가서 참의부에 소속되여 독립군활동을 계속하였으며 말년에는 툰지동(두지동)에 거처하여 생활하였다.

주체17(1928)년 2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예선전대를 데리고 툰지동에 가시였을 때 집에 초대하였으며 젊은 세대들이 잘 싸워달라고 간절한 부탁을 드리였다.

그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애국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싸웠으며 테로를 당하여 희생되였다.

상위에(상월)(1902－198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

과 같이 쓰시였다.

《사람에게 한생을 두고 회고할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인간이다. 그러니 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다.

나의 청춘시절에 지울수 없는 자국을 새긴 상월선생이 그리워질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육문중학교 교정을 거닐어보군 한다.》

1920년대말 지린육문중학교 어문교원. 중국공산당원이다. 베이징대학 영문학부를 졸업하고 교원이 되였다. 주체15(1926)년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여 공산주의운동에 참가하였다. 농민운동을 지도하다가 국민당군벌에게 체포되여 저쟝(절강)성 륙군감옥에 1년남짓한 기간 구금되였으며 주체17(1928)년초에 보석으로 출옥한 후 지린5중학교와 지린육문중학교에 입직하여 어문과목교수를 하였다. 이무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뵙고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도와드렸으며 청년학생들앞에서 계몽강의도 하였다. 한편 주체17(1928)년 여름 동맹휴학에 참가하였다가 부당하게 출학처분당한 학생들의 복교를 위하여 싸우다가 철직되였다. 그후 하얼빈, 상하이, 베이징, 한커우(한구), 충칭(중경), 옌안(연안) 등지에서 당사업과 교육사업, 문학활동 등에 참가하였으며 만저우(만주)성당위원회 비서장으로도 사업하였다. 루쉰(로신)의 친구로서 그가 지도한 문학소조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창작생활도 하였다. 혁명승리후 베이징에 있는 중국인민대학 교수로 활동하다가 사망하였다. 그의 유해는 베이징의 바바오산(팔보산)렬사릉에 안장되여있다. 저작으로서는 론문 《나와 소년시절의 **김일성**원수와의 력사적관계》와 《중국력사강요》, 단편소설 《예모》, 《도끼등》과 장편소설 《창》, 《개문제》 등이 있다.

리광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리광한은 중국민족주의좌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은래총리의 중학시절동창이였고 어려서부터 주총리의 영향을 받은 량심적인 지

식인이였다.》

중국의 량심적인 지식인. 주체1(1912)년경 중국 티엔진(천진)에 있는 남개대학부속 중학교에 다니였으며 저우언라이(주은래)와 함께 공부하면서 그의 혁명적영향을 받았다. 졸업후 민족주의좌파에 속하여있으면서 량심적으로 사업하고 공산주의운동을 지지하였다. 1920년대 중엽 지린성 지린시의 지린육문중학교 교장으로 되였다. 쟝쭤상(장작상)군벌에게 매수된 반동적인 교원들을 증오하고 진보적인 교원들의 편에 서있었다. 주체16(1927)년 1월 지린육문중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나라찾는 일에 한몸바치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포부를 듣고 적극 지지해나섰으며 그후 군벌당국과 반동교원들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수령님의 신변안전과 혁명활동을 힘껏 보장해드렸다.

주체20(1931)년 3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위수에서 창춘쪽으로 가시다가 체포되시여 옥중생활을 하실 때에도 군벌당국에 찾아가 강력한 항의를 들이대여 수령님께서 출옥하시는데 기여하였다. 9.18사변후 반일투쟁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주체24(1935)년 지린성 반만항일구국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린성내의 애국적인 교육인사들과 함께 투쟁을 계속하였다.

리준(1859-1907)

헤그만국평화회의에 리조봉건정부의 밀사로 파견되였다가 자결한 애국충신.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태여났다. 1887년 고향에 경학원을 세우고 운영하였으며 그후 일본에 가서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돌아와 재판소 검사로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근대적인 정치계몽운동단체인 독립협회에 관계하였으며 일제의 토지략탈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섰다. 1904년 12월 친일주구단체인 《일진회》와 대결하기 위하여 정치계몽단체인 《공진회》를 조직하고 친일주구들과 부패한 봉건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렸다. 《공진회》가 강제해산당한 후 애국문화운동자들과 함께 1905년 5월에 《헌정연구회》(정치계몽운동단체)를, 1906년 10월에는 《한북흥학회》를 내오고 청소

년들과 대중속에 애국심과 반일사상을 고취하였다.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벌어진 국채보상운동의 앞장에 서서 활동하였다. 1907년 6월 《을사5조약》의 비법성을 선포하고 세계의 정의와 인도주의에 호소하여 국권을 보존하려던 고종황제의 편지를 가지고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데를란드의 수도 헤그로 갔다. 회의 의장에게 고종의 밀서를 전했으나 미제와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회의장에서 퇴장당하게 되자 배를 갈라 자결함으로써 조선민족의 견결한 독립정신을 보여주었다.

안중근(1879－19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리준은 제국주의렬강대표들의 면전에서 스스로 배를 갈라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정신을 보여주었고 안중근은 할빈역두에서 이등박문을 격살하고 독립만세를 웨쳐 조선사람의 기개를 과시하였다.》

반일애국렬사. 어릴 때의 이름은 응칠이다. 황해남도 해주에서 진사의 맏아들로 태여났으며 17살때부터 군사학을 연구하였다. 1906년에 남포시(당시 삼화부)에 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들속에 반일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총다루는 법도 가르쳤다. 1907년말 중국동북지방을 거쳐 연해주로 갔으며 이 지역에 기지를 두고 군사활동을 벌렸다. 1908년 반일의병대를 조직하고 참모중장으로 되였다. 1909년 6월 30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함경북도 경흥, 회령지방에서 일본수비대를 습격하였다. 그후 테로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1909년 10월 26일 조선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이또 히로부미)을 할빈역두에서 권총으로 쏴죽이고 독립만세를 웨쳐 조선사람의 기개를 과시하였다. 일제에게 체포되여 1910년 3월 26일 뤼수(려순)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였다.

고리끼(1868－1936)

쏘련의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창시자. 원래 이름은 알렉쎄

이 막씨모비츠 뻬슈꼬브이다. 니쥬니노브고로드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여났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11살때부터 상점, 기선식당들에서 로동을 하면서 자습으로 맑스주의를 학습하고 문학수업도 하였다. 19세기 90년대부터 체계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1898년에 2권으로 된 그의 수필과 단편집이 출판되여 이름이 알려졌다. 이때부터 체호브, 똘스또이와 사귀게 되였다. 1905년 로씨야혁명에 참가하였으며 레닌을 처음으로 만나고 그해 여름 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그후 이딸리아의 카프리섬에서 망명생활을 하였다. 1917년 사회주의10월혁명후에는 쏘베트사실주의문학발전에 자기의 정열을 바쳤다. 1934년에 소집된 제1차 쏘베트작가대회에서 첫 쏘베트작가동맹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1936년 6월 18일 뜨로쯔끼, 부하린도당에 의하여 암살되였다. 희곡 《원쑤들》, 장편소설 《어머니》, 《아르따모노브일가의 사업》을 비롯하여 수많은 소설, 희곡, 시들을 남기였다.

루쉰(로신) (1881. 9. 25－1936. 10. 19)

중국의 작가. 중국인민의 새 문화의 길을 개척하고 그 발전방향을 세운 혁명적작가이다.

루신의 작품들은 중국봉건통치제도의 부패상을 폭로하고 자유와 새 생활을 념원하는 인민들의 지향을 진실하게 형상하였기때문에 중국인민들을 민주주의혁명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루신은 1902년에 일본으로 류학가서 의학을 전공하였으나 문학으로 중국인민을 각성시키려는 뜻을 품고 문학수업을 하고 1909년에 귀국하였다.

1919년 5. 4운동전야에 본격적인 문학창작활동을 시작하였으며 5. 4신문화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이 운동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대표작인 중편소설 《아큐정전》(1921년)을 비롯하여 여러 소설작품들을 내놓았는데 이것들은 《미친 사람의 일기》(1918년)와 더불어 소설집 《웨침》(1923년)에 묶어졌다.

이 소설들은 당시 중국의 사회적면모를 보여주면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하층인민들의 간고한 생활과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억압착취에 대한 증오를 반영하였다.

1924년～1926년사이에 《축복》(1924년)을 비롯한 단편소설 11편을 써서 소설집 《방황》(1926년)에 묶어 내놓았으며 산문시집과 잡문집들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은 외래제국주의자들, 봉건관료들, 군벌들, 그 앞잡이들인 반동문인들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비판정신과 강한 정론성을 띠고있다.

1927년에 상하이로 가서 그곳에서 직업적인 작가생활에 들어섰다. 이때로부터 생애말기까지 그는 중국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정력적인 활동을 벌렸다.

그는 자기의 다방면적인 창작활동으로써 중국인민들을 민주주의혁명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으며 중국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쟝광츠(장광자)(1901－1931)

중국의 작가. 소상인가정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릴 때 집을 떠나 방랑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다. 1919년 5.4운동에 참가하였으며 1920년에 상하이사회주의청년단에 가입하였다. 그해에 조직의 지시로 쏘련에 류학하여 모스크바동방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1922년에 그곳에서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다. 1925년에 귀국하여 상하이대학 교수로 있었으며 1928년에 문학단체 《태양사》를 조직하고 잡지 《태양월간》, 《시대문예》, 《개척자》 등을 발간하였다. 그해에 일본에 건너가 이 나라의 좌익작가들과 련계를 가졌으며 1929년에 귀국하여 잡지 《해풍주간》 주필로 사업하면서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벌리였다. 그는 쏘련류학시기에 시창작을 시작하여 불과 10년남짓한 짧은 창작생활기간에 많은 시와 소설을 발표하였다. 그가운데는 《새꿈》(1925년), 《중국을 슬퍼하노라》(1927년)와 같은 시집도 있으나 소설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특히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혁명의 길에 나서는 청년의 형상을 창

조한 중편소설 《소년방랑자》(1925년), 조선인민의 반일애국투쟁을 반영한 단편소설 《압록강가에서》(1926년), 상하이로동계급의 제3차 무장봉기를 형상한 중편소설 《반바지를 입은 당》(1927년) 등은 당시 중국프로레타리아문학의 성과작들이다. 작가는 또한 중편소설 《들제》, 장편소설 《최후의 미소》, 《전야의 바람》(일명 《울부짖는 땅》 1932년 출판)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그의 혁명적인 작품들은 광범한 중국청년들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작용하였으며 중국프로레타리아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차오쉬에친(조설근)(1723－1763)

중국 청나라 작가. 강희제의 특별대우를 받은 귀족관료가정에서 출생하였다. 10살때 황실의 왕위쟁탈전에 말려들어 가문이 파산된 후 베이징교외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40살의 짧은 생애를 《홍루몽》창작으로 보냈다.

이등박문(이또 히로부미. 1841－1909)

일제의 초대 조선통감, 조선인민의 흉악한 원쑤. 애명은 십길, 리보, 중보 등이며 호는 춘묘이다.

일본의 사무라이가정에서 출생하였다. 1867～1868년 막부세력을 반대하는 국내전쟁에 참가하였다.

《명치유신》후 봉건적전제집단안에서 정치활동을 계속하였다. 군부우두머리들과 여러차례 권력쟁탈전을 벌리였으며 일본정부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지지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침략에 외교전을 배합할것을 주장하였다. 1876년 침략적인 《강화도조약》체결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1885년 《천진조약》체결에도 참가하였다.

일본에서 1885년에 내각제도를 처음으로 내올 때 총리대신으로 되였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 이자리에 들어앉았다. 1888년에는 추밀원 의장으로 되였고 청일전쟁(1894～1895)후 타이완(대만) 사무총재를 겸임하였다.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나자 많은 군대를 조선에 들여보낼데 대하여 주장하였으며 1898년에는 직접 조선에 기여들어와 리조봉건정부의 내정을 탐지하였다.

1904년 3월 추밀원 의장으로서 《특파대사》라는 명목으로 서울에 기여들었다. 1905년 또다시 조선에 기여들어와 사기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일제의 첫 조선통감으로 들어앉았다.

1909년 10월 조선과 만저우에 대한 일제의 독점적식민지지배를 인정받기 위하여 짜리로씨야 재정부장과 회담을 할 목적으로 중국의 하얼빈에 갔다가 조선의 애국청년인 반일의병대 지휘관 안중근에 의하여 처단되였다.

조직, 단체

새날소년동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소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고 혁명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무송시내와 그 일대의 애국적인 소년들로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하였다. 그때가 1926년 12월 15일이였다. 새날소년동맹은 말그대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광복할 새날을 위하여, 낡은 사회를 짓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할 광명한 새날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적소년조직이였다.

새날소년동맹의 결성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활동규모를 넓혀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초기에 조직하신 우리나라에서의 첫 혁명적소년조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5(1926)년 12월초에 화성의숙을 중퇴하시고 푸쑹으로 오시여 이 일대의 소년들로 조직을 무으시기 위한 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푸쑹시 조선소년들

의 모임을 여시고 청소년들이 반일투쟁에 참가할데 대해서와 소년조직을 내올 필요성과 그 성격, 명칭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그리고 모임후에는 소년조직을 내오기 위한 정치교양사업과 조직사업, 동맹의 강령과 규약, 작성 등 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주체15(1926)년 12월 15일 백산학교에서 새날소년동맹을 결성하는 모임을 소집하시였다. 모임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년들은 혁명조직에 굳게 뭉쳐 나라찾는 싸움에 떨쳐나서자》**라는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소년들의 투쟁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무어야 할 필요성과 동맹의 성격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소년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회의에서 조국해방과 새 사회를 지향하는 소년들의 정치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이 결성되였다는것을 선포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동맹지도기관이 선거되였으며 위원회안에 조직부, 선전부, 통신부, 위생부를 두기로 토의결정하였다. 그리고 부락단위로 지부를 조직하며 지부아래에 조를 조직하도록 하였으며 동맹규약이 발표되였다.

새날소년동맹의 결성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활동규모를 넓혀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소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새날소년동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의 소년혁명조직으로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반일부녀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1926년 12월 26일에는 〈ㅌ.ㄷ〉와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한 경험에 토대하여 어머니를 도와 반일부녀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녀성대중조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방조밑에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 주체15(1926)년 12월 26일 푸쑹에서 조

직하시였다.

반일부녀회의 투쟁목적은 장차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당면하게는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해방을 성취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이룩하는것이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부녀회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반일부녀회의 첫 회장으로 추대되시였다.

반일부녀회의 결성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반일부녀회조직은 푸쑹과 그 주변농촌마을들을 비롯하여 백산지구의 넓은 지역에 확대되였으며 1930년대초에는 카룬, 구위수, 우쟈쯔(오가자)일대와 두만강연안 유격구일대에 그리고 주체25(1936)년 5월 조국광복회가 창건된 이후에는 그 산하조직으로 되여 조선과 중국 동북지방의 많은 지역에까지 조직망을 넓혀나갔다.

반일부녀회는 부녀회원들을 통신련락, 적정탐지, 유격구보위, 유격대에 대한 원호사업 등 적극적인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특히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녀성들속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광범한 녀성들을 묶어세움으로써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고 녀성핵심들을 무장대오에 입대시키며 조선인민혁명군을 각 방면으로 지지성원하는 투쟁을 조직전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일부녀회는 조선녀성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았으며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앞당기는데서 자기앞에 맡겨진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조선인지린소년회(조선인길림소년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가 길림에서 처음으로 내온 조직은 조선인길림소년회였다. 그때 길림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소년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뿐이고 길림시내의 조선소년들은 그런 조직이 있는지조차 모르고있었다. 우리는 1927년 4월에 손정도네 례배당에서 조선인길림

소년회라는 합법적조직을 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초시기에 무으신 조선소년들의 합법적혁명조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6(1927)년 4월 10일 조선인지린소년회를 조직하는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인지린소년회를 조직해야 할 필요성과 목적을 해설하시고 그 성격과 당면한 투쟁과업을 밝히시였으며 강령과 규약을 발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인지린소년회 명예회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조선인지린소년회의 목적은 소년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지린소년회는 독서회, 토론회, 연예회, 운동회 등의 형식과 방법으로 소년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고 육체적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줄기차게 벌렸다. 특히 매해 5월 첫주 일요일을 《소년회날》로 정하고 그날에 진행된 운동회, 연예회 등은 소년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그들을 조선혁명의 기둥감으로 준비시키며 각계각층 군중들을 단결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조선인지린소년회의 활동경험과 업적은 우리 나라 청소년운동의 고귀한 재부로, 밑천으로 되였다.

조선인류지학우회(조선인류길학우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조선인류길학우회는 겉으로는 조선인청년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표방하였지만 실지로는 〈ㅌ. ㄷ〉의 리념을 실현하는 혁명적인 학생청년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조선인려길학우회를 조선인류길학우회로 개칭하고 그것을 순수한 친목단체로부터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한것은 우리가 청년학생운동을 하면서 얻은 하나의 큰 경험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지린에서 조선인려길학우회를 개편하시여 조직하신 혁명적인 학생대중단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소년학생들로 비합법적인 혁명조직을 내오기 위한 사업과 함께 합법적인 학생조직들을 혁명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6(1927)년 5월 8일 조선인려지학우회(조선인려길학우회)를 조선인류지학우회로 개편하는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인려지학우회를 조선인류지학우회로 명칭을 고칠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류지학우회의 활동방향과 과업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회의에서는 일치한 의사로 조선인려지학우회를 조선인류지학우회로 개칭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인류지학우회는 겉으로는 조선인청년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표방하였지만 실지로는 《ㅌ. ㄷ》의 리념을 실현하는 혁명적인 학생청년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인류지학우회는 반제적립장이 뚜렷하고 사상의지적으로 단합된 광범한 청년학생들의 합법적인 혁명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반제청년동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반제청년동맹은 〈ㅌ. ㄷ〉의 구호를 그대로 내세우고 그 강령을 그대로 계승한 반제적이고 대중적인 비합법적청년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16(1927)년 8월 27일 지린에서 조직하신 대중적성격을 띤 비합법적청년혁명조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하부조직들이 수많이 무어지고 광범한 청년학생들속에서 반일기운이 높아지게 되자 《ㅌ. ㄷ》를 개편하시여 많은 사람들을 망라할수 있는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시였다. 반제청년동맹은 《ㅌ. ㄷ》의 구호를 그대로 내세우고 그 강령을 그대로 계승한 반제적이고 대중적인 비

합법적청년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제청년동맹의 조직은 원광(문광)중학교, 지린제1중학교, 지린제5중학교, 지린사범학교, 지린녀자중학교, 지린법정대학을 비롯하여 조선학생들이 있는 시내의 모든 학교들에는 물론 쟝둥(강동), 신안툰을 비롯한 지린주변의 농촌지역과 류하, 화디엔, 싱징(흥경), 창춘, 둔화, 선양(심양) 등 넓은 지역에까지 확대되였다.

반제청년동맹은 도시와 농촌들에서 학교와 야학의 운영, 인민대중속에서의 강연, 연예공연과 혁명가요 보급, 각종 출판물의 발행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청년들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반일사상과 계급의식으로 무장시켜 반동교원들과 반동군벌 그리고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반제청년동맹은 광범한 반일청년대중을 혁명대렬에 묶어세우며 반일투쟁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고 여러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로 무어진 반제민족해방과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비합법적인 청년조직이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각계각층 대중단체들을 조직지도하는 전위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결성하신 조선청년들의 혁명적전위조직.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주체16(1927)년 8월 28일 지린에서 결성되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갈 사명을 지니고 여러 청년단체들과 소년단체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며 당조직이 나올 때까지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령도에서 전위적역할을 수행하

여야 할 조직이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결성은 조선에서 진정한 혁명적청년전위조직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적사변으로서 우리 나라 청년운동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지하활동의 조건에 맞게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도록 조직지도체계를 세웠다.

공청조직에서는 공청원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정기적인 회의와 함께 한달에 한번씩 공청원들이 자기의 생활을 비판총화하는 성격검토회를 조직하였으며 강한 조직생활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여나갔다.

공청은 투쟁을 통하여 단련된 우수한 청년들을 조직에 받아들여 그 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갔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짧은 기간에 지린시와 그 주변은 물론 둔화, 싱징, 화디엔, 푸쑹, 안투, 판스(반석), 창춘, 하얼빈 등 만저우의 넓은 지역과 북부조선일대를 비롯한 국내깊이에까지 그 하부조직이 확대되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19(1930)년 7월 3일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로 첫 당조직인 건설동지사를 결성하신 이후에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활동하였다.

공청조직은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된 후 무장대오안에도 무어졌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공청은 난후터우(남호두)회의방침에 따라 주체25(1936)년 3월 청년들의 대중적혁명조직인 조선반일청년동맹으로 발전적으로 개편되였다.

농민동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직하신 농민

들의 혁명적인 대중단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된다는 독창적인 사상과 농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주체17(1928)년 3월 10일 신안툰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혁명적인 농민동맹을 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이 조직을 확대하여나가시였으며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밑에 있던 《농우회》, 《농민회》 등을 농민동맹으로 개편하시였다.

반일로동조합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는 류길학우회 성원들을 발동하여 송화강선창을 중심으로 로동자야학을 조직하고 3.1인민봉기기념일이나 5.1절, 국치일 같은 때 그들을 찾아가 연설도 하고 연예공연도 하였다. 이런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1928년 8월에 반일로동조합을 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어주신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로동자조직.

주체17(1928)년 8월 25일 지린에서 조선인로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였다.

반일로동조합은 지린화력발전소에 본부를, 철도기관구와 성냥공장, 방직공장, 정미공장 등 지린지구의 공장, 기업소들에 지부를 두고 합법적단체인 한성회(1927년 봄 조직)를 통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반일로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우리 나라 로동운동은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혁명적정치조직의 지도밑에 전진하게 되였다.

한성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

음과 같이 쓰시였다.

《당시 길림에는 화력발전소, 철도기관구, 성냥공장, 방직공장, 정미공장과 같은 크고작은 공장들이 적지 않았지만 로동계급을 망라하는 신통한 조직은 없었다. 다만 1927년 봄에 조선인로동자들의 취직과 생활편의를 도모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성회가 조직되였을 뿐이였다.》

조선인로동자들의 합법적단체.

주체16(1927)년 봄 지린에서 조선인로동자들의 취직과 생활편의를 도모할것을 목적으로 조직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17(1928)년 8월 우리 나라에서 첫 혁명적로동자조직으로 결성하신 반일로동조합을 통하여 한성회를 움직이게 하심으로써 이 합법적단체의 정치적인 경향은 뚜렷해져갔다. 한성회는 주체17(1928)년 지린(길림)—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에서 한몫하였으며 주체18(1929)년에는 원산로동자들의 총파업을 돕기 위해 동정금을 모아 원산로동련합회에 보내였다. 그리고 주체19(1930)년 여름 조선에서 있은 수재때에는 여러 조선인단체들과 협동하여 구제회를 뭇고 수재민들을 위해 의연금을 수집하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려신청년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당시 교하현에서는 랍법산을 경계로 서북쪽에서 려신청년회가 활동하고 동남쪽에서는 랍법청년회가 활동하였다. 교하일대의 조선청년들은 대체로 이 두 청년단체에 망라되여있었다.》

정의부산하의 청년단체.

1924년경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쟈오하(교하)에서 조직되였다. 이 청년회는 쟈오하현의 라파(랍법)산 서북쪽 청년들을 망라하여 그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강명근을 비롯한 려신청년회의 일부 간부들과 핵심들은 자리다툼이나 하고 군자금이나 모아 사욕을 채우는 민족주의우두머리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참다운 지도자를 갈

망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려신청년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를 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7(1928)년 5월 려신청년회에 망라되여있는 5명의 핵심성원들로 쟈오하반제청년동맹지부를 무어주시고 그들이 려신청년회의 합법성을 리용하여 대중을 투쟁에로 동원할데 대한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그후 그들은 민족주의영향으로부터 떨어져나와 새로운 혁명적인 길을 걷게 되였다. 그들은 주중청총에 이 청년단체를 끌어들이려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려신청년회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강화해나갔으며 대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많은 청년들을 혁명의 길로 이끌어나갔다.

라파(랍법)청년회

쟈오하일대에 조직되였던 청년조직.

1926년경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중국 지린성 쟈오하현 라파지구 청년들로 조직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린육문중학교에 적을 두고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라파청년회 일군들을 만나시여 꾸준히 교양하시는 한편 《ㅌ. ㄷ》성원들을 파견하시여 이 회의 선진적인 청년들을 장악하고 혁명적영향을 주며 그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라파청년회로 하여금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이를 위하여 선진사상으로 무장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강령을 내세우고 활동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라파청년회의 일군들은 청년들속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보급하는 한편 광범한 대중을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려신청년회와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일제의 만저우침공을 반대하는 강연회와 강습, 종파분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비렬한 파벌싸움과 반일투쟁에 끼친 그들의 죄행을 폭로하는 성토대회

를 공동으로 조직하였으며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힘썼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라파청년회는 민족주의와 종파주의영향으로부터 떨어져나와 새로운 혁명의 길을 걷게 되였다.

비밀독서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화전에서 얻은 경험을 참작하여 뜻이 통하는 몇몇 동무들로 먼저 육문중학교안에 비밀독서조를 조직하였다. 비밀독서조는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을 맑스-레닌주의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을 사명과 목적으로 하였다. 이 조직은 매우 빠르게 자라서 얼마후에는 문광중학교와 제1중학교, 제5중학교, 녀자중학교, 사범학교를 비롯한 길림시내의 여러 학교들에 확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을 로동계급의 선진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하여 조직하신 비합법적대중조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6(1927)년 1월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지린으로 옮기신 직후 지린육문중학교안에 비밀독서조를 조직하시고 점차 원광(문광)중학교, 제1중학교, 제5중학교, 녀자중학교, 사범학교를 비롯한 지린시내의 여러 학교들에 확대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지린육문중학교 도서주임으로 선거되신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광범한 청년학생들속에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서조성원들의 대렬이 늘어나자 독립운동자들이 경영하는 정미소의 방 한칸을 얻어 류지학우회성원들로 하여금 자체로 도서실을 운영하게 하시였다.

한편 독서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웅변대회 등을 자주 조직하시고 몸소 지도해주시였다.

비밀독서조는 수많은 청년학생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학생자치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린육문중학교에 적을 두시고 혁명활동을 진행하시던 시기 시안의 여러 학교들에 조직된 청소년학생들의 합법적조직.

학생자치회는 지린육문중학교를 비롯하여 지린녀자중학교, 지린사범학교, 지린제5중학교 등에 조직되여있었다.

학생자치회에는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원들이 망라되여있었으며 자치회는 그들의 지도밑에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학교당국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을 정치투쟁에 참가시키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17(1928)년 10월 일제의 지린—회령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시위투쟁을 조직령도하시면서 류지학우회와 소년회 등 청소년학생들의 합법적조직들을 동원시키도록 취하신 조치에 따라 학생자치회는 이 투쟁에로 학생들을 조직동원하여 비합법적혁명조직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백산청년동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소년동맹사업을 추켜세운 다음에는 무송지방의 핵심청년들로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 백두산주변에 있는 청년들의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백산청년동맹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나 그 단체는 사실상 반제청년동맹의 변신이였다. 우리가 그 조직에 백산반제청년동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저 청년동맹이라고 한것은 적들에게 혼란을 주고 조직을 위장시키기 위해서였다. 백산청년동맹은 민족주의영향하에 있는 단체처럼 변장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직하신 대중

적반일청년조직.

주체16(1927)년 12월 20일 푸쑹에서 조직되였으며 여기에는 푸쑹을 중심으로 한 백두산주변일대의 로동자, 농민출신 청년들은 물론 민족주의단체나 독립군에 관계하였던 청년들까지 광범히 망라되였다.

동맹의 투쟁목적은 선진사상을 연구하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동맹은 짧은 기간에 푸쑹일대뿐아니라 안투, 둔화, 창바이, 린쟝 등 백두산일대의 넓은 지역에 그 조직망을 확대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광범한 청년들을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시는 한편 백산청년동맹으로 하여금 새날소년동맹의 사업을 도와주며 대중을 교양하여 혁명력량을 확대강화하는데 힘쓰도록 하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는 이 시기 백산청년동맹의 지도성원으로서 동맹의 확대강화와 사업발전에 모든 정력을 다하시였다.

특히 창바이지방에서 백산청년동맹의 산하조직을 결성하시고 그 대렬을 확대해나가시였다.

백산청년동맹은 정치군사훈련소를 설치하고 수많은 정치공작원들과 유격대원후비들을 육성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자기 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강연, 해설담화, 선전대활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광범한 군중속에서 반일애국사상과 선진사상을 적극 선전함으로써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쟈오하(교하)반제청년동맹지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 쟈오하지방에 무어주신 반제청년동맹의 지부.

주체17(1928)년 5월 정의부산하 청년단체인 려신청년회에 들어가있던 5명의 핵심청년들을 망라하여 조직되였다.

조직된지 1년후에는 쟈오하지방에 4개의 반제청년동맹지부가 나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밀에 쟈오하반제청년동맹지부는 쟈오하지방의 청년들속에서 선진사상을 보급하며 광범한 대중을 일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벌려나갔다. 이 과정에 참신한 공산주의핵심청년들이 자라나게 되였다.

연예선전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1927년 겨울방학의 활동가운데서 가장 이채로왔다고 말할수 있는것은 연예선전대의 활동이였다. 무송의 연예선전대에는 새날소년동맹원들과 백산청년동맹원들, 부녀회원들이 망라되였다. 이 연예선전대가 무송과 그 주변의 농촌부락들을 돌아다니면서 한달가량 순회공연을 하였다. 우리는 순회공연을 하면서 도처에 조직도 꾸리고 군중계몽도 하였다. 〈혈분만국회〉,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딸에게서 온 편지〉와 같은 연극들은 다 그해 겨울에 우리가 무송에서 창작하고 공연한 작품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항일혁명투쟁초기에 조직되여 활동한 청소년들의 예술선전대오.

지린에서는 조선인지린소년회원들과 조선인류지학우회성원들로, 푸쑹에서는 새날소년동맹원들과 백산청년동맹원들 및 부녀회원들로, 카룬, 구위수, 우쟈쯔 등지에서는 진명학교, 삼광학교, 삼성학교를 비롯한 여러 혁명적인 학교의 소년탐험대원들로 조직되였다.

연예선전대의 기본사명은 정치선전과 함께 가요, 가무, 연극 등 혁명적인 예술작품들을 가지고 공연활동을 벌려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키고 교양하여 그들을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예선전대가 자기 사명을 다하도록 하

기 위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로 공연의 종목을 선정해주시고 그 준비사업을 세심히 보살피시였으며 선전대의 구체적인 활동방향까지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몸소 연예선전대를 이끄시고 순회공연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군중들앞에서 선동연설도 하시였다.

그리하여 합창조, 중창조, 무용조, 연극조, 가무조 등 여러조로 무어진 연예선전대는 지린과 푸쑹은 물론 멀리 창춘과 둔화, 화디엔 등 여러 지방으로 순회하면서 연예선전활동을 적극 벌렸다.

연예선전대원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광범한 군중에게 선동연설, 강연회, 해설담화, 혁명가요보급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해설선전하고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를 비롯한 혁명가요들과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와 가무 《단심줄》, 《13도자랑》 등을 가지고 공연을 하였다.

이러한 연예선전활동을 통하여 연예선전대원들은 인민대중을 계몽각성시키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을뿐아니라 자신들도 참된 정치활동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하얼빈(할빈)공청지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 하얼빈에 조직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지부. 주체19(1930)년 봄에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얼빈시의 청년학생들속에서 주체17(1928)년 봄에 조선인학우친목회를, 이해 여름에는 독서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이러한 합법적조직들의 활동과정을 통하여 비합법적혁명조직을 내올수 있는 조직적기초를 마련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토대에 기초하여 주체17(1928)년 가을에 반제청년동맹 하얼빈지부를 결성하게 하시고

주체19(1930)년 봄에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하얼빈지부를 결성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하얼빈지부는 이 일대의 광범한 청년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조선인학우친목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 중국 동북의 하얼빈에 합법적형태를 띠고 조선인청년학생들로 조직된 혁명적인 학생단체.

주체17(1928)년 봄에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린을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 혁명조직성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시여 합법적 및 비합법적혁명조직들을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전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하얼빈에 미치기 시작한것은 주체16(1927)년말부터였다.

주체17(1928)년 봄 하얼빈에서는 20여명의 청년학생들로 조선인학우친목회가 조직되였다.

조선인학우친목회는 지린에서 조직된 조선인류지학우회와 마찬가지로 표면상 조선인청년학생들의 호상 협조친목을 도모하는 합법적형태를 띤 단체였으나 청년학생들에게 로동계급의 선진사상을 보급하고 핵심들을 키워냄으로써 하얼빈에 반제청년동맹을 내올수 있는 조직적기초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리하여 주체17(1928)년 가을에는 15명의 핵심청년들로 반제청년동맹 하얼빈지부를 결성할수 있었다.

문예작품, 출판물

《새날》 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1928년 1월 15일 우리는 드디여 〈새날〉이라는 제호를 단 신문의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았다.》

우리 나라의 첫 주체형의 혁명적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17(1928)년 1월 15일 푸쑹에서 창간하시였으며 주간신문으로 발간되였다.

창간호신문은 가느다란 검은색줄로 안테두리를 둘러쳤으며 오른쪽 웃면에 굵은 테두리선을 치고 그안에 《새날》이라는 제호를 큼직하게 내려썼다. 신문제호밑에는 《창간호》라는 글을 쓰고 그밑에 발간년월일을 밝혔다. 신문의 편집형식은 전체 면을 우에서 아래로 세등분하여 굵은 줄을 치고 또 그 사이사이에 가느다란 줄을 쳐서 6단으로 만들었다.

《새날》신문의 사명은 청소년들과 광범한 군중을 일제를 반대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며 조국광복의 성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문의 제호를 새날을 지향하는 소년들의 혁명적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의 머리글자를 따서 **《새날》**이라고 달아주시고 몸소 **《신문 〈새날〉창간호를 내면서》**라는 창간사를 쓰시였으며 신문발간사업을 세심하게 지도하시였다. 발간된 《새날》신문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신 사론설을 비롯하여 《공산당선언》, 《자본론》 등 맑스주의고전을 해설한 원고들과 인류사회발전사 그리고 일제의 조선침략과 그 식민지통치, 지주, 자본가의 착취적본성을 폭로하는 기사들, 봉건유습을 타파하기 위한 글들과 과학지식, 문화계몽자료 등이 실렸다.

《새날》신문은 청소년들과 각계각층 광범한 군중들의 커다란 관

심속에 널리 보급되여 애독되였으며 새날소년동맹에서는 물론 반제청년동맹, 공청, 부녀회조직들에서도 학습교재로, 대중선전수단으로 리용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가요 《조선의 노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에 친히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 나라를 빼앗기고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소년들에게 조선의 넋을 심어주고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깊은 뜻을 안으시고 이 노래를 창작하시였다. 노래는 당시 발간된 《새날》신문에 발표되였으며 소년들과 광범한 인민들의 사랑속에 널리 보급되였다. 아름다운 우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되찾고 세계에 빛나는 인민의 나라로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애국심을 노래한 가요이다.

가사에서는 금은보화 넘치는 삼천리금수강산 우리 조국에 대한 생동한 형상과 조국땅우에 인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나라를 세울데 대한 통속적인 시적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사상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리상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하고있다. 또한 조국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뜨겁게 토로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인민적인 음악형식으로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구현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가요예술의 귀중한 혁명전통으로, 대중가요창작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고있다.

1.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내 나라
   이 세상 그 어데 찾아볼수 있을가

2. 삼천리 강산에 은금보화 넘치고
반만년 력사를 자랑하는 내 나라
간악한 왜놈들 이 땅에서 내쫓고
해방의 종소리 높이높이 울리자

3. 왜놈도 지주도 모두 없는 새 조선
자유의 강산에 우리 주권 세우자
슬기론 인민이 살아가는 내 나라
우리의 손으로 길이길이 빛내자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작하신 혁명연극.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주체17(1928)년 1월 푸쑹에서 첫 공연이 있었으며 그후 여러 지역에서 수많이 공연되였다.

혁명연극은 1909년 10월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등박문(이또 히로부미)을 하얼빈역에서 처단한 청년애국자 안중근의 애국적활동을 소재로 하고있다.

작품에서 주인공 안중근은 살길을 찾아 이국으로 떠나가는 류랑민들의 처참한 모습에서 일제를 몰아내지 않고서는 살아서 쳐다볼 하늘이 없고 죽어서 묻힐 땅이 없다는것을 더욱 사무치게 느낀다. 안중근은 일제의 괴수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이등박문이 짜리로씨야대표와 만저우침략문제를 둘러싸고 협상하기 위하여 하얼빈에 기여든다는 소식에 접하자 이놈을 처단할 무장인원을 선발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세운다. 그는 도중역을 담당한 무장인원들이 실패하자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종착역인 하얼빈역구내로 들어가 이등박문에게 복수의 총탄을 안기고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웨친다.

명작은 19세기말 20세기초의 시대상을 폭넓게 보여주면서 혁

명이란 개인복수나 테로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작품은 인민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동시에 광범한 애국력량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워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명작은 첫 공연의 막이 오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의 사상교양에서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1970년대에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1, 2부)로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각색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혈분만국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작하신 혁명연극. 항일혁명투쟁초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주체17(1928)년 1월 푸쑹에서 첫 공연이 있었다.

1905년에 날조된 《을사5조약》에 의하여 조선이 일제침략자들에게 강점된 정치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1907년 7월에 리준의 애국적행동으로 일어난 《헤그밀사사건》을 소재로 하고있다.

혁명연극에서 주인공 리준은 큰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조선의 독립을 회복하려고 왕의 신임장과 《친서》를 가지고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갔으나 일제와 야합한 렬강들의 책동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회의장에서 퇴장당하게 된다. 리준은 미, 영 등 유럽, 아메리카렬강들이 모두 일제와 한짝이라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깨닫게 되자 분격과 울분을 토로할 길이 없어 일제의 교활한 책동을 규탄하며 단도로 배를 가르고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며 최후를 마친다.

명작은 민족해방에 관한 옳바른 투쟁방도를 체득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거하여 독립을 얻어보려고 시도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주인공의 운명을 통하여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자기 나라 인민자신의 힘으로, 조직적이며 대중적

인 투쟁으로써만 쟁취할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연극은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이 뿌려놓은 외세의존사상, 사대주의사상의 여독을 뿌리빼고 민족자주의식을 높여주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혈분만국회**》는 1980년대에 혁명연극으로 다시 옮겨졌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작하신 혁명연극. 항일혁명투쟁초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주체19(1930)년 가을 우쟈쯔, 카룬, 구위스 등 여러 지방에서 공연되였다. 푸쑹에서 첫 공연이 있었다.

혁명연극의 기본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외딸을 시집보낸 늙은 부부가 딸에게서 오래간만에 온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 어쩔바를 몰라하나 글을 모르다나니 편지내용을 알수 없어 안타까와 한다. 마침 지나가는 한 신사를 불러 편지를 좀 보아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그 역시 글을 모르다나니 편지를 읽어주지 못하고 뒤적거리다가 문맹자인 자신을 한탄하여 긴 한숨을 쉬며 울먹이기까지 한다. 이 광경을 본 늙은 부부는 딸네집에서 불상사가 난줄 알고 설음에 겨워 운다. 이때 지나가던 한 지하혁명조직성원이 딸의 편지를 읽어보고 딸이 옥동자를 낳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어서야 늙은 부부는 너무 기뻐서 어찌할줄 모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간다.

혁명연극은 누구나 다 글을 배워야만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해방되여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찾을수 있다는 진리를 확증해주었으며 사람들을 사상문화적으로 계몽하고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명작은 정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이 결합된 대표적작품의 하나이며 주체적인 혁명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귀중

한 사상문화적재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문예방침과 현명한 지도에 의하여 《딸에게서 온 편지》는 1980년대에 혁명연극으로 무대에 옮겨졌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가무 《13도자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에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무.

작품에서는 조선의 13도를 대표하는 13명의 연예대원들이 노래를 하며 춤을 추면서 무대우에 조선지도를 아름답게 펼쳐놓는 형상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사랑과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조국을 일떠세울 열렬한 지향과 결의를 보여주고있다. 《13도자랑》가에 맞추어 13명의 대표들이 도별 지도를 들고나와 자기 도의 자랑을 담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것을 지도판에 붙여나간다. 조선지도가 완성되면 출연자들은 지도를 축으로 하여 조국에 대한 사랑,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격조높이 노래하며 춤춘다. 가무에서는 지도를 가슴 혹은 머리우로 추켜드는 동작, 손벽치기동작과 다양한 걷기동작 등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춤동작들을 많이 쓰고있다. 가무는 삼천리 조국의 모습이 생동하게 안겨오는 직관성이 강한 소도구와 조국에 대한 노래와 춤이 훌륭한 예술적조화를 이루고있는것으로 하여 누구나 리해하고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는 인민적이고도 통속적인 작품이다.

가무는 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무 《단심줄》과 함께 공연되군 하였다.

혁명적가무예술의 빛나는 모범으로 되는 혁명가무 《13도자랑》은 오늘 더욱 큰 규모로 공연되면서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가무 《단심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작하신 혁명가무. 항일혁명투

쟁초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작품은 로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린이들이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며 무대한복판에 세워놓은 붉은 기둥 단심대에 드리워진 여러가지 색갈의 천줄을 잡고 엇바뀌여 돌아가면서 기둥우의 단심줄을 엮고 풀어나가는 형상을 통하여 온 민족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일어나 싸운다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 붉은 기둥은 단결의 중심을 상징한것이고 여러가지 색갈의 천줄은 각계각층의 반일애국력량을 상징한것이였다.
작품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조선의 노래》, 《13도자랑》 등과 결합되여 종합적인 예술형식으로 발전하였다. 가무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과정에 연예대의 주요공연종목의 하나로서 정치적기념일과 유격대원들의 전투승리를 축하하는 모임, 아동단입단을 축하하는 모임 등에서와 광범한 인민들속에서는 물론 중국인반일부대들에서도 널리 공연되였다.
《단심줄》은 오늘도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 계속 공연됨으로써 그 고전적가치를 더욱 빛내이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소년애국가》

항일혁명투쟁초기에 창작된 혁명가요.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나고있는 소년들의 씩씩한 모습과 원쑤격멸의 드높은 결의, 전투적기백을 노래한 작품이다.
가요는 혁명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면서 《무쇠골격 돌근육》으로 준비된 소년들이 애국정신과 커다란 포부를 안고 원쑤를 치는 싸움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고있다. 이와 함께 《애국자의 더운피》로 가슴태우며 원쑤들의 총칼도 두려움없이 싸워나갈 소년들의 전투적기세를 보여주고있다. 혁명적인 가사는 씩씩하고 약동적이며 밝고 호소적인 선률과 결합되여 소년애국자들의 사상감정을 더욱 폭넓고 웅심깊게 표현하고있다.
혁명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

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널리 불리워지면서 청소년들에게 애국의 열정과 원쑤격멸의 투지를 북돋아주었으며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을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1. 무쇠골격 돌근육 소년남아야
   애국의 정신으로 분발하여라
   다달았네 다달았네 우리 나라에
   소년의 활동시대 다달았네
   (후렴)
   원쑤치는 훈련하여 후일전공세우세
   절세영웅 대사업이 우리 목적 아닌가

2. 애국자의 더운피 가슴에 끓고
   렬사들의 팔다리는 민활하도다
   원쑤의 총칼이 앞을 막아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네
   (후렴)

《나와 소년시절의 김일성원수와의 력사적관계》

중국사람 상위에(상월)가 주체44(1955)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올린 글.

글에는 지린육문중학교시절 위대한 수령님께서 벌리신 혁명활동자료의 일부가 소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린육문중학교에 적을 두시고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이 학교의 어문교원으로 있었던 상위에는 후날 중국인민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뜻깊은 력사의 그 나날들을 회상하여 이 글을 썼다. 글에서는 당시 지린시안의 학생들사이에는 협애한 민족적감정으로부터 생긴 간격이 있었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중국학생이건 조선학생이건 모든 학생들과 화목하게 지내시였으며 중국반동교원들 특히 조선학생들을 차별시하는 교원들의 악랄한 책동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시였다는데 대하여 회

상하고있다. 또한 글에서는 필자가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 쏘련에 가고싶지 않으신가고 묻자 수령님께서 쏘련에 가서 공부하고싶으나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조선에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왜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해방하는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학습기풍을 보여주는 자료들도 소개되여있다. 《나와 소년시절의 **김일성**원수와의 력사적관계》는 지린육문중학교시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를 깊이 연구체득하는데서 귀중한 자료의 하나로 되고있다.

《자본론》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생, 발전 및 멸망의 합법칙성을 밝히고 사회주의혁명의 필연성을 론증한 맑스의 저서.

《정치경제학비판》이라는 부제목을 달고있으며 1859년에 출판된 《정치경제학비판》의 계속이다. 《자본론》은 전3권으로 되여있다. 제1권은 1867년 9월에 출판되였고 제2권과 제3권은 맑스가 서거한 후 엥겔스에 의하여 1885년 6월과 1894년 12월에 각각 출판되였다.

《자본론》은 19세기 30～40년대에 이르러 유럽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투쟁무대에 등장한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간의 계급투쟁이 중요한 정치적문제로 나서고있을 때 로동계급에게 투쟁목적과 방도를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리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씌여졌다.

《자본론》은 1840년대부터 시작되여 40여년동안에 걸쳐 진행된 맑스의 정치경제학연구의 총화이다.

맑스는 저서에서 자본주의적생산방식의 발생, 발전 및 멸망의 합법칙성과 사회주의혁명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다.

특히 맑스주의경제학의 초석을 이루는 잉여가치학설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본주의기본경제법칙과 자본주의적착

취의 비결을 밝혔다.

또한 저서에서는 경제학설뿐아니라 국제로동운동의 실천적경험도 개괄하였으며 철학, 론리학에 대한 사상과 리론들도 전개하였다.

《자본론》은 정치경제학발전에 중요한 과학적기여를 하였으며 자본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적투쟁에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고 로동운동을 과학적사회주의의 토대우에 올려세우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국가와 혁명》

국가에 관한 맑스주의학설을 옹호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집필한 레닌의 저서.

1917년 8월부터 9월사이에 집필되였다.

레닌(1870－1924)은 부르죠아국가를 페절하고 새로운 사회주의국가를 창건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당면하게 로씨야로동계급앞에 제기된 조건에서 수정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로부터 혁명적인 맑스주의국가리론을 옹호하고 로씨야와 서유럽의 혁명경험에 기초하여 국가에 관한 리론을 더욱 발전시킬 목적으로 이 저서를 집필하였다.

저서는 6개 장으로 구성되여있다.

원래 계획에 예견된 7장은 10월혁명이 박두하여 집필요강만 남기고 쓰지 못하였다.

저서에서는 주로 착취계급의 국가를 념두에 두고있었으므로 국가에 대한 완벽한 견해, 사회주의국가에까지 잘 들어맞는 견해를 내놓지 못하였다. 저서에는 꼼뮨이나 쏘베트와 같이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나라에서 출현한 정권형태만 분석하는데 그치였으며 공산주의사회에 가서 폭력에 의하여 안받침되는 계급적권력기구가 없어진다는데로부터 국가가 조락한다고 보는것과 같은 제한성이 있다.

그러나 저서는 맑스주의창시자들이 내놓은 국가리론, 프로레타리아독재리론, 사회주의, 공산주의리론을 고수하고 온갖 형태의

기회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임금로동과 자본》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경제적기초를 해명한 맑스의 저서.

1847년 브류쎌에 있는 도이췰란드로동자들앞에서 진행한 강의내용을 수록한것이다.

저서에서 전개된 자본의 본질, 자본의 축적에 관한 중요명제 등은 후에 《자본론》 제1권에 포함되였다.

《임금로동과 자본》은 로동계급의 정치경제학창시에서와 로동자들을 계몽교양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어머니》

쏘련작가 막씸 고리끼의 장편소설. 1906년에 창작되였다.

공장마을의 평범한 로동청년이였던 주인공 빠벨 블라쏘브, 정치적의식이 낮았던 그의 어머니 뻴라게야 닐로브나가 자본주의철쇄를 짓부시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강의한 투사로, 열렬한 혁명가로 자라는 과정을 중심적으로 취급하고있다. 주인공 빠벨은 혁명적지식인들의 영향밑에 점차 사회주의사상에 눈뜨게 되고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다. 그는 로동계급을 각성시키기 위한 대중정치계몽사업과 대중투쟁의 조직지도과정, 옥중투쟁 등을 통하여 강의한 혁명가로 자라난다. 착취사회에서의 생활의 고통을 말없이 눈물로 참아오던 어머니도 아들과 그의 전우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담하고 슬기로운 지하활동가로, 녀성혁명투사로 성장하게 된다.

작품은 주인공들과 기타 인물들의 진실한 형상을 통하여 사회주의사상이 어떻게 광범한 인민들속에 들어가 거대한 힘을 나타내는가를 예술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어머니》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로씨야로동계급속에 사회주의사상이 들어가고 그들이 혁명적으로 각성되여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는 과정을 맑스주의당의 령도적역할과 결부하여 보여주었으며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첫 작품으로 되였다.

《철의 흐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후날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고난의 행군과 같은 어려운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나는 길림시절에 본 〈철의 흐름〉과 같은 혁명적인 소설들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군 하였다. 문학작품은 사람들의 세계관형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나는 작가들을 만날 때마다 혁명적인 소설들을 많이 써내라고 말하군 한다. 지금은 우리 작가들도 혁명적인 대작들을 많이 써내고있다.》

쏘련작가 알렉싼드르 쎄라피모비츠의 장편소설. 1924년에 창작되였다. 작품은 1918년 꾸반지방의 따만반도에서 조직되였던 붉은군대의 한 부대가 반란을 일으킨 반혁명백파군의 포위를 뚫고 가족들까지 데리고 약 1 200리 험난한 길을 걸어 주력부대와 만나는 력사적사실을 담고있다.

작품에서 주인공 꼬주흐는 가족들과 피난민들을 합쳐 수만명이나 되는 부대를 이끌고 모진 굶주림과 무더위, 검질긴 백파도당의 추격과 포위로 중첩되는 어려운 난관속에서 강의한 결단성과 조직력으로 전투도 조직하고 사람들의 계급적각성도 높여주며 기나긴 로정을 헤쳐오는 과정에 부대를 강철의 대오로, 《철의 흐름》으로 만든다. 그리하여 부대는 적들의 마지막포위선을 돌파하고 주력부대와 만나게 된다.

소설은 소박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적으로 각성되기만 하면 참말로 큰 힘을 낼수 있으며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능히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혁명의 길은 간고하며 그 과정에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으나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뚫고나갈수 있으며 이것을 끝까지 이겨낸 사람만이 진정한 혁명가로 최후승리를 쟁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소설은 지휘관인 꼬주흐가 부대를 혼자서 이끌고나가며 모든것

을 혼자서 처리하는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적역할을 뚜렷이 보여주지 못한 부족점을 가지고있으나 혁명투쟁의 간고성과 혁명가들의 전투성, 혁명성을 잘 반영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혁명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있다.

《축복》

중국작가 루쉰(로신)의 단편소설. 1924년에 창작되였다.

작품은 착취사회에서 선량하고 근면한 농촌의 한 가난한 녀성이 겪게 되는 불행과 비참한 운명을 그리고있다. 작품에서 주인공 아주머니는 청상과부로 지주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잡혀 어진 산골사람에게 팔려 재가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또다시 남편을 여의고 아이마저 잃게 된다. 갈 곳이 없는 그는 다시 옛 주인이였던 지주집에 찾아갔으나 재가하여 《풍속을 더럽혔다.》는 리유로 더욱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갈수록 더해만가는 온갖 수모와 멸시에 견딜수 없게 된 아주머니는 류랑걸식의 길에 나섰다가 남들이 새해를 《축복》하는 섣달그믐날 밤 눈보라속에 파묻혀 죽는다.

단편소설 《축복》은 주인공의 불행한 생활과 비참한 최후를 통하여 당시 중국사회의 계급적모순과 봉건적륜리도덕의 반동적본질을 신랄히 폭로하면서 봉건적제관계가 지배하는 착취사회에서는 아무리 근면하고 선량한 사람이라도 주인공과 같은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압록강가에서》

중국작가 쟝광츠(장광자)의 단편소설. 1926년에 창작되였다.

소설은 리맹한과 운고라는 조선의 청춘남녀를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씌여졌다. 작품은 쏘련에 가있는 중국류학생을 비롯한 류학생들이 조선류학생 리맹한으로부터 그의 생활경위와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되여있다. 압록강가의 한 마을에서 청소년시절을 보내던 리맹한은 일제침략자들에 의해 아버지를 잃

고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친구의 딸인 사랑하는 처녀 운고의 집에 몸을 의탁했으나 일제의 박해와 감시로 더는 살수가 없어 조국땅을 떠나 쏘련에 가서 군대에도 복무하고 공부도 하게 된다. 한편 그의 애인 운고는 조국을 독립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싸우다가 일제원쑤들에게 체포되여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작품은 맹한과 그의 애인 운고의 일생 그리고 맹한의 가정이 입은 참사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고있는 조선인민의 비참한 처지와 강도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원쑤를 몰아내고 조국을 다시 찾으려는 뜨거운 열망을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작품은 소부르죠아지식인들의 혁명화문제를 정확하게 형상하지 못한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부족점들이 있으나 중국의 좌익문학운동을 촉진시키고 혁명적인 사상을 전파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소년방랑자》

중편소설. 중국작가 쟝광츠(장광자)에 의하여 1925년에 창작되였다.

1919년 5.4운동을 전후한 시기의 중국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한 소년이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자라나 점차 혁명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을 보여준 편지체형식의 작품이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악착한 지주에 의해 부모를 잃고 살길을 찾아 방랑의 길을 떠난다. 그는 훈장의 심부름군, 려관심부름군, 상점 점원, 제사공장 로동자 등으로 일하는 과정에 지주, 자본가 등 착취자들이 제국주의군벌들, 외래침략자들과 야합하여 로동자, 농민을 어떻게 억압착취하는가를 직접 체험하고 점차 계급적으로 각성되여 투쟁의 길에 들어선다. 그는 철도로동자들의 파업투쟁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여 감옥생활을 하게 되며 출옥후에는 군관학교에 들어가 혁명가로 성장하며 반동군벌을 반대하는 전투의 앞장에 서서 용감히 싸우다 장렬한 최후를 마친다. 소설은 주

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중국사회의 부패상과 사회악을 신랄하게 폭로하고있으며 피압박인민대중이 투쟁의 길에 나서지 않을수 없는 생활의 필연적로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중편소설 《소년방랑자》는 실제한 력사적사건들의 거류속에서 혁명투사로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민대중의 계급적해방의 길은 오직 혁명을 하는것밖에 없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아큐정전》

중국작가 루쉰(로신)의 중편소설. 1921년에 창작되였다.

1911년 신해혁명을 전후한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낡은 봉건사회가 중국인민들속에 부식시킨 노예적굴종사상과 몽매주의의 해독성을 폭로비판하였다.

소설에서 주인공 아큐는 성도 이름도 직업도 없이 극도의 빈궁과 고통, 천대와 굴욕속에 나날을 보내면서 제국주의와 봉건통치가 빚어낸 형형색색의 락후한 사상에 물젖어있으며 깨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상태에 빠져있다. 그는 압박과 수모를 받으면 즉석에서는 설음을 느끼지만 그에 반항할 대신 자기스스로의 《정신적승리》로써 위안을 찾았고 남에게서 얻어맞고도 자기 뺨을 때리며 원쑤를 갚은것처럼 흡족해한다. 부르죠아혁명의 기운이 그가 살고있는 마을에도 뻗치였지만 그는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혁명당》에 가담할 생각만 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지주집도난사건의 혐의자로 체포되여 애매하게 총살당한다.

작품은 주인공 아큐의 형상을 통하여 방랑과 걸식, 도박과 음주, 노예적굴종과 약한자에 대한 멸시, 자기의 무능력에 대한 비렬한 자기 위안 등 낡은 계급사회가 낳은 부정적현상을 풍자적으로 폭로하고있다. 또한 여러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교활한 착취자들과 그것을 부러워하는 불건전한 인간들을 폭로비판하고있다.

소설 《아큐정전》은 당대 중국사회의 모순과 사회악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한것으로 하여 중국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의 하나로 되였다.

지명 및 상식자료

지린(길림)

지린은 청나라 초기에 쑹화(송화)강방면 수군의 조선소가 있은것으로 하여 선창이라고 불리웠다. 지린의 북쪽에는 베이산(북산)공원, 남쪽에는 쑹화강, 그 건너편에는 넓은 평야와 무성한 솔밭, 동쪽에는 명승지인 룽담산, 서쪽에는 15리가량 떨어진 곳에 륙대문부락이 있었다.

만저우지방으로 이주해온 조선사람들이 지린에서 많이 살았다. 1929년에 지린성안의 조선사람은 70호에 290여명이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정미업, 미곡상을 하였다. 1920년대 후반기에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과 이른바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며 만저우에서 조선독립운동의 중심지의 하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린육문중학교에 적을 두신 주체16(1927)년초부터 주체18(1929)년 가을까지 지린을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밀독서조를 조직하시고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을 로동계급의 선진사상과 리론으로 무장시키시였으며 주체16(1927)년 4월에 합법적조직인 조선인지린소년회를 조직하시고 5월에는 민족주의자들의 영향밑에 있던 조선인려지학우회를 조선인류지학우회로 개편하시였으며 8월에는 《ㅌ. ㄷ》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시고 이어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였다.

그리고 지린－회령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며 일본상품을 배척하는 투쟁을 조직하시였으며 옥중투쟁을 벌리시였다.

지린에는 지린육문중학교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사적이 깃들어있는 곳이 적지 않다.

쑹화(송화)강

중국 동북지방에 있는 강으로서 허이룽(흑룡)강의 오른쪽가지흐

름이다. 백두산천지에서 발원하여 깊은 골짜기를 따라 북쪽으로 흐르며 송료벌에 이른 다음부터는 북동방향으로 흘러 허이룽강에 합류된다. 길이는 약 2 000㎞이다. 쑹화강류역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수많은 혁명전적지들과 사적지들이 있다. 쑹화강에는 수강, 후란강, 무단(목단)강 등 여러개 가지흐름들이 흘러든다. 하천운수에 널리 리용되며 물고기가 많아 수산업상 의의가 크다. 강기슭에는 지린, 하얼빈, 가목사 등 주요도시들이 있다.

싼펑지엔(삼풍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삼풍잔이란 삼풍려관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려관을 〈잔〉이라고도 한다. 김사헌과 장철호외에도 이 려관에는 이름모를 독립운동자들이 많이 와있었다.

삼풍려관은 대풍합정미소와 함께 길림에서 독립운동자들이 숙박소 겸 련락장소로 리용하는 2대 거점이였다.》

지린에 있던 조선인경영의 려관. 지린성밖 쟈오양(조양)문근처에 있었다.

우리 나라 독립운동자들이 숙박소 겸 련락장소로 리용하였다. 집주인은 손정도목사와 한고향 사람으로서 평안남도 증산군에서 살다가 손목사의 권유로 지린에 들어가 이 집에서 주체13(1924)년 겨울부터 려관을 운영하였다. 방이 5칸이였는데 독립운동자들이 늘 작은 두 방을 차지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린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 자주 싼펑지엔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핵심성원들의 모임을 비롯하여 여러 혁명조직성원들의 회의들을 진행하군 하시였다.

푸싱타이(복흥태)정미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길림의 상의가에는 조선사람이 경영하는 복흥태라는 정미소가 있었다. 길림에 있는 독립운동자들은 그 정미소사무실을 침실과 사무실로 리용하고있었다. 남만과 북만, 동만에서 오가는 독립운동자들까지도 그곳을 단골방으로 자주 리용하였기때문에 복흥태는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지린에 있던 조선인경영의 정미소. 상이(상의)가라는 거리에 자리잡고있었다. 겉으로는 정미소간판을 걸고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독립운동자들이 침실 겸 모임장소로 썼으며 한길넘는 벽돌담장이 둘러쳐있어 독립운동자들의 은신처로도 리용되였다. 만저우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단체들인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의 대표들이 여기에 모여 3부통합회의를 해를 넘기며 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린을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 이 정미소에 자주 들리시여 3부의 지도자들이 통합회의를 벌려놓고 싸움질과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내는것을 보시고 사리정연한 론리와 혁명연극공연을 통하여 그들의 그릇된 립장을 비판하시고 그들에게 혁명적영향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그후 3부는 형식상으로나마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되게 되였다.

타이핑허(대풍합)정미소

지린에 있던 조선인경영의 정미소. 우리 나라 민족주의자들은 이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번 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리용하였다. 정미소는 당시 독립운동자들이 숙박소 겸 련락장소로 리용하던 거점의 하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린을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 이곳에서 상하이림시정부의 정체를 전면적으로 폭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6(1927)년 4월 어느 일요일 이 정미소에 들리시여 당시 지린에서 진행되고있는 민족주의자들의 3부통합회의에 참가하고있던 상하이림시정부의 재정부장을 만나 림시정부의 정체와 반인민적책동을 준렬히 규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리정연하고 위엄있는 론박앞에서 말문이 막힌 이자는 《요인》이라는 간판마저 줴버리고 조선사람을 다 망신

시키겠다고 하면서 옷을 벗고 거리에 뛰쳐나가려고 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른바 정객이라고 자처하는 부르죠아민족주의우두머리들의 정체가 여지없이 폭로되였으며 청년학생들은 상하이림시정부란 말만 들어도 돌아서게 되였고 그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버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다황거우(대황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는 강동마을에 나가서 농민동맹도 조직하고 반제청년동맹지부와 부녀회도 조직하였으며 련이어 카륜과 대황구에도 반제청년동맹지부를 무어주었다.》

중국 동북의 지린성 훈춘현의 훈춘시에서 북쪽으로 약 90리 떨어져있는 농촌마을. 동남쪽에는 옌퉁라쯔(연통라자), 서북쪽에는 샤오왕칭(소왕청)이 있다. 여기에는 200여호의 농가가 아래웃마을로 나뉘여져있었으며 그중 조선사람들의 농가는 70호가량 되였다. 다황거우에는 조선인소학교도 있었다.

다황거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하신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7(1928)년 8월초에 다황거우에 오시여 다황거우반제청년동맹지부를 조직하시고 농민, 부녀, 소년조직을 새로 무어주시였다.

나이터우(내도)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안도현에는 조선사람들만 사는 내도산마을이 있었다. 하늘아래 첫동네라고 불리우는 백두산기슭의 이 마을은 울창한 밀림속의 산간벽촌이였다. 내도산이란 수림속의 섬같은 산이란 뜻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중국사람들은 산모양이 젖꼭지같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내두산이라고도 한다.

이 산간마을에 오래전부터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이 드나들었다. 독립군의 백전로장인 홍범도와 최명록도 한때 이 부락에 와있었다.

우리가 이미 〈ㅌ. ㄷ〉 성원인 리제우를 내도산에 파견하여 그 일대의 청년들을 조직에 묶어세우도록 한것은 장차 백두산주변을 큰 혁명기지로 만들자는 타산이 있었기때문이다.》

중국 지린성 안투현에 있는 산간마을. 수림속의 섬같은 산이라는 뜻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중국사람들은 산모양이 젖꼭지같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나이터우산이라고도 한다. 나이터우산은 안투현의 소재지에서 120여리, 푸쑹에서 300리가 넘는 곳에 있다. 중국에서 보면 만저우땅의 마지막부락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보면 백두산너머 중국의 첫 마을이다. 이 나이터우산주변 100리안팎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 마을둘레로는 높고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있고 마을 한복판으로는 작은 개울물이 흐르고있다.

이 마을은 1910년대말부터 살길을 찾아 고향을 떠나온 조선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살게 되면서부터 생겨나게 되였다. 마을사람들은 거의다 천불교를 믿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차 백두산주변을 큰 혁명기지로 만들기 위하여 주체16(1927)년 여름에 리제우를 나이터우산에 파견하여 혁명조직을 내올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신 다음 이듬해 2월에 이곳에 오시여 10일가량 계시면서 마을사람들속에서 정치사업을 벌리시였으며 백산청년동맹지부와 소년탐험대를 조직하시였다. 1930년대 전반기에는 이곳에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하시였다. 나이터우산에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과 견결한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혁명활동사적도 있다.

쟈오하(교하)

중국 동북의 지린성 쟈오하현의 소재지. 지린에서 동남쪽으로 180리 떨어진 곳에 지린—회령선철도를 끼고있다. 서남쪽에는 화디엔, 동남쪽에는 둔화가 있다. 라파산을 경계로 서북쪽에서

는 려신청년회가, 동남쪽에서는 라파청년회가 활동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7(1928)년 봄 라오이(로일)령을 넘어 쟈오하의 신잔마을에 오시여 려신청년회에 망라되여 있는 5명의 핵심청년들로 쟈오하반제청년동맹지부를 무어주시였으며 그후에도 여러차례 다니시며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9(1930)년 8월 하순 종파분자들이 일으킨 8.1폭동으로 말미암아 혁명조직들이 파괴되였을 때에도 쟈오하에 오시여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복구하여주시고 폭동의 후과를 수습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쟝둥(강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길림에서 송화강다리를 건너 돈화쪽으로 얼마쯤 가면 룡담산이란 산이 보이는데 그 산밑에 있는 마을이 강동이였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반제청년동맹조직을 내오고 군중을 교양하여 장차 신안툰과 같이 혁명화된 농촌으로 꾸릴 결심이였다.》

중국 동북의 지린성 지린시의 교외에 있던 농촌마을. 지린시내에서 동쪽으로 10여리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있었다. 마을주위에는 무연한 벌판이 펼쳐져있으며 땅이 비옥하고 쑹화(송화)강이 가까이 있어 논농사에 좋은 곳이였다.

1928년 당시 마을에는 70여호의 농가가 있었으며 그중 40～50호는 조선인농가였다.

이곳에는 4년제 조선인소학교가 있었으며 30～4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린육문중학교에 적을 두시고 혁명활동을 벌리실 때 쟝둥에 자주 나가시여 이 일대의 주민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시였으며 주체17(1928)년 3월 중순에는 이곳에 반제청년동맹지부, 5월에는 반일부녀회를 조직하시였고 농민동맹도 무어주시였다.

신안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신안툰은 길장연도에서 서쪽으로 얼마 안되는 곳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로서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리상향으로 개척해놓은 마을이였다. 만주의 조선인거주지역들중에서도 몇개 안되는 정치운동의 책원지였다. 이 마을을 혁명화하면 농민대중속으로 들어가는 첫 통로를 개척할수 있었다.》

중국 동북지방의 지린에서 서북방향으로 40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농촌마을. 일제의 조선강점후 조선이주민들이 살게 되면서부터 70~80호가량의 집이 서고 마을이 생겨나게 되였다.

이곳은 만저우의 조선인거주지역들중에서도 몇개 안되는 정치운동의 책원지였다. 여기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주체16(1927)년 여름부터 반제청년동맹지부가 조직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주체17(1928)년 3월 10일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혁명적농민조직인 농민동맹이 조직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안툰마을에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으며 마을을 혁명화하며 반제청년동맹지부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여기에 혁명조직성원들을 파견하시였다.

용어 및 어휘

교량자(다리 교-橋, 다리 량-梁, 사람 자-者)

두 사물현상사이에 련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자, 다시말하여 다리의 역할을 하는자

산파(낳을 산-産, 할머니 파-婆)

《조산원》을 이르는 말로서 《어떤 사회적현상의 발생이나 실현을 다그치여 그 조건을 지어주는 존재》를 비겨 이르는 말

전지전능(온전 전－全, 알 지－知, 온전 전－全, 능할 능－能)
종교적관념에서 《모든것을 다 알고 모든것에 다 능하다.》라는 뜻

비합법(아닐 비－非, 합할 합－合, 법 법－法)
법률상으로 허용되지 않는것, 《합법》에 상대되는 말이다.

전위조직(앞 전－前, 막을 위－衛, 짤 조－組, 짤 직－織)
일정한 사회적집단이나 계급들의 앞장에 서서 투쟁의 앞길을 헤쳐나갈뿐아니라 전체 혁명력량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는 혁명적인 조직.

기타 자료, 상식

물산장려운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민족운동의 중심지도층을 이루고있던 근대지식인들은 토산품애용과 민족기업의 육성으로 민족을 경제적파멸로부터 구출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내 살림은 내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경제적인 자급자족의 길을 타개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물산장려운동을 벌리였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이 《독립》을 위하여서는 조선물건의 생산,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벌린 운동.
1922년 겨울 리광수의 배후조종밑에 민족개량주의단체인 《자작회》가 조작된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자작회》가 나온데 이어 1923년 1월에는 서울에서 조만식, 유성준 등 민족개량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여 《조선물산장려회》를 만들어냈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은 《내 살림은 내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경제적인 자급자족의 길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조선의 물건생산과 사용

을 장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물산장려운동을 벌리였다. 이 운동의 중심인물인 조만식은 토산품애용의 상징으로 한평생 무명으로 지은 조선바지저고리와 조선식두루마기를 입고 지냈고 명함장도 국산한지로 만든것을 사용하였으며 신발도 외국의것을 신지 않고 조선의것을 신고 다니였다.

그러나 《물산장려》니 《토산품애용》이니 하고 떠들어댄 민족개량주의자들의 넉두리는 본질에 있어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도 조선인경제를 《발전》시킬수 있고 그에 의거하여 민족적독립을 달성할수 있다는 허황한 환상을 퍼뜨려 조선인민의 독립정신과 반일투쟁의식을 마비시키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았다.

《소년회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는 매해 5월 첫주 일요일을 〈소년회날〉로 정하고 이날에 길림시내의 조선인청소년들과 그 부형들, 유지들과 독립운동자들이 참가하는 운동회도 열어 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제정하신 소년들의 대중정치활동의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6(1927)년 4월 조선인지린소년회를 조직하시고 소년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특히 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해 5월 첫주 일요일을 《소년회날》로 정하시고 운동회, 연예회 등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소년회날》운영을 통하여 더욱 단련된 소년들은 후날 반제청년동맹과 공청조직에 들어가 훌륭한 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성격검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는 공청원들의 조직생활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 당시 공청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성격검토회를 가지고 공청원들의 생활을 총화하였다. 공청원들은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되였으며 공청대오는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집단으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조직성원들의 생활총화모임의 한 형식.

한주일 또는 한달에 한번씩 혁명조직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그동안의 사업과 생활정형을 조직앞에 총화하고 다른 동지들이 가지고있는 결함에 대해서도 일깨워주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당시 공청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성격검토회를 가지고 공청원들의 생활을 총화하였으며 조선인지린소년회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해주신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의 지도밑에 소년회반별로 성격검토회가 진행되였다.

성격검토회는 혁명조직성원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혁명대오를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집단으로 꾸리며 동지들사이에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제와 반동군벌을 반대하는 대중투쟁과 반일 력량의 단합을 위한 투쟁 조직령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발취)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통하여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되였으며 대중을 옳게 조직하면 그 어떤 총칼로도 꺾을수 없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였다.

대중의 힘에 대한 나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대중에 대한 우리의 령도방법도 이 투쟁을 통해 더욱 세련되였다. 실천투쟁속에서 나도 단련되고 조직도 성장하였다.》

《혁명은 동지들을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본가의 밑천은 돈이지만 혁명가의 밑천은 사람이다. 자본가가 돈을 밑천으로 하여 치부의 탑을 쌓아나간다면 혁명가는 동지를 밑천으로 하여 사회를 변혁하고 개조해간다.》

《내가 김혁, 차광수, 최창걸과 같은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잊지 못해하는것은 그들이 나에 대한 노래를 짓고 나를 지도자로 내세워서가 아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민족이 그처럼 절절하게 바라면서도 실현할수 없었던 통일단결, 우리 인민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참다운 통일단결의 시원을 열어놓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령도자와 대중의 일심동체를 이룩한 통일단결의 새 력사를 피로써 개척한 선구자들이기때문이다.》

《통일단결은 우리 대오에서 진짜 혁명가와 가짜 혁명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여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감옥과 교수대로 끌려가면서도 이 통일단결을 목숨으로 사수하였다. 그리고 다음세대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그것을 재보로 넘겨주었다.

그들의 첫째가는 력사적공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를 핵으로 통일단결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넋은 오늘 우리 당이 일심단결이라고 부르는 통일단결을 낳은 위대한 전통으로 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혁명투쟁을 전개한 바로 그때로부터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은 파쟁과 혼란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장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민족주의에 대한 우리 식의 독자적인 해석에 그 기초를 두고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는 민족주의를 민족해방투쟁무대에 맨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의 애국적인 사조로 보았다.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다.

몰락의 비탈길을 굴러내려가고있던 왕조정치의 심연속에서 내우외환이 거듭되고 외세의 강요에 의한 개국의 진통으로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하였을 때 개화의 등불을 들고 〈자주독립〉, 〈보국안민〉, 〈척양척왜〉를 부르짖으며 력사무대에 대여난것이 바로 민족주의라고 말할수 있다. 민족의 자주권이 외부세력에 의해 참혹하게 짓밟히고 국토가 리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고있을 때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조가 등장하여 대중의 지도사상으로 된것은 력사발전법칙에 부합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부르죠아민족주의는 반대하고 경계하지만 참다운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환영한다. 왜냐하면 참다운 민족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감정이 애국에 바탕을 두고있기때문이다.

애국심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다같이 소유하고있는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며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을 위한 하나의 궤도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할수 있게 하는 최대공약수이다. 애국애족은 공산주의를 참다운 민족주의와 련결시켜주는 대동맥이며 참다운 민족주의를 련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다.》

《조선의 민족해방투쟁력사는 공산주의자들이 가는 길이야말로 애국애족의 길이며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참되고 견실한 애국자들이라는것을 증명해주었다.

오늘 국토가 분렬되여있고 외세의 간섭이 심한 조건에서 민족단합이 첫째가는 생명이라는것을 절감할 때마다 나는 왕청문의 비극을 생각하군 한다.》

《민족주의진영의 보수세력은 이처럼 새 사조를 배척하면서 파벌싸움을 하다가 종말을 고하였다. 그들이 전장에 나가서 일제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파쟁과 입씨름으로 세월을 보낸것은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광복시킬 확고부동한 결심이 없었기때문이였다.

력사는 바야흐로 민족해방투쟁에서의 세대교체를 미룰수 없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우리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이 세대교체를 감당할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였다.》

학습문제

문제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일제와 중국반동군벌과의 투쟁을 벌리기 위한 방침과 방도는 무엇인가?

첫째로, 조성된 정세와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옳은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혁명력량의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조직하는것이였다.

둘째로, 합법적투쟁과 비합법적투쟁을 결합하고 작은 규모의 투쟁으로부터 점차 큰 규모의 투쟁으로 넘어가는것이였다.

셋째로, 일제와 반동군벌을 반대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 사회세력들을 광범히 동원하는것이였다.

문제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창호석방투쟁을 벌리기로 결심하신것은 무엇때문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창호석방투쟁을 벌리기로 결심하신것은 우선 군중의 단결된 힘의 위력을 과시하자는데 있었다.

당시 안창호를 비롯한 조선민족주의자들이 체포되였지만 독립운동자들은 아무런 방도도 내놓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었다.

더우기 이들은 단결하여 지린독군서에 압력을 가하자고 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제의에 대하여 군중이 나서서 떠드는것보다 돈이나 뢰물이 더 맥을 춘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돈으로 통하지 않는것도 군중의 단결된 힘으로 능히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석방투쟁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창호석방투쟁을 벌리기로 결심하신것은 또한 수난당한 조선민족은 어려운 때를 당하면 모든 힘을 합쳐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주며 한사람이라도 항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우자는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창호석방투쟁을 벌리자고 호소하였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리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민족주의자들은 물론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과 지어는 혁명조직의 영향을 받고있는 청년학생들속에서 안창호리론에 대하여 서면질문까지 들이댄 사람이 이번에는 왜 그를 구원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쓰는가고 하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창호의 강연을 반박한것은 안창호의 사상을 문제시한것이지 그 인간자체를 반대하신것은 아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주의자들과 사상투쟁을 벌리신것은 그들을 타도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쳐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반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난당한 조선민족은 어려운 때를 당하면 모든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에 내세우시고 안창호석방투쟁을 결심하시였던것이다.

문제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린육문중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조직지도하신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7(1928)년 여름 일제와 결탁한 중국반동군벌을 반대하는 지린육문중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발동하여 학생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과목들에 대한 수업을 보장하며 진보적교원들과 교장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데 대한 요구조건을 내세우고 학생들속에서 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또한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조직하며 삐라와 격문, 성토문을 배포하는 등 여러가지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지도하시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시내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동맹휴학에 떨쳐나설수 있게 준비를 갖추도록 하시였다.

학생들의 동맹휴학투쟁이 온 시내에 파급될 기미가 보이게 되자 이에 겁을 먹은 군벌당국은 하는수없이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수 없었다.

동맹휴학투쟁의 승리는 일제와 결탁한 중국반동군벌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으며 학생청년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새로운 투지를 안겨주고 그들을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단련시켰다.

문제4. 지린－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중령도방법에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지린－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중령도방법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투쟁에 들어가기에 앞서 면밀한 조직사업과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7(1928)년 10월 상순 베이산(북산)공원 야오(약)왕묘지하실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구체적인 행동방향과 분공조직사업, 필요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중 두 나라 인민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삐라와 성토문, 프랑카드를 비롯한 선전물들을 조중 두 나라 글로 쓰도록 하시였고 선동연설도 두 나라 말로 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광범한 군중을 동원시킬 목적밑에 시내 각 학교들에 조직되여있는 학생자치회와 류지학우회, 소년회와 같은 합법적인 조직들을 발동하여 군중동원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린－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은 일제의 만저우침략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반동군벌을 반대하는 투쟁인것만큼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자면 합법적인 조직들이 많이 발동되야 한다고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위투쟁에 들어가는 10월 26일 새벽 지린시내의 여러곳에 삐라와 격문을 붙이고 2~3명으로 무어진 소년회의 감시조가 지정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시였다.

지린—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중령도방법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시위투쟁 전기간 변동되는 정황을 과단성있게 처리해나가심으로써 반혁명세력의 공격을 제때에 짓부시고 투쟁을 계속 고조에로 이끄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린—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의 봉화를 올리면서 동시에 지린—둔화선철도개통식도 파탄시키기 위하여 시위 시작날자를 본래 계획했던것보다 앞당기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동군벌이 수백명의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해나설 때에는 로동자들과 시주변의 농민들, 학생들로 조직된 규찰대를 동원하여 시위군중을 보호하는 동시에 조중 두 나라 청년학생들은 단결하여 시위대오의 전진을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일제가 반동군벌을 사촉하여 시위군중에게 총을 쏘아대는 만행을 감행하자 《일제와 결탁한 반동군벌타도!》라는 구호를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례식과 결합된 보다 대규모적인 시위에로 넘어가게 하시였다.

지린—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대중령도방법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일본상품배척투쟁과 결부하여 전면적인 반일투쟁으로 확대해나가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린—회령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더욱 큰 규모로 확대되고 군중의 반일기세가 높아지자 련이어 대중을 일본상품배척투쟁에로 불러일으켜 투쟁의 화살을 일제에게 집중하도록 하시였다.

지린—회령선철도부설반대투쟁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첫 대규모의 반일투쟁이였다.

문제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광범한 반일력량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허황한 주장

과 그릇된 리론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자, 종파분자들과 사상리론투쟁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이 퍼뜨리는 그릇된 사상독소의 영향을 막기 위한 투쟁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과 군중속에서 강연과 연예선전활동, 연구토론, 출판물을 통한 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여 각종 《주의주장》의 반동적본질과 그것이 조선혁명운동발전에 끼치는 엄중한 후과와 해독성에 대하여 낟낱이 폭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운동단체들이 분렬을 극복하고 통합을 실현하도록 혁명적인 영향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거두들이 민족주의독립운동단체들인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의 3부통합문제를 가지고 자리다툼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있는것을 목격하시고는 그들을 만나시여 서로 힘을 합치고 단결을 도모하여 하루속히 3부통합을 성사시키기 바란다고 절절하게 호소하시였다. 그리고 권력싸움을 풍자한 연극 《3인1당》을 창작공연하시여 그들이 커다란 자극을 받고 국민부라는 단체로 통합하지 않을수 없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운동의 분렬을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7(1928)년 여름 종파분자들이 청년운동의 《령도권》을 틀어쥐기 위해 《조선청년운동자협의회》를 열고 《주중청총》을 결성하려고 시도할 때 반제청년동맹원인 려신청년회 일군을 파견하시여 그들의 종파주의적책동을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18(1929)년 가을 싱징(흥경)현 왕칭(왕청)문에서 국민부 우두머리들의 분렬주의적책동에 타격을 주시였으며 손수 성토문을 쓰시여 발표하도록 하심으로써 선진적인 청년들을 모해하고 체포학살하는 그들의 죄행을 세상에 폭로하시였다.

인 물

오동진(1889. 8. 14－1943. 12. 1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독립운동자들중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제일 깊은 인연을 맺고있던 사람은 오동진이였다.》

반일애국지사. 호는 송암이다. 평안북도 삭주군 청수로동자구(당시 의주군 광평면 청수동)에서 태여났다.

1910년 봄 평양 경상골 병대마당에서 열린 운동대회에서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섰다. 대성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에 일신학교를 설립하고 주체2(1913)년경부터 무역상(도매상)의 간판으로 국내외의 넓은 지역을 래왕하면서 반일력량을 묶어세웠다.

주체6(1917)년 4월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하신 조선국민회 평안북도 하부조직의 구역장으로 선출되여 활동하였으며 이듬해 11월에는 청수동회의에 참가하였다. 주체8(1919)년 3.1인민봉기때에는 의주일대의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불러일으켰으며 이해 여름 삭주일대의 애국적인 청년들을 묶어세워 광제청년단을 내왔다.

그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중국 동북지방의 관디엔(관전)현지구에로 투쟁무대를 옮겼다. 주체8(1919)년 8월에 소집된 관디엔회의에 참가하고 11월말 대한독립청년단과 광제청년단을 련합하여 대한독립청년단련합회를 내오는데 적극 참가하였다. 주체9(1920)년 2월 광복군총영 영장으로 되였으며 무장소조를 무어 국내에 파견하였다. 그후 통의부 교통부장, 재정부장을 지냈으며 주체14(1925)년부터 정의부의 군사위원장, 총사령으로 활동하였다. 이해 8월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소집하신 푸쑹회의에 참가하였으며 회의에서 결성된 민족단체련합촉진회에 망라되여 유일당창건을 위한 사업에 헌신하였다. 주체15(1926)년 4월부터 고

려혁명당 주요간부로 활동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서거하신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숙에 입학하시도록 권고하였으며 주체16(1927)년 지린에서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적극 도와드렸다.

이해 4월 유일당창립을 실현하며 3부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회합에 정의부대표로 참가하였다. 12월경 일제경찰에 의하여 지린(길림)—창춘(장춘)선, 싱룽(흥륭)산역에서 체포되였으며 1932년 3월초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그의 예심기록문건은 무려 3만 5 000페지로서 64책이나 되였다. 재판정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고 단식투쟁도 벌렸다. 당황망조한 놈들은 공판을 중단하고 피고도 없이 판결해버렸다. 상소심에서 종신징역형을 당하였다. 공주감옥에서 오랜 기간 옥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하였다.

안창호(1878－193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는 안창호란 인물자체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에 일생을 고스란히 바친 청렴하고 량심적인 애국지사로 존경하고있었지만 그의 리론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았다.》

반일애국지사. 호는 도산이다. 평안남도 강서군(당시)에서 출생하였다.

고향에서 서당을 다니다가 신학문에 뜻을 두고 1895년에 서울로 갔으며 그곳에서 구세학당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1897년에 공립협회를 결성하는데 참가하였으며 여러 지역에 협회지부를 내오기 위하여 활동하였다. 평양에서 교육을 통한 실력배양이 독립구국의 기초로 된다는 연설을 하였는데 큰 부자인 리승훈도 그 연설을 듣고는 심히 감탄하여 장사를 그만두고 교육분야에 뛰여들어 이름난 교육자로 되였다. 1899년에 강서에서 점진학교를 세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남녀공학을 실시하였다. 그후 미국에서 류학하였으며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1906년에 귀국하여 이듬해 리갑, 량기탁, 신채호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태극서관을 세워 출판업에 종사하였고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안중근에 의한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 저격사건에 관계하였다는 혐의로 1910년에 3개월간의 감옥생활을 하였다. 청년학우회, 대한인국민총회, 흥사단과 같은 독립운동단체들을 조직하였으며 주체8(1919)년 3.1인민봉기이후에는 중국 상하이에 가서 상하이림시정부 각료로 있었다.

주체13(1924)년에 미국으로 갔다가 2년후 다시 중국에 와서 동북지방의 조선인거주지역에서 리상촌건설에 힘썼다.

주체16(1927)년 2월 지린에 나타나 시국대강연을 하였는데 일제의 사촉을 받은 지린독군서에 의하여 체포되였다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벌리신 대중적석방운동에 의하여 20여일만에 풀려나왔다. 그후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였을 때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하여 고생하다가 사망하였다. 그의 기본사상은 민족개조론이였다.

김찬(1893－?)

화요파의 거두. 정만, 황기룡, 김락준, 수암, 권일수라고도 불렀다.

함경북도 명천군에서 출생하였다.

서울의학전문학교에 다니다가 중퇴하고 1913년 일본에 건너가 메이지대학 전문부 법과에서 공부하였으며 학비난으로 귀국한 후 사회운동에 참가하였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 및 고려청년회 결성모임에 화요파의 주요인물로서 김재봉과 함께 참가하여 공산당 선전부 책임자로 되였다.

조선공산당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조선공산당 상하이부를 조직하였으며 1926년 여름에는 조선공산당 만저우총국을 내오고 그 책임자로 되였다. 6.10만세시위투쟁을 지도하면서 종파적견지에서 조직사업을 하였다. 중국동북지방의 지린일대에서 새로 자라나는 청년들속에 자파세력을 확대하려고 책동하였다. 1920년대 중엽 로씨야의 연해주에 가서 생

활하다가 다시 동만에 돌아왔으며 청년학생들앞에서 자주 강연을 하였다.

1928년 여름 북만으로 가서 학교를 세우고 국민부거두들과 자주 접촉하였으며 엠엘파에 대립하여 파쟁에 몰두하였다.

조선공산당 만저우총국 책임자직에서 해임된 후 계속 활동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였다.

쟝쭤린(장작림)(1875－1928)

중국 봉계군벌의 우두머리.

랴오닝(료녕)성에서 출생하였다. 어릴적부터 마적의 무리에 끼여다녔으며 동북3성의 총독에게 귀순하여 1911년에 선양(심양)순방대의 중로 및 전로 두령으로 승급하였으며 펑티엔(봉천)성의 경비를 책임지게 되였다.

중화민국이 성립(1912년)된 후 제27사 사단장이 되였으며 그 후 펑티엔 독군 겸 성장으로 되였다.

1920년 직예파군벌과 결탁하여 안후이파군벌을 격파하고 베이징정계에 진출하였다.

1924년 펑티엔파와 직예파사이의 제2차전투에서 승리하고 베이징정권을 장악하였으며 그 세력을 더욱 확대하였다.

1925년 풍옥상의 천진진출, 곽송령의 반란으로 일시 베이징에서 물러났으나 1926년 다시 직예파와 결탁하여 베이징정권을 장악하였으며 1927년에 군사정부를 세우고 스스로 대원수로 되였다.

1928년 6월 국민혁명군이 티엔진(천진)에 쳐들어오자 베이징을 포기하고 동북으로 철퇴하던 도중 일본관동군이 조작한 렬차폭파로 사망하였다.

쟝쭤상(장작상)(1881－1949)

중국의 군벌. 랴오닝성에서 태여났다. 쟝쭤린(장작림)의 4촌동생이다.

산림대출신으로서 펑티엔(봉천)에서 검열관으로 있었으며 그

후 대대장, 련대장, 려단장을 했다.

1919년에 펑티엔경비사령으로 임명되고 동3성순열사총서 참모장, 제27사 사단장을 하였다.

1924년에 지린성 성장 겸 진위군 제4군 군장, 지린독군서의 우두머리로 되였다. 후에 동성철로호로군 총사령을 겸임하였다.

1929년 국민당정부 위원, 중앙정치회의 위원, 지린성정부 주석 등의 직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1931년 9.18사변후 티엔진(천진)으로 피신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한 후 국민당동북행영정치위원으로 되였다.

1948년 진저우(금주)에서 중국인민해방군에 의해 포로로 되였다.

그후 중국공산당의 관대정책으로 석방되여 티엔진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병으로 죽었다.

윌슨(토마스 우드로우 윌슨. 1856－1924)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버지니아주 목사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1912년 대통령선거에서 부르죠아평화주의와 개혁에 대한 기만적인 구호를 내들고 민주당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였다.

1913년 메히꼬폭동에 대한 무력간섭을 감행하였으며 그후 아이띠, 도미니까, 꾸바, 니까라과에 미해병대를 침입시켰다.

1916년 대통령선거때에 세계대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것을 공약하고 겨우 재선되였으나 1917년에 도이췰란드에 선전포고를 하고 유럽에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1918년에 기만적인 《민족자결론》을 포함한 평화조건으로서의 악명높은 《14개조》를 발표하였다.

전후 경제의 침체로 인기가 떨어져 1920년의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였다.

로동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날뛰였으며 특히 조선인민의 3.1인민봉기를 모독하고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극구찬양한 우리 인민의 흉악한 원쑤이다.

조직, 단체

사회과학연구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사회과학연구회는 맑스-레닌주의와 조선혁명의 지도리론을 연구보급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있었다. 그 운영방법은 지금의 통신대학체계와 비슷하였다. 1년에 보름가량은 농한기를 택하여 청년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해주었으며 나머지시간에는 몇달에 한번씩 이동강의도 해주고 필요한 학습교재들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계몽시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항일혁명투쟁초기 남만의 여러 현에 조직된 혁명적계몽단체.

주체17(1928)년 7월 류하현 가오산쯔(고산자) 동성학교에 특별반(내적명칭은 사회과학연구회)이 나왔으며 이어 왕칭(왕청)문을 중심으로 싱징(흥경)현, 류하현, 판스(반석)현을 비롯한 남만의 여러 지역들에 조직되여 운영되였다.

사회과학연구회의 사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 맑스-레닌주의원리를 연구보급하는데 있었다.

사회과학연구회는 1년에 보름가량은 농한기를 택하여 청년들에게 강의를 해주었으며 나머지시간에는 몇달에 한번씩 이동강의를 해주고 필요한 학습교재들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계몽시키였다. 강의에서는 유물사관, 유물변증법, 인류진화사, 문학, 음악, 세계정치지리, 산수, 지리, 중어 등의 과목들과 자본주의, 제국주의사회의 모순과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조선혁명의 당면과업과 국제국내정세 등 여러가지 사회정치적문제, 자연과학상식문제들도 취급하였다.

사회과학연구회 성원들은 참고서를 놓고 강의에서 받은 내용을 자체로 학습한 다음 한주일에 한번정도 집체적으로 토론회를 가

졌으며 리해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 서면질의응답의 방법으로 배운 지식을 완전히 소화하였다.

사회과학연구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연구학습하는 한편 그것을 대중속에 널리 보급하는 사업도 적극 벌리였다.

사회과학연구회에는 반제청년동맹지부가 조직되여있었고 일체 생활은 이 지부가 장악지도하였다. 사회과학연구회는 그 운영방법이 독창적이고 참신한것으로 하여 수많은 청년들을 시대의 선각자, 력사의 개척자로 훌륭히 키워낼수 있었다.

조선로농총동맹

1924년 4월 서울에서 조직된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단체. 3.1인민봉기와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밑에 새 사조의 보급과 함께 대중단체들이 나오고 지방별 및 단체별 통합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러개의 로동운동단체들이 통합되여 창립되였다.

창립당시 산하에 174개의 로농단체를 망라하고있었으며 그후 여러 지방의 로농단체들을 계속 망라시켰다.

총동맹은 강령에서 로동자, 농민의 해방, 새 사회의 건설, 자본가계급과의 투쟁, 로동자, 농민의 복리증진 및 경제적향상 등을 제기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장성하였던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지향이 일정하게 반영되여있었다.

총동맹은 최저임금제의 확립, 8시간로동제의 실시, 소작료 3할제 실시, 지세 및 공과금의 지주의 부담, 《동척》이민반대 등을 당면한 투쟁목표로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출판물들을 통하여 로동자, 농민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도 일정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로농총동맹은 종파분자들의 책동이 심한데다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지 못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투쟁목표를 제기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못한채 1927년 9월 조선로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갈라졌다.

상하이(상해)림시정부

조선의 반일독립운동자들이 중국의 상하이에서 조직한 림시정부. 1919년 4월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조계지에서 진행된 림시의정원 제1차회의에서 조직되였다.

당시 림시정부는 림시의정원 의장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원과 그아래 내무, 외무, 재무, 군무, 법무, 교통의 6부로 구성되였다. 이해 9월 림시헌법에 따라 대통령제로 개편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국무원을 다시 구성하였다. 1926년에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그 이듬해에는 국무위원제로 개편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석과 국무원의 각료들도 여러차례에 걸쳐 교체되였다.

림시정부는 그 어떤 대중적지반도 못가진 《정부》였으며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망명집단이였다. 림시정부의 요인들은 《자치파》니, 《독립파》니 하는 파벌을 이루고 서로 지도적자리를 차지하려고 추악한 파벌싸움과 내각개편놀음을 끊임없이 벌리였다.

또한 림시정부안의 숭미사대주의자들은 림시정부직속기관으로 이른바 유미위원부라는것을 두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에 빌붙어 조선독립을 구걸하기 위한 《청원운동》을 벌리였다.

그들은 1919년 5월에 열린 빠리강화회의와 1921년 워싱톤회의 등 여러 국제회의들에 《조선독립청원서》, 《선언서》를 내고 《독립청원운동》을 벌리면서 조선민족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림시정부우두머리들은 애국동포들로부터 《독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금품을 모아 사욕을 채웠으며 인두세의 징수, 《사령장》발급, 공채발행 등으로 돈을 긁어모아 부패타락한 생활에 탕진하였다.

《반공》사상에 물젖은 이 집단은 혁명가들을 적대시하면서 그들에 대한 테로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으며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시는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을 방해하였다. 상하이림시정부는 1945년 8월에 해체되였다.

상하이(상해)림시정부 의정원

상하이림시정부의 립법기관. 림시의정원이라고도 한다.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조계지에서 조선의 반일독립운동자들에 의하여 조직되였다.

림시의정원은 의장과 부의장, 의원들로 구성되였다. 의정원은 림시헌법과 법률안의 제정 및 승인, 대통령(주석)선거, 국무원의 선출, 해외대사, 공사의 임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립법기관이라고는 하였지만 인민들의 대중적반일항쟁에 편승하여 정치적야욕을 채워보려는 부르죠아민족운동상층분자들의 싸움마당에 불과하였다.

림시의정원의 의원들은 의정원을 무대로 하여 파벌싸움과 권력다툼을 벌렸으며 39차에 걸치는 회의기간에 서로 지배적자리를 차지하며 자파세력의 지도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5차례나 림시헌법을 뜯어고치고 의원교체놀음을 끊임없이 벌리였다.

림시의정원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의 힘을 빌어 조선의 독립을 이룩해보려는 환상을 가지고 1919년 5월 빠리강화회의와 이해 7월 국제사회당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에 의정원대표를 파견하여 조선에 대한 국제련맹의 위임통치를 청원하였으며 미국, 프랑스 등 렬강들을 찾아다니며 《독립청원운동》을 벌리는 등 우리 인민의 민족적존엄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예산심의, 조세징수, 공채에 관한 법안을 만들어냄으로써 애국동포들로부터 《독립기금》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금품과 돈을 긁어모을수 있게 하였다.

림시의정원에는 한때 의장직을 맡았던 손정도와 같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자들도 일부 있었으나 그들은 림시정부안에서 파벌투쟁 등이 심해지자 그에 환멸을 느끼고 탈퇴하였다.

상하이림시정부 의정원은 1945년 8월에 태평양전쟁의 종말과 함께 해체되였다.

정의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한일합병〉 직후부터 만주지방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군소 독립운동단체들은 무수한 리합집산과정을 거쳐 1925년경까지는 대체로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의 3부로 나뉘여져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우리 나라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단체. 1924년 겨울 중국 지린성 화디엔현에서 남만지방에 널려있던 통의부 등 10여개 민족주의적군사단체들의 통합으로 조직되였다.

이 단체는 당시 만저우지방에서 다른 군사단체들보다 비교적 광범한 지반을 가지고있었다. 환런(환인), 퉁화(통화), 판스(반석), 화디엔, 싱징(흥경) 등 여러 현을 자기의 관할구역으로 하였으며 각 지역에 총관소라는 자치적인 기구까지 가지고있었다.

정의부는 반일투쟁을 위하여 자기 산하에 6개의 독립군중대를 두고있었으며 직할로 화디엔에 독립군 무관학교인 화성의숙을 설치하고 독립군 간부들을 키워냈다. 기관지로 《대동민보》를 발행하였다.

정의부는 군자금모연에 몰두하고 상층들호상간에도 통일되여있지 못하였다. 이 단체는 촉성회파와 협의회파로 갈라져 옥신각신하다가 1928년 8월 촉성회파가 정의부에서 탈퇴함으로써 잔류파와 탈퇴파로 대립되였다. 정의부의 잔류파는 3부(정의부, 참의부, 신민부)가 형식상으로나마 국민부로 통합(1929. 4)됨에 따라 그에 합류하였으며 탈퇴파는 참의부의 촉성회지지파, 신민부의 군정파와 함께 따로 림시혁신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국민부와 병립하였다. 정의부안의 완고한 민족주의자들은 선진적인 청년들에 대한 백색테로를 일삼으면서 민족해방운동의 통일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정의부의 량심적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과의 련합을 지향하였으며 1930년대에 와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받

들고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싸웠다.

정의부 촉성회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정의부는 촉성회파와 협의회파로 분렬되여있었고 신민부는 군정파와 민정파로 대립되여있었으며 참의부는 촉성회지지파와 협의회지지파로 갈라져 옥신각신하였다.》

우리 나라 독립운동단체였던 정의부안에 생긴 파벌. 탈퇴파라고도 한다.

1928년 5월 판스(반석)현에서 열린 민족단일당 조직촉성회의를 계기로 발생하였다.

이 회의에서 기본문제로 론의된 민족단일당의 결성문제를 둘러싸고 정의부는 촉성회파와 협의회파로 갈라지게 되였다.

촉성회파에는 김동삼, 리청천, 리종건 등이 속해있었다. 이 파는 기존의 모든 단체를 부인하고 자파세력본위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협의회파에 대립하여 분파행동을 감행하였으며 정의부에서 탈퇴하였다.

결과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을 지연시켰을뿐아니라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에 엄중한 손실을 끼쳤다.

정의부 협의회파

우리 나라 독립운동단체였던 정의부안에 생긴 파벌. 잔류파라고도 한다. 1928년 5월 판스(반석)현에서 있은 민족단일당 조직촉성회의를 계기로 발생하였다. 이 회의에서 중심문제로 론의된 민족단일당 결성문제를 둘러싸고 정의부는 협의회파와 촉성회파로 분리되게 되였다. 협의회파에는 현묵관, 고이허, 현정경 등이 속해있었다. 이 파는 민족단일당결성과 3부통합에서 자파단체중심론을 주장하면서 촉성회파와 대립되여 파벌싸움을 벌렸다. 그리하여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을 지연시키고 반일투쟁에 엄중한 손실을 끼쳤다. 이 파는 1929년 4월 신민부의 민정파, 참의부의 협의회지지

파와 함께 국민부를 만들어 형식상 3부통합을 하였다.

정의부의 탈퇴파

우리 나라 독립운동단체였던 정의부안에서 분파행동을 하다가 탈퇴한 파벌. 촉성회파라고도 한다. 1928년 5월 판스(반석)현에서 있은 민족단일당 조직촉성회의를 계기로 발생한 촉성회파와 협의회파사이에는 민족단일당 결성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였으며 이해 8월말에 열린 정의부의 중앙의회를 계기로 더욱 격화되여 촉성회측은 정의부에서 탈퇴하고말았다. 이 파에는 리청천, 김동삼, 김원식, 리종건들이 속해있었다. 이 파는 1928년 12월 참의부 촉성회지지파, 신민부의 군정파와 함께 림시혁신의회를 만들었다. 탈퇴파의 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3부통합은 더욱 지연되게 되였다.

신민부

우리 나라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단체. 1925년 3월 북만의 닝안(녕안)현에서 민족주의자들의 몇개 군사단체가 합쳐져 조직되였다. 이 단체는 북만과 동만의 일부 지역을 자기의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신민부는 성동군관학교를 설치하고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한편 군자금모연에 주력하였으며 상층호상간에는 통일되여있지 못하였다. 이 단체는 민정파와 군정파로 대립되여있었는데 민정파는 3부(정의부, 신민부, 참의부)가 형식적으로나마 국민부로 통합(1929. 4)됨에 따라 그에 합류하였으며 군정파는 정의부의 탈퇴파(촉성회파), 참의부의 촉성회지지파와 함께 림시혁신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국민부와 병립하였다.

신민부의 군정파

우리 나라 독립운동단체였던 신민부안에 생긴 파벌. 1927년 12월 신민부의 스터우허쯔(석두하자)총회를 계기로 민정파와 대립하여 발생하였다. 군정파에는 김좌진, 황학수, 정신 등이 속해있었다. 군정파는 1928년 9월에 지린에서 열리는 3부통합회의 대

표파견문제를 둘러싸고 내부분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군정파는 민정파의 대표를 신민부의 참된 대표로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 파의 대표권만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신민부자체의 분렬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3부통합을 지연시키는 해독적작용을 놀았다. 이 파는 그후 정의부의 탈퇴파(촉성회파), 참의부의 촉성회지지파와 함께 림시혁신의회를 만들어냄으로써 국민부와 대립하였다.

신민부의 민정파

우리 나라 독립운동단체였던 신민부안에서 생긴 파벌.

1927년 12월 신민부의 스터우허쯔(석두하자)총회를 계기로 군정파와 대립하여 발생하였다.

민정파에는 김돈, 손상하, 신숙 등이 속해있었다.

민정파는 1928년 9월에 열리는 3부통합회의에 참가할 대표자격권심의와 관련하여 군정파의 대표자격을 부인하고 자기 파가 정식대표임을 주장함으로써 군정파와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켰다.

그리하여 신민부의 자체분렬을 가져오게 하였을뿐아니라 3부통합을 지연시키는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민정파는 그후 정의부의 협의회파, 참의부의 협의회지지파와 함께 국민부를 만들어냄으로써 형식상 3부의 통합을 이룩하였다.

참의부

우리 나라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단체. 통의부에서 분리된 일부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1923년 8월 남만의 퉁화(통화)현에서 조직되였다.

조직초기 이 단체는 지안(집안)현을 중심으로 하고 퉁화, 푸쑹, 창바이, 안투, 류하 등 압록강연안의 지역을 자기의 관할구역으로 하였다. 참의부는 군자금모연에 몰두하고있었으며 상층호상간에도 통일되여있지 못하였다. 이 단체는 촉성회지지파와 협의회지지파(심룡준파)로 분렬되여있었는데 협의회지지파는 3부(정의부, 신민부, 참의부)가 형식상으로나마 국민부로 통합(1929. 4)됨에

따라 그에 합류하였으며 촉성회지지파는 정의부 탈퇴파, 신민부 의 군정파와 함께 따로 림시혁신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국민부와 병립하였다.

참의부 촉성회지지파

우리 나라 독립운동단체였던 참의부안에 생긴 파벌. 1928년 9월 제2차 3부통합회의에 참가하였던 참의부의 심룡준파와 대립하여 발생하였다.

촉성회지지파에는 김희산, 김소하 등이 속해있었다. 심룡준 등은 3부통합회의에 참가한 김소하를 반동분자로 규정하고 정의부의 협의회파에 그의 사형집행을 의뢰하였으며 또 참의부의 실권을 장악하려고 중앙호위대장인 차천리(이전 반일의병장)를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김희산 등은 정의부와 협의회파를 지지해나선 심룡준 등을 살해하려고 정의부의 촉성회파를 지지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참의부는 협의회지지파와 촉성회지지파로 갈라지게 되였으며 이것은 3부통합을 제대로 할수 없게 하였다. 이 파는 그후 정의부의 촉성회파, 신민부의 군정파와 함께 림시혁신의회를 만들어냄으로써 국민부와 대립하였다.

국민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그후 3부는 형식상으로나마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였다. 그것은 정의부의 잔류파와 신민부의 민정파, 참의부의 심룡준파의 련합으로 이루어진 절반짜리 통합이였다.

정의부의 탈퇴파와 참의부 촉성회지지파, 신민부의 군정파는 따로 림시혁신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국민부와 병립하였다.》

우리 나라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련합단체. 1920년대 중엽 중국 동북의 남북만에 활동하고있던 3부(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의 세력들은 일제와 싸울 대신 관할구역을 넓히기 위한 패권다툼에만 몰두하고있었다.

3부가 나온 초기부터 독립운동의 선각자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1928년 여름부터 시작된 3부통합회의는 장소를 바꿔가며 거듭되였으나 자리다툼과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지린의 푸싱타이(복흥태)정미소에서 진행된 《3부통합회의》 역시 의견대립으로 좀처럼 결속되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3부의 거두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하여 주체18(1929)년 3월 민족주의자들의 권력싸움을 풍자한 혁명연극 **《3인1당》**을 준비하여 공연하게 하시였으며 공연이 끝난 다음날 회의장을 찾으시여 진심으로 뭉치도록 일깨워주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제는 청년들을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1929년 4월 형식적이나마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다. 국민부는 정의부의 협의회파와 신민부의 민정파, 참의부의 협의회지지파의 련합으로 이루어진 절반짜리 통합이였다.

국민부의 최고기관은 중앙의회였으며 자기의 강령과 헌장을 가지고있었다. 국민부는 초기 23명의 중앙집행위원을 두고있었으며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지역을 주요활동지역으로 하고 관할행정구역을 40여개의 구로 나누었다. 산하에 조선혁명군이라는 명칭을 띤 독립군(9개의 중대)을 가지고있었다.

각파의 거두들은 국민부에 들어와서도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대립되여 권력싸움을 그치지 않았으며 무력도 두 파로 분렬되였다. 국민부의 보수세력(국민부파)은 새 사조를 배척하면서 민족해방운동을 저애하고 청년운동의 분렬을 추구하는 등 혁명운동발전에서 제동기적인 책동을 하였으며 혁신세력(반국민부파)은 공산주의에 공감하면서 그와의 제휴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국민부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국민부파란 독립군이 10여년동안 틀어쥐고온 기존방침의 고

수를 절대화하는 보수세력이였고 반국민부파란 기존방침을 반대하고 새로운 로선을 추구하는 혁신세력이였다.》

우리 나라 독립운동단체였던 국민부안에서 생긴 파벌. 1930년 8월에 있은 민족주의자들의 정치단체였던 조선혁명당 집행위원회와 대표회의를 계기로 반국민부파와 대립하여 발생하였다. 국민부파에는 현묵관, 량세봉, 고이허, 김문거, 량하산 등이 속해있었다. 이 파는 기존방침의 고수를 완강하게 주장하면서 그 실현을 위하여 반국민부파를 테로하는 행위까지 벌렸다. 주로 국민부파는 당시 재만조선인들에 대한 통수권을 틀어쥐고있었고 반국민부파는 독립군의 통수권을 쥐고있어 민중과 군대를 분렬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반국민부파

우리 나라 독립운동단체였던 국민부안에서 생긴 파벌. 1930년 8월에 있은 민족주의자들의 정치단체였던 조선혁명당 집행위원회와 대표회의를 계기로 국민부파와 대립하여 발생하였다.

반국민부파에는 고원암, 김석하, 리진탁, 리웅 등 소장파인물들이 속해있었다. 이 파는 기존방침을 반대하고 새로운 로선을 추구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국민부를 타도하는 테로전까지 벌렸다. 반국민부파는 당시 독립군의 통수권을 틀어쥐고있었다.

림시혁신의회

국민부와 병립한 민족주의혁신파단체. 1928년 12월 정의부의 탈퇴파(촉성회파)와 참의부의 촉성회지지파, 신민부의 군정파에 의하여 조직되였다. 이 단체에는 정의부 탈퇴파의 리청천, 김동삼, 김원식, 신민부 군정파의 김좌진, 황학수, 정신, 참의부 촉성회지지파의 김희산, 김소하 등이 속해있었다.

조선혁명당

독립군들이 조직한 정당. 조선혁명당은 1929년 12월에 민족주의정당으로 결성되였다. 주요조직성원으로는 현익철, 현정경, 고

이허, 김보안, 최동오, 량기하, 리웅 등이였다.

조선혁명당은 중앙집행위원회와 정치, 조직, 교양, 경제(재무), 외교, 선전, 군사 등의 부서들을 두고 활동하였다. 사업상 국민부의 변신이나 다름없는 이 당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 상층부 성원들을 규합한데 불과하였다.

조선혁명당은 1930년 8월 당집행위원회 대표대회를 계기로 두 파로 분렬되였으며 1932년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대다수 성원들이 체포됨으로써 해체되고말았다.

조선혁명당 집행위원회

독립군들이 조직한 정당인 조선혁명당의 최고지도기관. 조선혁명당 중앙집행위원회라고도 하였다.

1929년 12월 랴오닝(료녕)성, 싱징(흥경)현에서 조선혁명당이 결성된 후 인차 구성되였다. 《민족적 새 당을 형성하여 혁명사업을 수행하는》것을 기본임무로, 국민부와 그가 만들어낸 조선혁명군을 조직지도하는것을 《현실적과업》으로 내세웠다. 1930년 8월에 싱징(흥경)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는 조선혁명군(1929년 12월부터 조선혁명당에 소속)개편문제를 토의하고 그것을 5개 중대로 편성하였으며 중대장들을 임명하였다. 국민부의 재정, 세입 및 세출문제도 토의하였다. 이때에 있은 조선혁명당 집행위원회와 국민부운영문제를 협의한 집행위원회 대표회의를 계기로 국민부는 상반되는 리념상의 알륵으로부터 두개의 진영으로 분렬되여 서로 상대방을 타도하고 매장하기 위한 피투성이싸움을 벌리였다.

서상파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났던 서울파와 상하이파가 결탁하여 형성한 종파집단.

1920년대 중엽 공산당의 지도부를 장악한 종파집단에 대항하기 위하여 서울파와 상하이파는 그들대로 서울 춘경판(중국인료리집)에서 서상파를 형성하고 《당대회》를 열었으며 거기에서 따로

《당지도부》를 꾸며냈다. 서상파는 자기 파 대표를 국제당에 보내여 엠엘파의 종파적행위를 폭로비방하면서 자기들이 《정통파》라고 주장하였다. 종파분자들이 제각기 《당지도부》를 형성하고 파벌싸움을 벌림으로써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은 사분오렬되였으며 1928년에 이르러 조선공산당은 해산되고말았다.
그후에도 서상파는 《조선공산당재건공작위원회》의 간판을 들고 《령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추잡한 파벌싸움을 벌리였다.
서상파는 다른 종파들과 마찬가지로 해방전후를 통하여 조선혁명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서울파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안에 나타났던 종파집단.
1921년 1월에 조직된 서울청년회를 지반으로 하여 생겼다. 화요파, 북풍회파 등과 대립하여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령도권》을 탈취하기에 광분하였다. 1923년 8월에는 화요파, 북풍회파인물들의 회합장소를 습격하고 폭행을 가하여 상대에게 중상을 입히는 이른바 락양관사건을 도발하였다. 조선공산당의 지도부를 화요파가 차지하자 당밖에서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종파책동을 감행하여나섰다. 서울파는 1925년말 내부분렬로 말미암아 신파와 구파로 갈라졌으며 그후 신파는 다른 파와 결탁하여 엠엘파를 이루고 구파는 상하이파와 결탁하여 서상파를 형성하였다.
서울파는 다른 파와 결탁한 이후에도 종파책동을 계속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운동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화요파

1920년대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서 발생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혁명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집단.
1922년 3월에 조직된 《무산자동맹》의 관계자들이 이르꾸쯔파와 종파적으로 결탁하여 1923년 5월에 《신사상연구회》를 조직하였으며 1924년 11월에 그 이름을 맑스의 탄생요일인 화요일을 따서 화요회로 고쳤다. 이것이 곧 화요파이다.

화요파는 1925년 4월 서울파를 제껴놓고 상하이(상해)파, 북풍회파와 결탁하여 조선공산당의 지도부를 차지하였다. 그후 당밖에서는 서울파와 대립하고 당안에서는 상하이파, 북풍회파와 대립하여 추잡한 파벌싸움을 계속하였으며 혁청단, 용진단과 같은 테로단을 만들어 다른 파에 폭행까지 감행하였다.

조선공산당이 해산된 다음에도 국내외 특히 만저우에서 《조선공산당재건준비위원회》라는 간판을 들고 파벌싸움을 계속하였다. 1945년 8.15이후 박헌영을 두목으로 하는 화요파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지령밑에 당조직들을 파괴하고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말아먹는 죄행을 저질렀다. 이자들은 공화국북반부에 기여든 다음에도 당을 파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는 당과 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한 음모까지 꾸미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주체41(195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를 계기로 힘차게 벌어진 반종파투쟁에 의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화요파계렬의 종파분자들은 완전히 적발숙청되고말았다.

엠엘파

1920년대 중엽에 나타나 오래동안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집단.

서울신파에 속한 일부 분자들이 이르꾸쯔파와 북풍회파, 서상파의 일부 분자들을 긁어모아 레닌주의자동맹이라는 종파집단을 형성하였다. 엠엘파라는 이름도 거기에서 유래된것이다.

엠엘파는 조선공산당지도부를 차지한 화요파에 대립하여 당밖에서 파벌싸움을 벌리다가 당안에 들어간 후에는 화요파계렬의 당지도부성원들이 일제에 의하여 검거되자 그 기회를 타서 당의 령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자기 대표를 국제당에 파견하여 서상파의 종파적행위를 비방하고 자기들이 선출한 《당중앙》만이 《합법적》인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엠엘파를 비롯한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은 사분오렬되였으며 조선공산당은 창건된지 3년만에 해산되게 되였다.

엠엘파는 그후 국내외 특히 만저우에서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라는 간판을 들고 파벌싸움을 계속하였다.

해방후에는 남조선에서 당조직을 파괴하고 대중운동을 말아먹었으며 그 두목인 최창익도당은 우리 당안에 기여든 후 종파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와 특히 전후시기에는 원쑤들과 결탁하여 당과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까지 꾸미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주체45(1956)년 8월전원회의를 계기로 이자들의 죄행을 전면적으로 폭로하고 그들을 당대렬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남만청총

우리 나라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중국 동북, 남만일대에 조직되였던 청년단체. 남만청년총동맹의 략칭이다.

남만일대에서 활동하던 민족주의의 우두머리들은 청년들을 장악하기 위하여 1924년 12월 판스(반석)현 호관진에서 지린, 둔화, 판스, 화디엔 등지의 여러 조선인청년단체들을 통합하여 남만청년총동맹을 결성하였다. 그후 1926년에는 남만의 칭위엔(청원), 류하, 하이룽(해룡)현과 싱징현지구의 각 청년회들을 인입하여 그 이름을 남만청년련맹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조직자체의 성격에서 변화가 크게 없었으므로 계속 남만청총이라고 불렀다.

국민부의 우두머리들은 청년조직들에 스며들어온 새 사조의 영향을 막고 만저우일대에 있는 조선청년단체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넣을 목적으로 1929년 가을 싱징현 왕칭문에서 동만청총과 남만청총을 통합하기 위한 남만청총대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칙적이고도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그들의 기도는 파탄되고말았다.

남만청총은 1930년에도 《전만청년운동재준비회의》를 발기하고 통일적인 청년조직을 내오려고 하였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해 6월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쳤다.

동만청총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에 의하여 동만에 조직되였던 청년단체. 동만청년총동맹의 략칭이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만일대의 선진적인 조선청년들속에서 새 사조를 따라 여러가지 이름을 가진 청년조직들이 나와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동만에서 청년운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할 목적으로 1926년 1월 룽징(룡정)에서 각지 청년조직대표회의를 소집하고 동만청총을 결성하였다. 여기에는 룽징의 대성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과 옌지(연길) 등지의 학교학생들이 망라되여있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엠엘파나 화요파의 영향을 받고있었다. 그러나 동만청총의 조직부장인 김준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뵙고 수령님의 지도밑에 활동하게 되면서부터 동만청총의 많은 청년학생들은 종파분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참된 혁명의 길을 걷게 되였다.

동만청총은 1929년 4월 재중한인청년동맹에 의하여 그 산하조직으로 흡수되였으며 이해 가을 국민부가 조직한 남만청총대회에 참가한 후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대오내에 분렬이 생기고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1930년대 초엽에 해산되였다.

회 의

3부통합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3부통합회의가 권력다툼으로 시간을 질질 끌 때에는 애국력량의 단합을 바라는 우리의 진정을 담아 예술의 힘으로 민족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며 독립운동단체들이 국민부로 통합되였을 때에는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였다.》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의 통합에 관한 문제가 토의된 회의.

3부는 원래 각각 자기의 관할구역을 정하고 다른 단체와의 협동적련계도 없이 인민들로부터 군자금이나 모아 탕진하면서 할거하고있었다.

각 부의 지도자들은 일제의 거듭되는 공세와 탄압앞에서 각개격파당할 위험이 조성되자 이 난국을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었다.

1928년 7월 정의부는 참의부와 신민부에 3부통합회의의 개최를 제안하였다. 참의부는 이해 8월에 김희산, 김소하, 김강 등 3명을 그 회의에 대표로 파견했으나 신민부는 3부통합회의를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내부분쟁으로 하여 대표를 파견하지 못하였다.

결과 제1차 3부통합회의는 류산되고말았다.

제2차 3부통합회의는 1928년 9월 신안툰에서 열렸는데 여기에는 정의부의 김동삼, 최동오, 현묵관, 참의부의 심룡준, 김소하, 림병무, 신민부의 김좌진, 김돈, 리연, 송상하 등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이해 11월까지 계속되였으나 유일당조직방법문제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하여 결렬되게 되였다.

제3차 3부통합회의는 1929년 3월 지린에 있는 푸싱타이(복흥태)정미소에서 열렸다. 김좌진(신민부소속), 김동삼(정의부소속), 심룡준(참의부소속)을 비롯한 3부의 거두들은 모여앉기는 하였으나 조선독립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공리공담과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질만 하였으며 이로 하여 회의는 중단되군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3부거두들에게 큰 자극을 줄 목적으로 그들의 권력싸움을 풍자한 혁명연극 **《3인1당》**을 친히 창작하시여 공연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연후 그들의 회의장소로 찾아가시여 사리정연한 론리로 청년들의 지향을 말씀하시였다.

이에 심한 가책과 자극을 받은 민족주의거두들은 1929년 4월 형식상으로나마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3부를 통합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문예작품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3인1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작하신 혁명연극. 지린에서 주체18(1929)년 3월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단체들인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의 대표들이 3부통합회의를 열어놓고 제가끔 자기 파를 내세우고 다른 파를 깎아내리면서 자리다툼과 공리공담, 술놀이로 세월을 보내는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큰 자극을 줄 목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의 권력싸움을 풍자한 이 작품을 창작하시였다.

연극은 《송도국》이라는 환상적인 나라에서 세 정승이 저마다 룡상을 차지하려고 자리다툼을 하다가 결국 룡상도 마사먹고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작품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물고뜯는 세 정승의 형상을 통하여 자리다툼만 하는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추악한 몰골을 묘사함으로써 파쟁이 얼마나 너절하고 집요하며 해로운가를 실감있게 보여주었다.

혁명연극은 파쟁에 몰두하고있던 민족주의우두머리들에게 타격을 주고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로 하여금 세력싸움에 환장이 된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너절한 속심과 파쟁행위의 내막을 똑똑히 알게 하였으며 어느 길이 진정한 조국해방을 위한 길인가를 깨닫게 하였다.

혁명연극 《3인1당》은 우리 나라의 주체적인 혁명적풍자희극의 창조와 발전에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3인1당》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문예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76(1987)년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다시금 무대에 옮겨져 거대한 혁명적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였던 주체17(1928)년에 창작된 첫 혁명송가. 혁명시인 김혁 작사, 작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수령을 노래한 혁명적인 가요이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흠모하면서 일편단심 충정다하려는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창작한 작품이다.

혁명송가는 주체17(1928)년 가을 김혁, 차광수동지들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린에서 모임을 열고 이 노래의 보급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이 혁명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도록 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결정한 이후부터 광범한 지역에 급속히 퍼지기 시작하였다. 가사에서는 암담한 조선의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새별과 같이 높이 서시여 조국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흠모와 칭송의 감정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또한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변함없이 싸워가며 해방된 조국땅에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념원을 아름답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조선의 별》은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송가창작의 시원을 열어놓은것으로 하여 주체적인 음악예술발전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기념비적명곡으로 되고있다.

1.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2. 캄캄한 밤하늘 바라다보니
신음하는 조국산천 어리여오네
변치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마음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3. 간악한 강도 일제 쳐물리치고
3천리에 새별이 더욱 빛날제
조선아 자유의 노래부르자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사 건

《미쯔야협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중국 동북지방을 통치하고있던 장작림군벌은 〈미쯔야협정〉으로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었다.》

만저우지방에서 조선민족해방투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하여 일제와 중국 동북반동군벌간에 체결된 비밀협정. 1925년 6월에 맺어졌다.

1920년대에 이르러 중국동북지방에 거주하는 조선사람들속에서 반일투쟁이 강화되는데 당황한 일제는 만저우에서 활동하던 조선인공산주의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925년 6월 11일 당시 펑티엔(봉천)에 조선총독부 경무

국장 미쯔야를 파견하여 평티엔성 경무처장과 이른바 《미쯔야 협정》으로 불리우는 강도적인 협정을 조작하였다.

협정은 만저우에서 활동하는 조선인공산주의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을 반동군벌이 체포하면 일본령사관에 넘길 의무를 지며 일본령사관은 그 값으로 상금을 주되 그 일부는 체포한자에게 직접 준다는것 등을 규정하였다. 협정을 맺은 후 일제는 중국반동군벌을 사촉하여 거주증명서의 강제발급, 무기휴대엄금, 조선인학교, 서당의 폐쇄 등의 폭압조치를 취하였다.

중국 동북지방을 통치하고있던 반동군벌은 이 협정으로 일제와 손을 잡고 조선인공산주의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뛰였으나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기세를 꺾지 못하였다.

협정은 일제가 만저우를 강점하자 더는 필요없게 되여 1932년 12월 12일에 페기되고말았다.

중동철도사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중동철도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진행한 투쟁은 쏘련을 정치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국제주의적투쟁이였다. 우리는 그때 지구상에 처음으로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싸우는것을 공산주의자들앞에 부과된 성스러운 국제주의적의무로 간주하였다.

중동철도사건을 둘러싸고 우리가 진행한 투쟁을 통하여 중국인민은 군벌의 진면모를 똑똑히 파악할수 있게 되였으며 군벌의 배후에서 그들을 반쏘행동에로 끊임없이 부추기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였다.》

중국국민당 봉계군벌군대가 중동철도를 탈취하고 쏘련을 침공한 사건. 쏘만전쟁이라고도 한다.

일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1929년 7월에 일어났다.

중동철도는 중국과 쏘련이 1924년의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경영

하고있었다.

1920년대말에 이르러 배신적인 반쏘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던 중국의 반동군벌은 무력을 동원하여 이 철도의 무선전신국과 관리국을 점령하고 철도를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이어 국경을 넘어 세개 방향으로 쏘련을 침공하였다.

이리하여 쏘련군대와 중국반동군벌군대사이에는 무장충돌이 일어나 류혈전(1929. 10. 12～11. 20)이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사회주의국가인 쏘련을 옹호하여 싸우는것을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선 성스러운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시고 국민당정부와 반동군벌의 반쏘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 광범한 군중들을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이 투쟁을 통하여 중국인민은 반동군벌의 진면모와 군벌의 배후에서 그들을 반쏘행동에로 부추기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심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은 중동철도사건을 계기로 크게 각성되였다. 중동철도사건은 1929년 12월 1일 쏘중간의 《하바롭스크협약》의 체결로 종결되였다.

흑하사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연해주지방에서 조선독립운동자들이 벌린 활동은 외부세력의 개입과 계파호상간의 대립으로 흑하사변과 같은 가슴아픈 참사도 빚어냈지만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선상에서 무시할수 없는 흔적을 남기였다고 말할수 있다.》

1921년 6월 로씨야의 연해주지방에 있는 흑하연안의 자유시에서 벌어진 조선독립군들의 류혈적인 충돌사건. 자유시사변이라고도 한다.

당시 자유시에는 칭산리(청산리)전투(1920. 10)이후 북만으로 이동한 독립군부대들과 로씨야 연해주 등지에서 조직된 독립군부대들이 집결되여있었다.

이때 자파세력확장에 피눈이 되여 날뛰던 종파집단들인 이르

꾸쯔파와 상하이(상해)파는 각기 독립군에 대한 령도권문제를 둘러싸고 불화를 조장시키고있었으며 또한 독립군의 우두머리들도 내부암투를 계속하고있었다.

이러한 때 오하묵을 비롯한 이르꾸쯔파는 로씨야원동군에 의거하여 독립군을 자파세력에 흡수하려고 책동함으로써 독립군내부분쟁이 류혈전으로 전환되였다. 그리하여 독립군내부에서 서로 총질을 하고 칼부림을 하여 흑하를 조선청년들의 피로 물들이게 하였다.

흑하사변은 종파분자들의 파벌싸움과 독립군우두머리들의 세력권쟁탈로 하여 빚어진 가슴아픈 참사로서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에 큰 손실을 주었다.

이 사변을 계기로 독립군운동은 전면적인 와해과정에 들어섰다.

흑하사변후 리청천을 비롯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독립군운동을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지고말았으며 김규식 등 독립군의 일부는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권력싸움을 위한 무력지반을 닦는데 리용되였다. 그리고 일부는 독립군대렬에서 떨어져나와 로씨야원동군의 한 려단에 편입되여 진보적운동조류에 합류되였다.

주중청총사건

주체17(1928)년 여름 반제청년동맹원들이 중국에 있는 조선청년단체들을 틀어쥐기 위한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한 사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하신 혁명적인 청년조직들의 활동으로 종파분자들의 영향하에 있던 청소년들속에서는 사상적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당황한 종파분자들은 청소년들의 사상적동요를 수습하고 중국에 있는 조선청년단체들을 저들의 《령도권》밑에 둘 야심으로 1928년 여름 중국 펑티엔(봉천)성 판스(반석)현에서 《청년운동자협의회》를 소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중청총을 결성하려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혁명적인 청년들을 이 투쟁에로 현명하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주중청총결성회의에 려신청년회의 이름으로 참가한 반제청년동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주중청총결성음모를 폭로하고 그 부당성을 까밝혔으며 려신청년회는 주중청총을 반대하여 회의에서 탈퇴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이렇게 되자 종파분자들은 려신청년회의 간부들인 반제청년동맹원들에 대한 테로행위를 시도하였으며 판스성명이라는것을 꾸며 려신청년회가 주중청총의 발기단체의 하나라고 공포하는 사기협잡행위까지 감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려신청년회로 하여금 회의장에서 투쟁한 정형을 담은 성토문을 작성공포하도록 혁명적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종파분자들의 음흉한 계책은 여지없이 폭로되게 되였으며 그 영향하에 있던 청년들은 이자들과 련계를 끊고 혁명의 길로 나서게 되였다.

왕칭(왕청)문사건

1929년 가을 중국 동북의 지린성 싱징(흥경)현 왕칭문에서 국민부의 우두머리들이 남만청총대회 준비위원회 성원들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감행한 백색테로사건. 남만청총대회사건이라고도 한다.

남만청총대회는 국민부의 민족주의우두머리들이 동만청총과 남만청총을 통합하여 조선청년동맹을 내옴으로써 만저우(만주)일대에 있는 모든 조선청년단체들에 대한 《령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소집한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청년운동에 조성된 엄중한 위협을 막으며 민족주의영향밑에 있던 청년들을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하여 백산청년동맹대표의 자격으로 왕칭문에 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시여 각지에서 온 청년들에게 낡은 민족주의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고 참된 혁명의 길로 나갈것을 호소하시였으며 대회결의안이 진보적청년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국민부의 우두머리들은 저들의 기도가 파탄되게 되자 대회준비위원회 성원들에 대한 체포소동을 벌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국민부의 우두머리들을 만나시여 그들의 죄행을 준렬히 폭로규탄하시였으며 류혈을 막기 위하여 대회에 참가하러 왔던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왕칭문에서 떠나게 하시였다. 그리하여 남만청총대회는 류산되였다. 그러나 국민부의 우두머리들은 최봉을 비롯한 여러명의 대회준비위원회 성원들을 왕칭문 괴모지구 산골짜기에서 끝내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련이어 신안툰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테로행위를 감행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에 대처하여 링가(릉가)에서 국민부상층의 악랄한 반혁명적죄상을 낱낱이 폭로하는 성토문을 작성하시여 싼위엔푸(삼원포)에서 발표하게 하시고 각 조직들에서 성토대회를 열어 그들의 죄행을 폭로하도록 하시였다.

왕칭문사건은 《독립》과 《민족운동》을 념불처럼 외우며 《반일독립》을 표방하던 민족주의자들의 부패성과 반동성을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그 영향하에 있던 청년들을 각성시켜 참된 혁명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산둥(산동)출병

일본침략군이 중국 산둥지방에 출병을 한 강도적인 사건. 당시 일본내각수상인 다나까의 대중국외교의 시금석으로 불리운 주요한 사건이다.

1927년 5월 쟝지에스(장개석)의 국민혁명군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세력을 뻗치던 쟝쭤린(장작림)의 펑티엔(봉천)군을 추격하여 산둥지방에로 진출하였다.

당시 다나까내각은 북벌군의 진격으로부터 저들의 만저우와 화베이(화북)침략의 지탱점인 쟝쭤린군벌을 옹호하기 위하여 일본거류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5월 28일 뤼순(려순)주둔군 2 000명을 산둥성 칭다오(청도)에 파견하였으며 그후 다시 본토에서 2 000명의 증원군을 뽑아 산둥지방에 파병하였다. 이것이 일제의 제1차 산둥출병이였다.

쟝지에스는 일본의 산둥출병을 반대하여 싸울 대신 북벌을 중지하고 산둥지방 일본거류민들의 생명재산의 안전을 담보하였다. 그

리하여 1927년 가을에 일제는 저들의 침략군을 산둥에서 일시 철수하였다. 그러나 1928년 봄 쟝지에스의 국민혁명군이 쟝쭤린군벌을 반대하는 북벌혁명을 다시 일으키자 파쑈적인 다나까내각은 산둥지방에서 저들의 《특수리권》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4월 7일 또다시 산둥출병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일제의 티엔진주둔군으로부터 3개 중대력량이 지난(제남)에 급파되고 일본본토에 있는 구마모도 제6사단이 산둥에 출병하였다.

티엔진(천진)주둔군은 4월 20일 지난에 도착하였으며 제6사단 5 000명은 25일 칭다오에 상륙하고 그 관하 보병 11려단은 26일 지난을 점령하였다. 이것이 일제의 제2차 산둥출병이였다.

지난의 주요지대를 장악한 일본침략군은 5월 3일 밤 쟝쭤린군벌을 추격하면서 지난시에 들어온 쟝지에스의 국민혁명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국민당전선상무위원회 외교공서와 국민당정부신임주재 산둥파견원 등을 습격하였으며 16명의 중국관리들을 살해하였다. 일제는 저들의 거류민까지 서슴없이 학살하고는 그 책임을 중국측에 넘겨씌우면서 중국군대를 반대하는 시가전을 벌리였다.

일본정부는 관동군에서 1개 려단을 더 파견하는 한편 나고야에 있는 제3사단까지 출동시켰다.

일본군은 5월 9일부터 10일사이에 지난시에 맹렬한 포사격을 가하고 11일에는 지난을 강점하였으며 이 도시에서 1만여명의 중국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이것이 제3차 산둥출병 혹은 《지난참안》, 《5.3참안》이였다.

3차에 걸치는 일제의 파렴치한 산둥출병은 조중인민들속에서 배일감정을 폭발적으로 야기시키였다.

출판물

《민족개조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민족개량주의를 류포시키는데서 리광수의 〈민족개조론〉이 많은 작용을 하였다. 이 론문을 읽으면 개량주의의 본질을 알수 있고 그 위험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사리 판단할수 있다.

내가 〈민족개조론〉을 읽고 제일 불쾌하게 생각한것은 리광수가 조선민족을 렬등한 민족처럼 여기고있는 점이였다. 나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조선민족을 렬등한 민족이라고 여긴적은 한번도 없었다.》

민족개량주의를 설교한 리광수의 반동적인 론문. 1920년대에 나왔다.

3개 장으로 구성되여있으며 철두철미 우리 민족을 모독하는 반동적궤변으로 일관되여있다.

론문에서는 조선민족의 성질은 《렬악》하기때문에 《성격을 그냥 두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허사가 되고말것이니 민족적성격의 개조,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유일한 길이다.》라고 설교하였다. 그리고 민족개조운동은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견해에 관계없이 순수한 문화운동으로 진행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오직 이길만이 조선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력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조선민족이 렬등하기때문에 민족성을 개조해야 나라를 독립시킬수 있다는것으로서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무시하는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개조론》은 론문집 《조선의 현재와 장래》, 잡지 《개벽》등에 실렸으며 세상에 나오자마자 인민들의 규탄을 받았다.

학 교

평융(풍용)대학

청나라의 봉계군벌당국이 세운 대학. 대학을 설립한 평융(당시 동북공군사령관)의 이름을 붙여 평융대학이라고 하였으며 1927년에 세워졌다.

설립당시 대학은 펑티엔성 펑티엔시(당시 랴오닝(료녕)성 선

양(심양)시)에 있었다.

대학에서는 자연과학과목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과학과목들도 배합하여 취급하였다.

1929년 만저우군벌이 중동철도사건을 도발하고 쏘련을 침공하였을 때 평융대학의 일부 우익계 학생들은 반동들의 사촉을 받아 무장까지 하고 쏘련을 반대하여나섰다.

일제침략자들이 1931년 9.18사변을 도발하자 평융대학은 베이징으로 이동하여 교육사업을 계속하였다.

동북대학

중국 동북군벌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대학. 1923년 4월 펑티엔(봉천)성 펑티엔(봉천)시(랴오닝(료녕)성 선양(심양)시)에 세워졌다. 초기 대학에는 교육학원, 법률 및 문학학원, 공학원 등의 학부들이 있었다.

1929년 가을 중동철도사건때 이 대학의 일부 우익계 학생들은 반동들의 부추김밑에 무장을 하고 쏘련을 반대하여나서기까지 하였다. 9.18사변후 대학은 베이징, 시안(서안) 등지에로 이동하였으며 일제의 멸망과 함께 1946년초부터 다시 동북의 하얼빈, 가목사에 옮겨졌다.

이때부터 중국공산당동북국직속 대학으로서 동북의 혁명간부들을 육성하였다.

대학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전중국이 해방된 다음 창춘 및 지린으로 이동하여 동북인민대학, 지린사범대학으로 개편운영되고있다.

지 명

가오산쯔 (고산자)

중국 동북의 랴오닝(료녕)성 류하현의 농촌마을. 류하현의 소재지에서 동남쪽으로 60리, 싼위엔푸(삼원포)에서 동북쪽으로 60리가량 떨어져있었다.

가오산쯔주변에 있는 마을들에는 조선농민들이 많이 살고있었다.

가오산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린을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시던 시기에 이룩하신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곳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오산쯔일대의 조선청년들에게 선진사상을 보급하며 그들을 혁명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주체17(1928)년 여름 차광수, 김혁을 비롯한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을 이곳에 파견하시였다. 차광수, 김혁의 활동에 의하여 가오산쯔 동성학교에 사회과학연구회(특별반)가 나오고 반제청년동맹지부가 조직되였다.

지린(길림)－창춘(장춘)선철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압록강을 건너온 이주민들은 단동을 거쳐 남만철도로 장춘에까지 와가지고는 거기에서 동지철도를 리용하여 북만쪽으로 가든가, 길장선을 타고 길림을 경유하여 그 근방의 오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봉천으로부터 봉해선, 길회선을 거쳐 돈화, 액목, 녕안방면으로 가기도 하였다.》

중국 동북지방의 지린과 창춘사이를 련결하는 철도. 지창(길장)철도라고도 한다. 일제는 대륙침략을 위하여 1906년 8월 남만저우철도주식회사(략칭 만철주식회사 또는 만철)를 설치하고 1910년부터 지창철도건설에 착수하였으며 1912년에 이르러서는 130㎞구간을 개통하였다.

지창선은 1928년에 지둔선(길림－돈화)철도, 1933년에는 둔투선(돈화－도문)철도와 각각 련결되여 창춘으로부터 투먼(도문)까지의 연장선으로 되였다.

지린－회령선철도

만저우의 성소재지 지린과 조선의 북부국경도시 회령사이를 련결하는 철도. 지회(길회)선이라고도 한다.

명치시대(1868～1912년)부터 지회선철도를 부설할 야심을 품

어온 일제는 이 철도에 거대한 전략적의의를 부여하고 1907년부터 만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192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그 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일제는 1928년 11월 지둔선철도(길림—돈화사이철도)개통식을 하기로 하고 그의 연장으로 만저우침략의 주요간선으로 되는 지회선철도부설에 달라붙었다.

총길이가 421.6㎞나 되는 이 철도는 우리 나라의 청회선(청진—회령사이철도)과 두만강철교가 부설되면서 그와 련결되여 1933년에 완공되였다. 지회선철도는 일제가 만몽을 침략하며 조선과 만저우를 병참기지로 전환시키고 반쏘침략전쟁을 준비하는데서 중요한 전략적의의를 가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린을 중심으로 하여 혁명활동을 전개하시던 시기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을 일제의 지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조직동원하심으로써 일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시였다.

둔화—투먼선철도

중국 동북의 지린성의 둔화와 투먼(도문)사이를 련결하는 철도. 일제는 둔투선철도를 저들의 만저우와 몽골을 침략하기 위한 선결적인 공간으로 삼고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 부설공사에 달라붙었다.

1928년 8월에는 지둔선(길림—돈화철도)을 완공한데 이어 둔화—회령사이의 철도건설과 함께 둔화—투먼사이의 철도건설에 착수하여 1933년에 완공하였다.

그후 둔투선은 창춘과 투먼을 련결하는 간선으로 되였다.

왕칭(왕청)문

중국 동북 지린성 싱징(흥경)현의 농촌부락. 현소재지에서 40여리 떨어진 곳에 있다.

왕칭문에서 동쪽으로 80여리 가면 링가가 있고 왕칭문 오도구에서 60여리 떨어진 곳에 우랑촌(어랑촌)이 있다.

왕칭문부락가운데로는 동서로 넓은 도로가 뻗어있고 길 동쪽끝에는 평양의 보통문만한 크기와 모양을 가진 옛문이 있었다. 조선사람들이 이곳에 적지 않게 살고있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농사를 하였다.

주체18(1929)년 부락중심에는 국민부의 거두들이 생활하고있었다. 그리고 독립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화흥중학교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18(1929)년초에 내오신 보습과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8(1929)년 가을 이곳에 오시여 고루한 민족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청년운동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였다.

용어 및 어휘

당리당략(무리 당－黨, 리로울 리－利, 무리 당－黨, 간략할 략－略)

당파의 리익과 전략을 이르는 말이다.

당쟁(무리 당－黨, 다툴 쟁－爭)

당파들의 싸움 또는 정당들의 싸움을 이르는 말이다.

대의명분(큰 대－大, 옳을 의－義, 이름 명－名, 나눌 분－分)

마땅히 지켜야 할 큰 의리와 본분이라는 뜻. 큰뜻을 품고나선 사람이나 조직, 단체들이 본래의 뜻에 맞게 반드시 지켜야 할 도의상의 본분을 이르는 말이다.

리상향론(리치 리－理, 생각 상－想, 시골 향－鄕, 론할 론－論)

인류가 지향하고 념원하는 리상적인 고장이나 나라 또는 그런 세계에 대한 리론이라는 뜻.

맹위(사나울 맹－猛, 위엄 위－威)

사납고 위엄있는 기세 또는 용맹스러운 위세.

상주서(웃 상－上, 아뢸 주－奏, 글 서－書)
낡은 사회에서 왕이나 최고권력자에게 의견을 제기하는 글.

성토문(소리 성－聲, 칠 토－討, 글 문－文)
대방의 죄행이나 비행을 온 세상에 폭로하고 고발하기 위하여 쓰는 글을 말한다.

시금석(시험할 시－試, 쇠 금－金, 돌 석－石)
금의 순도판정에 쓰이는 층새들을 이르는 말인데 여기로부터 흔히 《사물의 본질이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비겨 이르는 뜻으로 쓰인다.

훈육주임(가르칠 훈－訓, 기를 육－育, 주인 주－主, 맡길 임－任)
지난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른바 《도덕품성》을 가르치고 통제할 임무를 수행하는 교원.

촉수(찌를 촉－觸, 손 수－手)
동물들에 있는 무엇을 잡거나 더듬으며 느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대상에 내뻗치는 손길을 비겨 이르는 말.

타성(게으를 타－惰, 성품 성－性)
(생활방식, 사고방식, 관습에서)전부터 굳어져내려오는 버릇.

은사(은혜 은－恩, 스승 사－師)
귀중한 가르침을 준 은혜로운 선생이라는 말.

일사천리(한 일－一, 쏟을 사-瀉, 일천 천－川, 마을 리－里)
물이 거침없이 천리를 쭉 내려간다는 뜻으로 《거침없이 빨리 시

원스럽게 진행되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기타 자료, 상식

개량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실력양성의 간판밑에 진행된 개량주의운동은 리념상에서는 애국애족을 표방하였으나 방법상에서는 비폭력을 전제로 하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운동이였다.》

부분적인 개량의 방법으로 계급적 또는 민족적해방을 이룩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혁명적사상조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기 위한 혁명투쟁을 반대한다.

개량주의에는 사회개량주의와 민족개량주의가 있다.

사회개량주의는 혁명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없이 사회경제제도의 부분적개혁방법으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동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사상조류이다.

자본가들에게 매수된 로동계급의 상층인 로동귀족을 사회계급적지반으로 하여 19세기 후반기에 생겨나서 유럽자본주의나라들에 널리 퍼졌다. 사회개량주의의 반동적본질은 사회주의에로의 혁명적이행의 길을 가로막는 제동기의 역할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데 있다.

민족개량주의는 《민족개량》의 구호밑에 《민족성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혁명적사상이다.

민족개량주의는 식민지예속국가들에서 자산계급과 그의 사상적대변자들인 불견실한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제창되였다. 민족개량주의는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이 착취와 억압을 받으며 빈궁과 고통속에서 신음하는 원인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에

있는것이 아니라 《렬악한 민족성》에 있으며 따라서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이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민족성을 개조》해야 한다고 설교한다. 또한 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무모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밑에서의 《자치》운동을 주장한다. 민족개량주의의 대두는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동요와 제국주의자들의 매수정책의 산물이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은 부르죠아 및 소부르죠아의 계급적나약성으로 하여 항상 동요하다가 나중에는 침략자들과 결탁하는 길로 나간다. 지난날 우리 나라 민족개량주의자들은 《민족개량》의 구호를 내걸고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면서 민족해방운동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으며 대부분 일제에게 투항변절하여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노예화정책에 복무하였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자아인격혁신론》과 《민족경제확립운동론》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인격완성론》을 들고나와 《각 개인의 자아수양》을 설교하는 한편 교육과 민족산업의 진흥을 통한 민족실력의 양성, 《자급자족》, 《물산장려》 등을 떠벌이였다.

일제식민지통치말기에는 《동조동근》,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면서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추종하였다. 민족개량주의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였다.

성토대회

어떤 죄행을 드러내여 비판하고 규탄하는 군중대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8(1929)년 10월 중순 국민부의 테로분자들이 싱징(흥경)현 왕칭문에서 남만청총대회를 소집해놓고 6명의 준비위원회성원들을 무참히 학살한 죄행을 규탄하기 위하여 혁명조직들로 하여금 성토대회를 벌리게 하시였다.

류하현 가오산쯔(고산자)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성토대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성토문이 발표되였다.

성토대회는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의 죄행을 폭로단죄하고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정통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자체로 당을 꾸리고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파가 〈정통파〉라고 하면서 감자도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돌아다니였다.》

기본줄기를 이루고 이어져내려오는 파벌.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화요파, 엠엘파 등 종파분자들은 저마다 자기 파가 《정통파》라고 자처하면서 다른 파를 배척하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고 분주히 돌아다니였다.

《제3세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반국민부파 인물들은 공산주의에 공감하면서 그와의 제휴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을 〈제3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일제가 우리 나라 민족운동내부에 대두한 혁신세력 즉 혁신파인물들을 가리켜 하던 말.

1920년대말에 이르러 우리 나라 민족운동내부는 독립군의 기존방침의 고수를 절대화하는 보수파세력과 그것을 반대하고 새로운 로선을 추구하는 혁신파세력으로 분렬대립되여있었다. 혁신파세력은 공산주의에 공감하면서 그와의 제휴를 기도하기도 하였다.

일제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닌 새로운 중도세력이라는 뜻에서 이 혁신파세력을 《제3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조선총독부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식민지통치의 최고기관.

일제가 공포한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관제》(1910. 9. 30)

에 따라 1910년부터 서울에 설치되였는데 이때로부터 조선에 대한 일제의 극악한 식민지총독정치가 시작되였다.

총독부의 우두머리는 총독이였다. 총독은 《친임관》으로서 륙해군대장들가운데서만 임명될수 있었으며 그에게 행정, 립법, 사법, 군통수 등 무제한한 권력이 주어져있었다.

초대총독은 악명높은 군국주의자인 륙군대장 데라우찌 마사다께였다. 총독밑에는 문관자격의 정무총감과 총독관방이 있었다.

총독부의 행정부서로서는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상공부, 사법부가 있었고 각 부밑에는 3～4개의 국 또는 과가 있었다.

총독부소속관서로서는 중추원, 취조국과 도청, 시청, 군청, 면사무소 등의 지방행정기관들 그리고 경무총감부, 재판소, 감옥과 같은 정치적폭압기구들, 철도국, 림시토지조사국, 전매국, 세관, 인쇄국, 영림창 등의 경제략탈기관들과 식민지교육문화기구들이 있었다.

총독부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전기간 우리 인민의 저주와 증오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과 함께 괴멸되였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일제가 조선인민의 반일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조작한 조선총독부소속관서의 하나인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우두머리.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19년 8월에 조작되였다. 그 전신은 1910년 9월 30일에 설치된 조선총독부소속관서의 하나인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이다.

1919년 8월 일제는 총독부관제의 개혁에 따라 종래의 경찰관서관제를 폐지하고 경무총감부 및 각 도경무부를 없애고 조선총독부 경무국을 내왔다. 이에 따라 일제는 총독의 직속밑에 중앙에 조선전역의 경찰을 통솔하는 경무국을 두고 국장을 임명하였다. 이 기구의 설치로 하여 일제는 조선인민의 반일독립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하나의 큰 감옥으로 되고 말았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은 바로 이러한 살인폭압기구의 두목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가 청산됨으로써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해체되고 경무국장의 직책도 없어졌다.

지린(길림)독군서

봉계군벌통치시기(1919～1931년) 중국 지린성의 군정을 통일적으로 맡아본 군정통치기구.

성내의 군사와 정치에 대한 최고권한을 장악한 독군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군정사령부, 군정행정기관이다.

지린독군서에는 독군인 성장관의 군사행정사업을 통일적으로 맡아보는 군사지휘관리에 필요한 부서들과 일반민사행정부서들, 경찰, 헌병, 감옥 등 사업을 담당처리하는 부서들이 있었다.

지린독군서에서 쟝쭤린(장작림)의 4촌동생 쟝쭤상(장작상)이 우두머리노릇을 하였는데 그는 일본놈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그러나 독군서는 악명높은 《미쯔야협정》(1925. 6)체결후 일제의 사촉밑에 군대와 헌병, 경찰들을 동원하여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함으로써 반동적인 군벌통치의 정체를 드러냈다.

지린(길림)성정부

중국 동북지방의 군벌들이 장악하고있던 통치기구의 하나. 지린성은 1907년(광서33년)에 성립되였다.

1931년 9.18사변이전 성정부는 민정청, 경무청, 교육청, 실업청, 재정청, 상공청 등 여러 기구들을 가지고 창춘을 비롯한 여러 직할시들과 39개 현을 관할하였다.

지린성정부는 군벌이 장악하고있었던것으로 하여 광범한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폭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백두산3대장군 혁명력사학습참고서(1)

집　필　박사, 부교수 최수남
편　집　손광식　　장　정　손명희
편　성　정향애　　교　정　류은아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6월 15일
발　행　주체101(2012)년 6월 20일

ㄱ－25083ㄴ　　　　값 60원